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5년 4월 17일 금요일 제1132호

한국투자증권
함께 가는 금융 친구
I'M YOU

소셜커머스 4년간 5000억 적자 판매업자 "돈 떼일라" 노심초사

쿠팡 작년 영업손실 1215억 1년새 30배↑…위메프 -290억 티몬 판매업자에 지급할 돈 현금성자산의 2.7배에 달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인터넷 쇼핑몰인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적자 규모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판매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A씨는 "현 상황에서 소셜커머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안하다"면서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별도로 사이트를 마련하는 등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B씨는 "소셜커머스의 경우 정산하는 데 보통 2~3개월 소요된다"며 "회사 사정이 나빠져 정산이 더 늦어지거나 입금 자체가 안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들과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다. 소셜커머스 업체의 영업손실과 자본잠식 규모가 해를 넘길수록 크게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2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013년 42억원에서 30배나 급증했다. 위메프와 티몬은 각각 290억원, 24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4년간 3사의 누적 적자만 총 50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지속된 적자로 결손이 늘어나자 3사의 자본잠식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자산 1418억원, 부채 1580억원으로 자본총계 -817억원의 자본잠식 상태다. 위메프의 자본잠식 규모는 2013년 -523억원에서 56% 늘어났다. 티켓몬스터도 자본 총계가 -87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699억원)보다 규모가 확대됐다. 쿠팡은 자산 3428억원, 부채 3191억원이다. 지난해 투자를 통해 자본금이 플러스가 됐지만 부채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현금 보유량도 넉넉지 못해 판매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쿠팡의 경우 1년 이내에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매입채무가 2714억원이지만 보유 중인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968억원에 불과하다. 위메프는 현금자산 814억원에 매입채무 2168억원, 티켓몬스터는 현금자산 612억원에 매입채무 1626억원으로 매입채무가 현금자산의 3배에 달한다.

그러나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현금 흐름이 충분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다. 티몬 관계자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고 매출액도 증가하며 성장 중이다"며 "한 달에 거래되는 현금 흐름만 1300억원이 넘기 때문에 판매대금 지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철규·조승예 기자 yoonck@

금융권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최수현·김진수 등 거론… 금감원 '채권단 지원 압박 의혹' 알고도 숨기기 급급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로비 파장이 금융권으로 전이됐다. 성 전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권단 지원을 압박했다는 의혹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말 경남기업 사태가 정치권과 금융당국, 은행이 모두 얽힌 커넥션 의혹으로 확대될 것을 사전 인지하고 자체 감시 기능을 작동시키지 않는 등 사면초가에 빠졌다. 여기에 성 전 회장이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경남기업 워크아웃을 주도했던 당시 김진수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 등과 회동한 사실도 밝혀지면서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4면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금감원 고위급 인사들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용환 농협금융회장 내정자 등 금융권 핵심 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또 금감원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신한은행 또한 성완종 리스트의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지난 2월 금감원과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감사에 착수해 경남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이 있다는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만큼 한동우 신한지주 회장과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향후 검찰의 수사 향배에 따라 성 전 회장의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금융권 유력 인사들의 면면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해 특혜성 지원을 주도한 의혹을 사고 있는 금감원은 자체 감사 기능을 작동시키지 않는 등 내부통제에 허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 금융권 안팎으로 경남기업 자본잠식에 따른 특혜 시비가 불거질 당시 내부적으로 사태 확산을 인지하고도 관련 인사 퇴임 조치 등 사안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당시 경남기업 워크아웃을 주도했던 김진수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은 지난해 12월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그는 지난해 4월 부원장보에 내정되면서 임기(총 3년)가 2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퇴임에는 당시 진행됐던 감사원의 감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초 진웅섭 원장이 대규모 임원 물갈이를 진행할 때 임기를 채우지 못한 임원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승진을 앞둔 후배들조차 부담이 컸다"면서 "이에 경남기업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가 금감원 임원급 인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w@

코스닥, 7년3개월 만에 700고지 넘었다



코스닥지수가 700선을 넘어섰다. 지난 2월 5일 600선을 돌파한 뒤 거침없는 상승세다. 코스닥지수는 종가 기준 2008년 1월 10일 713.36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700선을 넘어서지 못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의 전광판에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4.92포인트 상승한 703.23을 나타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해외IB "코스피 최고 2700까지 간다"

저금리·글로벌 유동성 풍부 호재 장밋빛 전망… 韓증시 규모 '세계 11위' 재진입

2100선을 훌쩍 넘은 코스피가 올해 2200~2300선을 찍을 것으로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전망했다. 특히 기업실적 개선, 추가 금리인하 등이 이뤄지면 최고 2700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1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IB들은 코스피가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한국은행의 사상 최저 금리 등으로 코스피가 지난 14일 3년 8개월 만에 2100선을 돌파한 것에 주목했다. 이어 코스피가 향후 기업실적 개선,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지속 등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올 2분기 중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되고 경기선행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앞으로 1년 동안 상장기업들의 주당순이익(EPS)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7%에서 11%로 높여 잡았다. 모건스탠리는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2200으로 제시했다.

특히 주당순이익이 21%까지 증가하면 최고 27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경빈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해외 IB들은 통상 최상, 중립, 최상의 3가지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모건스탠리는 코스피가 최상의 상황에서 270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며 "해외 IB들은 연초부터 한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봤고 실제로 그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바클레이즈는 환율과 유가 안정에 주택시장 회복 등으로 기업실적 개선 모멘텀(동력)이 강해지고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 환경으로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며 코스피의 연말 목표치를 2300으로 잡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BoA-ML)는 신흥국 증시 포트폴리오 내 한국 투자 비중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신흥국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로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계 IB들은 코스피 위험 요인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부진,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꼽았다. 그러나 한국의 양호한 경제여건과 매력적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수준)으로 부정적 영향이 크진 않을 것으로 점쳤다.

한편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세계 11위로 다시 올라섰다.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세계 84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자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지난 15일 기준 1조3414억 달러(1509조원)를 기록, 세계 11번째로 조사됐다. 한국은 2013년 중반에도 11위였으나 지난해 12위로 밀려났다가 올해 다시 11위를 탈환했다. 이진영 기자 mint@

부영 자금줄 동광주택 재무 '흔들'

계열사 대여금 5500억으로 늘었는데 상환액은 '쥐꼬리'

부영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동광주택이 재무적 곤경에 빠질 수 있는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계열사에 대한 자금 수혈 규모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광주택은 부영CC, 부영, 남양개발 등 관계사 3곳에 총 1652억1800만원 규모의 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결정했다. 부영CC에 977억2800만원, 부영에 480억5400만원, 남양개발에 194억3600만원을 각각 빌려준다. 이와 함께 동광주택은 부영CC가 기존에 빌려간 251억원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광주택이 현재 계열사들에 대여해 준 금액은 총 5556억원가량으로 늘어나게 됐다.

동광주택은 앞서 동광주택산업, 부영, 부영주택, 부영대부파이낸스, 부영CC, 남양개발, 부영환경산업 등 계열사에 총 3904억원가량을 대여해 준 상황이다.

눈길을 끄는 점은 대여금 규모는 늘어나는 데 비해 상환액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동광주택의 대차거래를 살펴보면 2012년 계열사들이 빌려 간 총 대여금은 2907억원가량이나 2013년 상환된 금액은 고작 210억원이다. 2013년에도 빌려 간 금액은 832억원가량이나 지난해 상환된 금액은 169억원에 불과했다. 일부 계열사들은 지속적으로 만기를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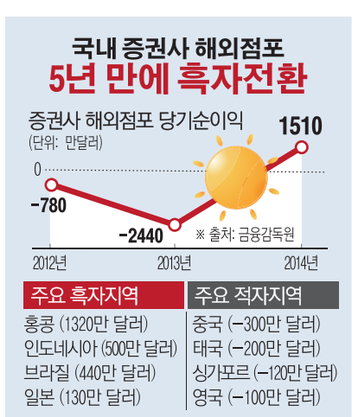
문제는 동광주택이 지난 2012년 이후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광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매출 3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2% 줄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 2013년 실적의 경우, 매출은 전년 대비 63.4% 줄어든 1376억원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94.1%, 29.1% 감소한 13억원, 215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지난해 순손실 73억원이 결손금으로 잡히면서 미처리결손금이 36억원에서 110억원으로 증가했다. 동광주택의 지난해 부채비율 역시 208.7%로 늘었으며, 이는 2013년 토목시설물 건설업의 산업평균 부채비율인 165.92%보다 높은 수준이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데이터 뉴스 Data News

증권사 해외지점 5년 만에 흑자

국내 증권사들이 지난해 해외에서 흑자전환하며 1500만 달러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19개 증권사 80여개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은 총 151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3960만 달러 증가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지역별 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14개국 중 홍콩(1300만2000달러), 인도네시아(500만 달러), 브라질(440만 달러), 일본(130만 달러) 등 4개국이 흑자를 기록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삼성전자, 애플과 격차 더 벌렸다

시장조사기관 디램익스체인지가 올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출하량 기준)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애플(19.9%)보다 7.9%포인트 높은 27.8%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3~5위는 화웨이(7.0%), LG전자(6.2%), 레노버(6.0%)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24.7%)보다 점유율이 3.1%포인트 높아진 반면, 애플(23.2%)은 3.3%포인트 낮아졌다. 장효진 기자 js62@

하루 한생각 居安思危 (거안사위)
편안할 때 위기에 대비하라
▶ 12면


유경선 회장 ▶8


정몽규 회장 ▶14


연예기획 ▶15~17
원작의 영상화 바람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김동연 부광약품 회장의 '장손' 사랑

16살 손주에 38억어치 주식 증여
국내 제약업계 오너家 경영권 세습
3세 경영체제 '터 닦아주기' 관측



부광약품 공동 창업주인 김동연(사진) 회장이 16세에 불과한 장손에게 상당수의 주식을 증여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 회장의 주식 증여로 3세 경영을 내다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동연 회장과 김상훈 사장은 지난 10일 각각 갖고 있던 회사 주식 8만6693주와 6만5610주를 김 회장의 장손이자 김 사장의 아들인 동환(16)군에게 증여했다. 동환군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총 주식 수는 15만2303주로, 기존에 갖고 있던 2만8303주를 더해 모두 18만606주로 늘어났다. 김 회장과 김 사장은 이번 주식을 주당 2만5300원(지난 9일 종가)에 증여했는데, 금액으로 치면 38억5327만원에 달한다.

올해 78세인 김동연 회장은 슬하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김 회장의 장녀인 김은주(55) 부광씨앤씨 이사와 차녀인 김은미(53)씨, 아들인 김상훈(48) 사장이다. 김 회장의 두 딸은 부광약품 지분을 각각 0.77%와 0.94% 보유하고 있다. 아들인 김상훈 사장의 경우 3.13%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주식 증여로 2.94%(100만주)로 줄었다. 김 회장 역시 기존 20.81%에서 20.55%(700만주)로 지분이 줄었다.

통상적으로 기업 오너 일가의 주식 증여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회사 주가가 저점인 시점에 이뤄져 투자자들의 빈축을 샀다. 그러나 부광약품 주가는 최근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이며 지난 2007년 기록한 역사적 고점인 3만원선에 다가가고 있는 만큼, 세금을 낮추기 위한 증여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주식 증여가 이뤄질 당시인 지난 9일 부광약품의 종가는 2만5300원이었는데, 올초만 하더라도 주가는 2만원선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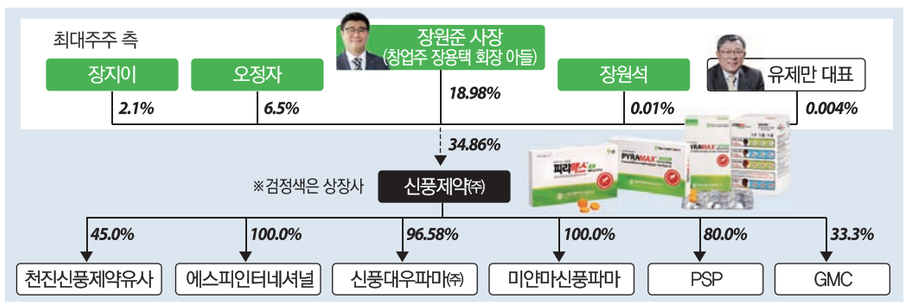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산업은 역사가 긴 만큼 오너 일가의 경영권 세습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특히 창업주가 손주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데 있어서 유별나게 장손을 챙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오너 일가의 개인적인 주식 증여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인효 기자 kangih@

제약사 지배구조 분석 ⑲ 신풍제약주식회사 SHIN POONG PHARM. CO.,LTD.

분식회계와 리베이트 파동 이후 최대주주 장원준 사장 '칩거경영'



창업주 장용택 회장 아들…지분율 19%
잇단 사태 겪으며 대표이사 잦은 해임
작년 R&D본부장 유제만씨 새 대표로
베트남법인 '대우파마' 등 계열사도 6곳

신풍제약은 지난 1962년 설립된 중견 제약사로 관절기능개선제·소염진통제·항생제 등 전문의약품(ETC)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 제약사업 부문에서는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OTC) 등 270여 품목을 생산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며, 순환기용제·항생제·항암제·진통소염제·소화기용제·정신신경용제 등 다양한 제품군을 갖추고 있다.

또 의료기기인 '메디커튼'이란 유착방지제를 개발해 상품화에도 성공했다. 이 제품은 생체 내 존재하는 내인성 물질 등을 이용한 수술 시 장기 등의 유착을 방지한다.

신약으로는 지난 2011년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국산 신약 제16호)'를 개발해 크게 주목받았다.이 제품은 2012년 유럽의약청(EMA)로부터 국내 제약사 최초로 신약으로 허가 승인을 받은 글로벌 신약이다.

◇창업주 아들 장원준 사장 최대주주 '칩거 경영' =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풍제약의 최대주주(지난해말 기준)는 창업주 장용택 회장의 아들인 장원준 사장으로 회사 주식 827만4457주(지분율 18.98%)를 보유하고 있다. 장 사장의 모친인 오정자씨는 283만5330주(6.50%), 누나인 장지이씨는 91만5114주(2.10%), 친인척인 장원석씨는 2586주(0.01%)를 각각 갖고 있다.

현재 창업주인 장 회장은 회사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 앞서 지난 2006년 장 회장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대물변제로 인해 당시 보유 주식 전량인 55만5082주를 신풍제약과 정리금융공사, 파산자 영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에게 양도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는 장 회장에서 장 사장으로 변경됐다.

장 사장을 비롯한 신풍제약 경영진은 최근 몇 년간 고역을 겪었다.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신풍제약의 분식회계와 리베이트 파동 이후 장 사장을 해임 권고, 신풍제약은 김병화·장원준 대표체제에서 김병화 단독대표체제로 변경한 바 있다.

또 2013년 11월에는 김창균 대표가 의료계 리베이트 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업계에서는 대표이사 사장에 장원준 전 대표가 취임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전망과는 달리 유제만 연구개발(R&D) 본부장이 새 대표로 선임됐다.

지난해 3월 신풍제약 대표 자리에 오른 유제만씨는 회사 주식 2080주(0.004%)를 보유하고 있다. 유 대표는 동화약품 연구소장, 제일약품 R&D본부장을 거쳐 신풍제약 R&D본부장을 역임한 인물로 현재 신풍제약을 이끌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지난 2011년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에 취임한 장원준 사장이 최대주주로 칩거 경영을 해 오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신풍제약 6개 계열사 거느려 = 신풍제약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상에서 신풍제약이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는 총 6곳이다. 이 중 신풍대우파마는 베트남 호찌민 소재의 해외 현지법인으로 신풍제약이 96.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신풍제약 전체 매출은 2202억9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베트남 제품 매출은 107억800만원에 불과, 대부분의 매출은 내수(1960억6400만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 신풍제약은 2013년 설립된 에스피인터내셔널과 지난해 설립된 미얀마신풍파마에 각각 100%의 지분을 출자했다. 또 PSP에 80.0%, 천진신풍제약유사 45.0%, GMC에는 33.3%의 지분을 각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인효 기자 kangih@

주식시장에 모습 드러낸 효성·애경 재벌家 안주인



효성그룹 송광자 부사장
경영권 강화… 주식 매입
애경그룹 홍미경 관장은
AK홀딩스 저가매수 나서

효성그룹과 애경그룹 등 재벌가(家)의 안주인들이 주식 시장에 등장했다. 오너일가 경영권 강화를 위해 후방에서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부인 송광자 효성 부사장이 지난 8일 효성 보통주 4650주를 주당 8만1852원에 매입했다. 총 매입가는 3억8061만원이다. 이에 따라 송 부사장이 소유한 주식은 기존 20만7599주(0.59%)에서 21만2249주(0.6%)로 증가했다.

그동안 효성 총수 일가의 주식 매입은 조 회장의 아들인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이번 송 부사장의 주식 매입의 경우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이 함께 주식을 매입한 만큼 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주식 매입으로 풀이된다.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부인 홍미경 몽인아트센터 관장도 지난달 27일 AK홀딩스 주식 50주를 1주당 9만3100원에 장내 매수했다. 매수 후 홍 관장이 보유한 AK홀딩스의 주식은 2909주가 됐다.

홍 관장의 주식 매입은 채 부회장이 모친인 장영신 애경 회장의 뒤를 이어 본격적인 2세 경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AK홀딩스의 회사 가치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지난 2013년 10월 홍 관장이 지분을 처음 확보한 이후 주가는 당시 4만850원에서 14일 종가 기준 9만3400원까지 뛰어오르며 128%나 상승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메리츠화재 '승부사' 김용범 시가총액 LIG손보 제쳤다



영업조직 축소 구조조정
올들어 주가 12% '껑충'
시가총액 1조4835억원
손보업계 4위 자리 꿰차

메리츠화재의 시가총액이 최근 LIG손해보험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며 손보업계 시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시가총액은 전일 종가 기준으로 1조494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손보업계 4위 LIG손보의 시가총액(1조4220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현재 메리츠화재는 삼성화재(13조2413억원), 동부화재(3조6816억원), 현대해상(2조3110억원)의 뒤를 잇고 있다.

올 초 1만2500원이던 메리츠화재 주가는 1만4000원대를 넘어서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저점(1만1300원) 대비 25% 가까이 급등한 수치다. 반면 동기간 LIG손보의 주가는 연초 대비 약세를 기록하며, 시가총액도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증권 CEO 시절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경영정상화를 일군 김용범(사진) 대표의 전략이 메리츠화재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김 대표는 메리츠화재 부임 이후 저비용, 고효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고위 관계자는 "김 대표 재직시절 메리츠종금증권은 최악의 업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내면서 경영 정상화에 성공했다"며 "최근 메리츠화재 대표로 부임한 그가 작년 말 임원 구조조정 등 지속적 조직 슬림화와 함께 기존 지역본부, 지역단, 영업지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영업조직을 2단계로 축소해 새로운 실험에 나서며 효율성을 높인 점이 주효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경아 기자 ka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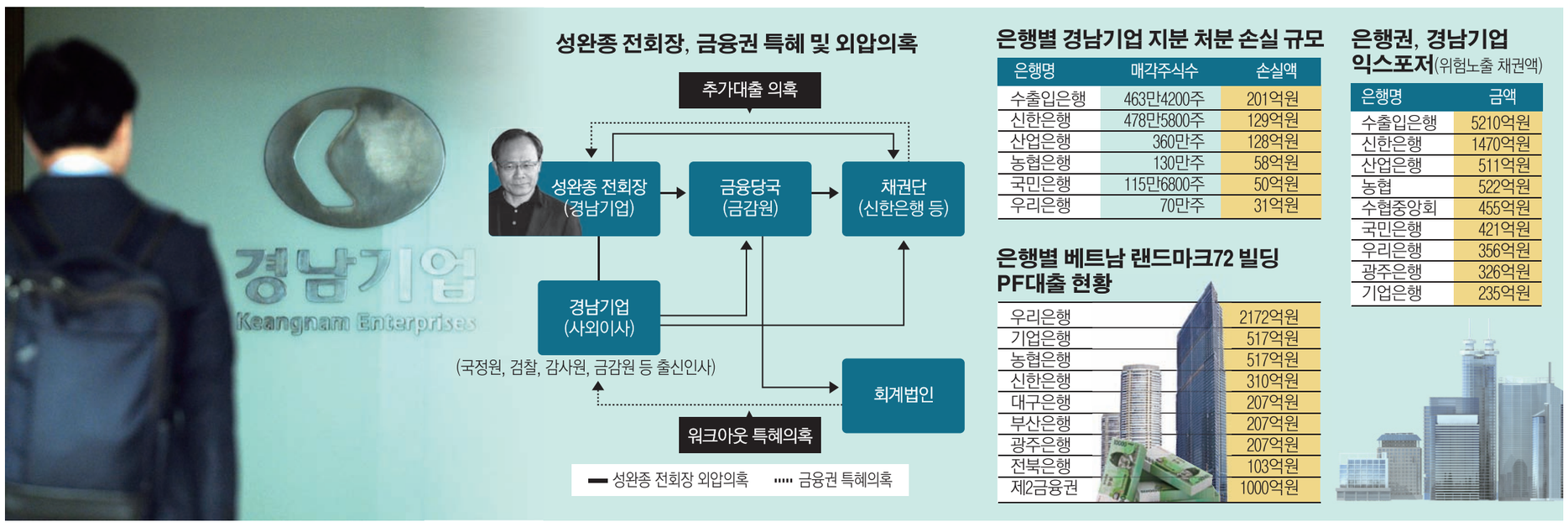
금감원 입김에 채권단 수천억 지원… '경남기업 특혜' 수면 위로

'성완종 파문' 금융권 불똥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금융권으로 전이되고 있다. 그 동안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들이 하나둘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과 경남기업과 인과관계를 형성한 은행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경남기업은 지난 1999년 12월부터 진행된 3차례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시장·경제적 논리보다는 대주주인 성완종 전 회장을 필두로 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깊숙이 개입되면서 금융당국과 채권단으로 이어지는 불편한 연결고리가 형성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 회생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물론 은행권 수장들과 접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혜성 금융지원 주체를 놓고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채권 은행들은 시장논리를 뒤로 하고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면서 수백억원의 손실은 물론 정치·정책리스크까지 겹쳐 비상이 걸렸다. ▶본지 2015년 3월 12일자 3면 참조



은행별 경남기업 지분 처분 손실 규모

은행명	매각주식수	손실액
수출입은행	463만4200주	201억원
신한은행	478만5800주	129억원
산업은행	360만주	128억원
농협은행	130만주	58억원
국민은행	115만6800주	50억원
우리은행	70만주	31억원

은행별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PF대출 현황

우리은행	2172억원
기업은행	517억원
농협은행	517억원
신한은행	310억원
대구은행	207억원
부산은행	207억원
광주은행	207억원
전북은행	103억원
제2금융권	1000억원

은행권, 경남기업 익스포저(위험노출 채권액)

은행명	금액
수출입은행	5210억원
신한은행	1470억원
산업은행	511억원
농협	522억원
수협중앙회	455억원
국민은행	421억원
우리은행	356억원
광주은행	326억원
기업은행	235억원

금감원 '경남기업 살리기' 앞장

세번째 워크아웃 이례적 승인 받아

대주주 지분 감자 채권단 의견 무시

'충청 인맥' 김진수 전 국장 연루설

주채권은행 신한銀도 특혜 지원

자본잠식에도 6000억원 추가대출

신한銀·금감원 등 금융권 인사들

경남기업 사외이사로 영향력 행사

◇금감원, 성완종 리스트 불똥 튈까 노심초사 = 금감원이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등에 외압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을 주도한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2013년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남기업은 두번째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2년 5개월 만에 세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승인을 얻어냈다. 벽산건설, 우림건설, 풍림산업 등 대부분의 부실 건설사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특히 경남기업이 대주주의 책임을 묻는 과정인 감자를 하지 않은 탓에 성 전 회장이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 당시 채권단 역시 6000억원 넘게 추가 지원에 나서면서 세간의 의혹을 키우고 있다.

감사원 역시 금감원에 대한 감사에서 금감원이 대주주 지분에 대한 무상감자를 주장한 채권단의 의견을 무시한 채 경남기업 지원에 나서도록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에는 당시 김진수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이 중심에 있다. 김 전 국장은 지난해 12월 전격 사표를 제출하면서 의혹이 더욱 증폭됐다. 당시 그는 지난해 4월 부원장보에 내정되면서 임기(총 3년)가 2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그의 갑작스런 퇴임에는 당시 진행됐던 감사원의 감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현재 성 전 회장과 김 전 국장 간에 오고간 정황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과 채권단인 신한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한은행, 특혜 제공 의혹… 성완종 리스트 유탄 =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또한 금감원에 이어 도마에 올랐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지원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이 책임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 본지 2015년 3월 25일자 1·3면 참조

경남기업은 자본잠식이 진행되던 3차 워크아웃 당시 채권단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출자전환 1000억원, 신규자금 지원 3800억원, 전환사채 1000억원 인수 등의 지원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이 과정에서 여신위원회를 열어 대주주 주식감자도 검토했으나 막판에 철회했다. 금융권 인사들은 금감원의 외압 사실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보수적인 신한은행이 이같은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신한은행 출신 인사들이 경남기업 사외이사를 맡으면서 금감원의 외압 의혹과 함께 특혜지원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김덕기 전 충남영업본부장은 3차 워크아웃 과정인 2012년 3월부터 2년 동안 경남기업 사외이사를 지냈다. 또 신한은행 기업여신관리부장 출신인 이영배 양재역금융센터장은 2014년 3월부터 경남기업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다.

금융권 한 인사는 "신한은행 내부에서는 당시 주무 부행장이었던 서 전 행장이 성 전 회장을 피해다녔다는 이야기는 말단 직원들도 알 정도로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라며 "그만큼 경남기업 문제는 신한은행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 결과를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역시 진웅섭 원장 취임 이후 첫 종합검사를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안철우 기자 acw@

'제2의 경남기업' 막으려면…

"금융당국 '밀실행정'이 만든 예고된 비극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환경 만들어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경남기업이 15일 상장폐지된 가운데 채권단의 경남기업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됐다. 이에 채권은행의 손실 규모가 8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받던 한 기업이 사라지고 그로 인해 채권단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면서 금융당국 주도로 이뤄진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특히 금융당국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식이 계속해서 이뤄진다면 앞으로 '제2의 경남기업'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경남기업 주식 463여만 주를 지난 6일과 7일에 걸쳐 약 31억3300만원에 장내 매도했다. 수은이 지난해 3월 출자전환으로 해당 지분을 231억7100만원에 사들인 것을 감안하면 1년 새 200억원을 손해본 셈이다. 신한과 산업은행도 각각 129억원, 128억원의 손실을 봤고, 농협(59억원), 국민(50억원), 우리(31억원) 등도 일정 금액 이상 손해를 봤다.

채권단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총괄·지휘하는 금융당국의 불투명한 '밀실행정 관행'이라는 지적이다.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당시 채권단은 경남기업 실사 이후 성 전 회장 지분에 대한 무상감자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거부하고 대규모 출자전환에 동의하도록 요구했다.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강요한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기업의 핵심 자산인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매각까지 중단되면서 채권단의 5300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권회수 또한 불투명해진 상태다. 특히 매각 중단에는 채권단 내부 갈등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채권단의 책임 회피 또한 불가능해졌다.

그간 금융당국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상당한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불투명한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채권단의 무책임한 잇속 챙기기를 양산하는 등 밀실 관행의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환경을 마련하고, 과정에 따른 공시 의무를 마련해 평가와 감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 채권단의 손실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의 은행권 익스포저(위험노출 채권액)는 약 1조원에 달한다. 수은이 521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신한(1740억원), 산은(611억원), 농협(522억원) 등의 순이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成, 대여금 182억 사용처 '정치권 로비'와는 무관한 듯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리스트' 檢 수사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수임료…주식투자 등 사용 확인
파악 못한 액수 5억 불과…현금화 32억 용처 파악 주력
'성완종 장부' 보도에…檢 "장부 존재 확인사실 없어"

경남기업이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비자금의 상당 액수는 정치권 로비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고 성 전 회장이 대아건설과 대아레저산업, 대원건설산업 등 계열사 3곳에서 끌어다 쓴 대여금 182억여원의 사용처를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성 전 회장은 이 대여금 중 대부분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이체한 뒤 주식투자와 변호사 수임료,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여금 182억원 중 검찰이 용처를 파악하지 못한 액수는 5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치권 로비 목적으로 조성된 경남기업 비자금 액수가 1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의혹과는 거리가 먼 결론이 나온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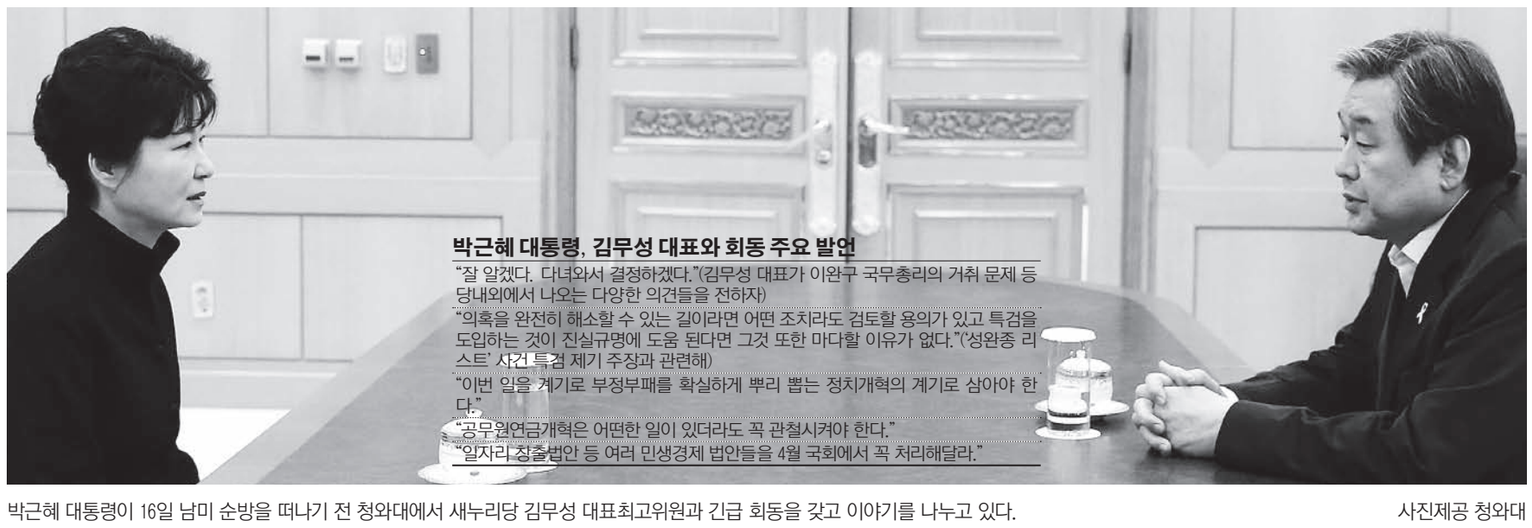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대여금 부분을 제외하고 성 전 회장의 횡령 금액 중 현금화된 것으로 파악된 32억원의 용처 파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이 32억원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한장섭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 전 회장도 생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대부분의 횡령혐의 액수에 대해서는 해명했지만, 경남기업이 대아건설 등에 내려보낸 32억원의 용처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치인들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장부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16일 "그런 장부 존재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수)는 지난 14일 '이완구를 사랑하는 모임(완사모)' 자문임원단 회장 이모(6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체포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완사모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충남지사로 재직하던 2006년 만들어진 모임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충남 아산 소재 온양교통 대표를 맡고 있는 이씨의 회사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총리의 금품수수 정황을 쫓고 있는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 65억원의 일부를 정치자금 명목으로 이 총리에게 일부 건넸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영길 기자 jyg97@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남미 순방을 떠나기 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긴급 회동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朴·김무성 독대후…李총리 사퇴여론 오히려 확산

與 "회동내용 기대 이하" 실망
野 "도피성 출장" 비난수위 높여
李총리는 "열심히 하라는 뜻"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16일 긴급회동 이후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사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총리는 여전히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중남미 4개국 순방에 앞서 김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오후 3시부터 40분간 독대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3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퇴,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등의 직무정지 요구 등 당 안팎의 여론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순방을)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단순히 의혹만 갖고 대통령이 총리의 용퇴를 얘기하는 것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박 대통령의 발언은 다소 유보적으로 보여도 이 총리의 사퇴에 무게를 실은 것이란 주장이 많다.

최고위원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 순방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이 총리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뜻"이라며 "이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17일자 신문들도 사설을 통해 일제히 이 총리의 용퇴를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내에선 "회동 내용이 기대 이하"라는 실망감을 드러내는 시각이 많았다. 회동 이전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전 여당 대표와 독대를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특단'의 결정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당직자는 "사실상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로, 그때까지 이 총리의 거취를 끌기엔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면서 "당 지도부도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했으면 좋았을 걸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박 대통령의 순방을 '도피성 출장'이라고 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시간 끌기 회동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이 도피성 해외 출장을 앞두고 면피용 회동으로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내가 외국 다녀올 동안 조용히 있으세요'라고 지침을 내리는 것 같다"면서 "새누리당 대표는 그런 지침을 들으러 갔느냐"고 비꼬았다.

한편 이완구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녀와서 결정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말에 대한 입장을 묻자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중 기자 zerg@

경남기업, 3대 정부 추가납부 세금 290억

朴정부 146억…노무현정부 3.3배

자본잠식 상태인 경남기업이 세 정권을 거치면서 추가로 낸 세금이 29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재벌닷컴과 경남기업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세무조사 등으로 모두 290억60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경남기업의 세금 추납액은 정권이 바뀌면서 증가세를 보였다. 노무현 정부 때의 세금 추납액은 2005년 25억9000만원, 2006년 18억6000만원 등 모두 44억5000만원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11년 91억7400만원, 2012년 7억6400만원 등 99억38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2배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체제인 지난 2013년 말에는 2008~2012년 기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실시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46억7010만원을 추납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의 추납액보다 47.6% 늘어난 것으로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 3.3배 수준에 이른다.

이에 대해 경남기업 측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두 번에 걸쳐 추가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세무조사 등에 따른 추가 납부액은 최종 통보 단계에서 애초 결정액보다 줄어든 수준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국세청이 2013년 경남기업과 계열사를 상대로 실시한 세무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경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민정 기자 puri21@

특검 도입땐 새누리 이득

대상 늘고 시간 줄어…새정치 "수사 축소·부실 가능성"
27일 이후 논의 본격화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특검 도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기적 특수성 탓에 여당은 사건의 조기 수습을 위한 특검을, 야당은 사건 장기화를 위한 '선(先)검찰 수사 후(後)특검'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27일 이후 특검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특검이 도입된다면 여권에 보다 이득이라는 분석이 높다.

일단은 수사 대상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박근혜 정부 실세뿐 아니라 참여정부 관계자 등 야권 인사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누리당의 특검 주장을 '물타기'로 규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유력 정치인 14명에게 불법 자금을 건넨 내역이 담긴 로비 장부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이날 알려짐에 따라, 새누리당은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이런 때 하라고 특검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특검 도입 시 수사 기간이 한정된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 전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려는 새누리당이 유리한 국면에 놓이게 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 추천 5일, 대통령 특검 임명 3일, 특검 준비기간 20일, 특검 수사기간 60일, 그리고 특검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 30일 등 총 118일이면 특검이 끝난다. 이완구 국무총리의 말처럼 "대단히 광범위하고 복잡한 수사"가 될 수 있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단 넉 달 안에 끝내야 하는 셈이다.

특검 수사 인력 역시 특검을 포함해 5명 이내의 수사팀에 불과해, 현재 검찰의 특별수사팀 10명보다 규모가 작아진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에선 특검 도입 시 일단 특검 임명을 둘러싼 정치 공방으로 시간만 허비할 공산이 큰 데다, 검찰의 초동 수사 부족으로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고 축소, 부실수사 가능성도 높다고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친박게이트대책위원장인 전병헌 의원은 같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초대형 비리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현재의 상설특검법으론 용량 초과"라면서 "별도의 특검이라면 전폭 환영한다"고 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성완종 리스트' 특검 도입 시 과정

기간	총 118일
• 특검후보 추천(5일)+대통령 특검 임명(3일)+특검준비기간(20일)+특검 수사기간(60일)+특검 수사기간 연장(30일)	
인력	총 8명
• 특검 1명 + 특별검사보 2명 + 추가 파견 요청시 5명	

'반기문 대망론' 때문에 成 표적?

새정치 "신빙성 있는 주장"…靑 "소설 같은 얘기"
반 총장은 "국내 정치 관심없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 전 자신에 대한 수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친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성 전 회장은 "(나에 대한 수사는) 이완구 작품이라고 한다"면서 "(이완구 총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의식해서 (수사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 "내가 반기문과 가까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실제 성 전 회장과 반 총장의 사이가 가깝다는 건 충청권에선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반 총장은 성 전 회장이 주도한 충청포럼을 창립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고, 자주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는 경남기업 상임고문으로 6년이나 일했다.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 배경을 '반 총장과의 친분'으로 의심한 건 그가 단순히 반 총장과 친해서만은 아니다. 반 총장을 야권 대선후보로 세우려 한 점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권노갑 상임고문이 주장한 이른바 '반기문 야당 대선후보 출마 타진설'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바 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절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반기문 총장은 야권 대선후보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그는 "반 총장이 야당 후보로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반 총장 때문에 경남기업을 수사한다는 건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반 총장은 16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DC 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특파원으로 가 있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국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사무총장 일로 바빠) 그럴 여력도 없다"고 대망론과 선을 그으면서 "성 전 회장과도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

김의중 기자 zerg@

과학계 뉴리더 만난 미래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과학계 뉴리더 2차 간담회(화학/생명)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금주의 법안

'다자녀·출산가구 稅부담 경감' 소득세법 개정

지난 13일부터 17일 오전 현재까지 한 주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86건, 정부입법 2건 등 총 88건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말정산 개정안으로 알려진 이번 입법안은 우선 3자녀 이상 가구, 또는 출산한 가구 등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금액을 종전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의 근로소득공제 조정을 통해 세 부담 해소에 나섰다. 또 연금저축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중·저소득층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20%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당 민병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했다.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이 수리된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도록 해, 중도 사퇴로 인한 무효표를 방지하고 공직후보자의 책임성 강화를 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특별감찰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감찰 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실의 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장 이상의 공무원, 대통령경호실의 차장 이상의 공무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6월부터 지하철 250원·버스 150원↑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추진

市 "조조할인제로 실질인상은 적어"… 시민 "구조적 문제 전가" 반발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인상된다. 지하철은 250원, 버스는 150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기로 하고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요금 조정은 2012년 2월 버스·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시는 지하철 요금 200원, 버스는 150원을 인상하는 2안도 함께 제출했으나 일단 250원, 150원 인상안을 기본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본안이 채택되면 지하철 기본요금은 현재 1050원에서 1300원으로 23%, 간·지선버스 요금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14.2% 인상된다. 광역버스도 450원 인상돼 현행 1850원에서 2300원으로, 마을버스는 100원 인상돼 현행 750원에서 850원으로 각각 요금이 인상된다.

시는 지하철 운송원가가 1인당 1185원으로 1인당 928원인 버스보다 257원 높은 차이를 고려하고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투자를 앞당기고자 지하철과 버스 요금에 차이를 두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시는 오전 6시 30분 이전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하는 경우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된다. 대신 어린이는 현금할증을 폐지, 교통카드와 현금 모두 같은 요금을 받기로 했으며 청소년은 현금을 낼 경우 성인요금을 내야 한다.

시는 "현실적으로는 지하철 508원, 버스 296원을 인상해야 하지만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조정폭을 정했다"며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 동결, 조조할인제 도입 등을 고려하면 실질 인상률은 16.7%"라고 말했다.

특히 시는 국가 정책에 따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비 보조를 전혀 받지 못해 운영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이 거세다.

시는 23일까지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말~6월 초 인상 폭을 확정하고 6월 말~7월 초 요금조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euna@

한빛3호기 재가동 4일만에 또 멈췄다

증기발생기 결함으로 7개월 동안 가동이 중지됐다가 최근 발전이 재개된 한빛3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kW급)가 재가동 4일 만에 다시 멈춰섰다.

16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9분께 한빛 3호기의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다.

한빛3호기는 계획예방 정비를 마치고 지난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아 12일 오전 5시 20분께 발전이 재개됐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정상출력(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한 바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원자로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빛 3호기는 지난해 10월 17일 증기발생기 세관에서 균열이 발생, 가동이 중지됐다. 이후 점검 과정에서 증기발생기 내 여과망 철선과 너트 등 이물질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이물질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가동을 할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원전 측은 제거하지 못한 이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서 재가동에 들어갔다.

전민정 기자 puri21@

'활주로 이탈' 아시아나항공 안전담당 부사장
"가시거리, 착륙가능 상태라 들어"

아시아나항공 안전담당 부사장인 야마무라 아키요시가 14일(현지시간)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당시 착륙에 필요한 수준의 가시거리가 확보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후 야마무라 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현 단계에서는 시정(육안으로 볼 수 있는 최대거리)이 착륙 가능한 최소치 이상이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항공기가 활주로에 진입한 각도에 대해서는 "규정된 정상적인 각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고 당시 항공기를 조종한 것은 기장이었고 기장은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인 A320항공기를 800시간 이상 조종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야마무라 부사장은 "회사를 대표해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이 사죄하며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탈출해 최악의 사태를 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 NHK방송은 이와 관련, 아시아나 항공기가 활주로를 향해 처음 접근할 무렵에 주변이 착륙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불과 몇 초 만에 가시거리가 짧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사고 직후 활주로 폐쇄 상태였던 히로시마 공항은 17일 오전부터 항공기 이착륙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히로시마공항 활주로 착륙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지 사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휴대전화 문자에 '1' 뜨면 출근 말고 대기하라"
일광공영, 압수수색 앞두고 '은폐교육'

이규태 회장 최측근 김모씨 작년 12월 직원들에 지시
내부자료 은닉·파기…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드러나

"각자의 휴대전화로 번호 '1'이 문자로 가면 회사로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라. 검찰이 압수수색 나왔다는 뜻이니 알고 대비하라."

1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일광공영 이규태(66·구속기소) 회장의 최측근 '금고지기' 김모(50·여·구속기소)씨와 방위사업 기획팀장 고모(50·구속기소)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직원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이어 이 매체는 솔브레인, 일진하이테크, 일광폴라리스, 일광학원 등 계열사 직원을 모두 모아놓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교육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사전 교육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났다. 이 회장이 체포되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난달 11일 직원들은 조직적으로 각종 내부 자료를 추가로 은닉·파기 했다.

이들이 증거인멸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때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합수단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등 일광공영의 방위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에게 직접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일광공영의 모든 자료를 돌째아들 이모(33)씨가 살다가 비워둔 서울 돈암동 아파트에 옮겨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뿐만 아니다. "압수수색을 받게 될 경우 일반직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게 사전에 교육하라"고 했다. 김씨에게는 "경리팀 직원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자금 및 회계자료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옮겨놓고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라"고 했다.

지난해 말부터 내부 자료 은닉·파기는 실행됐다. 일광학원 소속인 W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광공영의 시설물 관리업무를 맡았던 박모씨가 영업장부와 회계장부, 전표 등을 '돈암동'으로 은밀히 옮겼다. 회계파트 직원들은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자기장을 지워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합수단은 김씨와 이씨를 체포한 뒤 이곳의 존재를 파악하고 지난달 26일 압수수색 했다.

'G-10'에는 수십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노트북 컴퓨터, 회계장부, 계약서는 물론 협력업체로부터 빼돌린 사업기밀 등이 가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박연차 게이트' 7년만에… 태광실업 세무조사

국세청, 3개월 일정 고강도 조사… 착수 배경에 관심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4일 부산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경남 김해에 소재한 태광실업 본사에 투입, 약 3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정기인지, 비정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기 조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국세청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인 반면 비정기 조사는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 내용에 세금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정기세무조사와 달리 이번 태광실업에 대한 조사에서는 조사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태광실업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4~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정기세무조사"라며 "가장 최근에 받은 세무조사가 2008년"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8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박 회장은 탈세 및 정·관계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6월과 벌금 291억원을 선고받은 뒤 복역하다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촬영용 드론을 소개합니다



2015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P&I)이 1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사진 영상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2015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은 카메라, 렌즈, 영상기기 등 사진영상기기의 최첨단 디지털 이미징 기술과 최신 사진영상 문화를 선보이는 아시아 최대 전문 전시회로, 오는 19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다. 노진환 기자 myfixer@

女승무원 美서 '땅콩회항' 손배소에 대한항공, 합의 대신 소송으로 '맞불'

대한항공이 이른바 '땅콩 회항' 당시 탑승했던 여자 승무원이 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맞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승무원 김도희씨 소송 건 관련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는 대한항공과 원고 간에 재판 전 조정이나 화해, 합의가 실패했다는 의미다.

대한항공이 선임한 변호인은 미국 워싱턴에 본사를 둔 초대형 로펌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호인 선임계에 따르면 이 로펌은 원고가 대한항공과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대리한다고 신고하지는 않았다. 이는 대한항공 측에서 회사를 떠난 조 전 부사장까지 함께 변호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취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회사 측 변호인은 법원에 '제한된 출석(Limited Appearance)'도 통지했다. 이 통지는 재판 관할지에 피고(대한항공)가 거주하지 않아 이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항공은 뉴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들은 대한항공이 재판 관할권이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를 먼저 따지고자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풀이했다. 회사 입장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면 불리하다. 한국은 이런 제도가 없다.

김도희씨는 지난달 초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에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한일건설, 법정관리 졸업

한일건설이 2년2개월 만에 법원의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한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15일자로 종결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한일건설은 2014년 변제 예정이었던 255억원을 대부분 갚았으며 앞으로 특별히 회생 계획을 이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생절차 종결에 따라 한일건설은 통상 기업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권한과 판단에 따라 기업활동을 하면서 회생 계획상 변제 의무를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일건설은 2012년 도급순위 49위 업체였으나 건설경기 침체 등에 자금난을 겪으며 2013년 2월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회생절차 기간에 해외 현장이 있는 리비아에서 내전이 발생하는 등 회생계획 이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대졸 신입연봉 3048만원
대기업·중기 격차 더 늘어

4년제 대졸 신입직 평균 연봉은 3048만원으로, 지난해 3149만원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국내 기업 404개사의 '2015년 대졸 신입직 연봉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대기업 대졸 신입직 연봉은 평균 3773만원으로 지난해 3707만원 대비 1.8% 인상됐다. 공기업의 올해 신입직 연봉은 평균 3125만원으로 지난해 3005만원 대비 4.0% 올랐고, 외국계 기업의 신입직 연봉은 3110만원으로 지난해 2980만원 대비 4.4% 올랐다.

반면 중소기업 신입직 연봉은 2490만원으로 지난해 2580만원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기업 신입직 평균연봉은 중소기업 신입직 평균연봉보다 1283만원이 더 많아 지난해 1127만원 더 많았던 것에 비해 차이가 커졌다.

한편 대기업 중에서는 금융업계의 신입직 평균연봉이 408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자동차업계(3988만원)와 제조업계(3840만원), 조선중공업계(3840만원) 순으로 신입직 평균연봉이 높았다. 유혜은 기자 euna@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21일 파업 찬반투표

정규직 전환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오는 21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올 들어 사측에 총 6차례 교섭을 요청했으나 사측이 모두 거부하자, 지난 10일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이어 15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의 정규직 인정 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한 이후 "사내하청 근로자의 직접 고용주는 현대차"라고 주장하며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섭을 사측에 요구해 왔다.

당시 법원은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로부터 사실상 직접 업무 지휘를 받은 것으로 판결했다. 사측은 이후 항소했고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 요청에 대해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섭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해왔다.

이번 파업 투표는 지난해 사측과 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 합의한 '특별 채용안'에 동참하지 않은 울산공장 조합원(약 900명)만 참여한다. 비정규직 노조는 아직 파업 방식을 정하지 않았으며,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파업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김범근 기자 nova@

금융당국 "은산분리·실명확인 등 규제완화"

청신호 켜진 '인터넷은행' 과제는…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 복잡
재벌기업 사금고 우려 여전
최소자본금 설정 따져봐야

"단순 뱅킹으론 성공 어려워
비즈니스 모델 차별화 필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강하다. 20년 넘게 금기시 됐던 은산분리와 실명확인 완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출범 가능성만 놓고 보자면 지난 2002년과 2008년 두번의 시도때보다 한발 짝 더 나아간 셈이다.

그러나 아직 갈길이 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 핵심인 은산분리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민감한 영역이다. 실명확인 완화 과정에서 느슨해 질수 있는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터넷뱅킹 등 IT 서비스가 잘 발달된 한국에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모회사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당면 과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대한 핀테크 물결을 외면하다보면 우리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핵심쟁점은 은산분리다. 현재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일반은행의 경우 4%까지, 지방은행의 경우엔 15%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은산분리가 논쟁이 되는 이유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2년과 2008년때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무산됐다. 조정래 태평양 변호사는 "재벌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불허하되 그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실명확인 또한 풀어야할 숙제다. 해외의 경우 신분증과 가입신청서 이외에 기존 거래 계좌나 자택우편 등을 이용해 본인 확인에만 최대 1~2주 정도 할애 한다.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 역시 따져볼 문제다. 금융시장 안정성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을 설립시 필요한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 1000억원, 지방은행 250억원이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에 실제 설립된 인터넷은행 자본금은 국내 시중은행 법정 최저자본금 수준에 육박하거나 더 높다"며 "한국도 최저자본금 기준을 500억원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다. 한국과 같이 IT금융이 발달된 나라에서 단순 뱅킹서비스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강서진 KB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새로운 대면채널 운용 전략을 통한 시너지 및 비용절감, 타 산업과의 제휴를 통한 고객층 확대, 온라인의 특성을 활용한 해외진출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은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모회사로부터의 독립성, 모회사 리스크의 전이 가능성 등과 같은 건전성 확보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모험자본'에도 귀 기울인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요회' 벤처캐피탈·사모펀드 관계자 만나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벤처캐피탈 및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관계자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임 위원장은 17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4차 '금요회'에서 모험자본 공급자들을 만나 '모험자본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국에서 금융위원장과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참석하고, VC·PE에서 DSC인베스트먼트, 지앤텍벤처투자, 프리미어파트너스, 아주IB투자, JKL파트너스, IMM인베스트먼트, 에버베스트파트너스 대표,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에서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매주 금요일(금요회)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 등을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앞서 임 위원장은 지난 3월20일 1차 금요회에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3월 27일에는 10개 은행 실무진과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지난 3일 열린 금요회에서는 '안심전환대출, 금융개혁, 일자리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신한은행, 하나銀 6년 독점 깨고 '응급의료기금' 전담기관 따냈다

올해 복지부와 국고보조금 협약체결
전용계좌 개설…결제액 1% 기금적립

신한은행이 보건복지부 주관 '응급의료기금' 국고보조금 전담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존 전담 금융기관이었던 하나은행의 독점이 깨진 것이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하나은행은 6년간 이 사업의 전담 금융기관이었다. 신한은행 내부에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익적 이미지 제고는 물론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병·의원 등과 관계가 친밀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7일 복지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복지부와 '응급의료기금' 국고보조금 전담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부터 계좌 개설에 들어갔다. 이달 14일에는 신한카드가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금 보조사업비 집행관리시스템을 오픈하고, 이날 신한은행과 복지부는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응급의료기금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올해 응급의료기금 2423억원 중 보조사업비 1570억원에 대해 전용계좌 개설 등 사업에 참여한다. 주 전담금융기관은 신한은행이 맡지만 계열사 신한카드가 전용카드 발급 및 통합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참여한다. 신한은행은 자사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된 카드 결제분의 1%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전입시킬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금을 지원받아 응급의료사업을 수행하게 될 병원들이 효율적으로 기금 예산을 집행 관리 정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제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관리에 기여하겠다"며 "또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액의 일정부분 기금 적립 등을 통해 성공적인 기금운용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3년마다 공모 평가를 통해 전담 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 신한은행이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 여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구귀 기자 kkk@



BC카드는 16일 오후 5시, 서초동 소재 BC카드 본사에서 유니온페이인터내셔널·중국은행과 중국인 관광객 대상 서비스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BC카드 이강혁 사업지원부문장, BC카드 서준희 사장, 유니온페이인터내셔널 거화용 이사장, 중국은행 후아오종 은행카드센터 총경리, 유니온페이인터내셔널 왕리신 수석시장발전관
사진제공 BC카드

BC카드, 유니온페이·중국은행과 '삼자동맹'

중국인 관광객 유치 서비스·마케팅 협력

BC카드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특화서비스 개발, 제휴마케팅 확대 등을 위해 유니온페이인터내셔널,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손을 잡았다.

BC카드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BC카드 본사에서 유니온페이인터내셔널 및 중국은행과 함께 중국은행 카드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한 3자 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BC카드-유니온페이인터내셔널, 중국은행이 체결한 MOU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특화서비스 개발, 제휴마케팅 확대 등을 통해 '장성글로벌자유여행카드'를 활성화시켜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 유치를 위해 3사가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MOU 체결을 위해 유니온페이인터내셔널 거화용 이사장이 한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3사가 공동으로 수행할 신규 서비스 기획·운영 부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BC카드측의 설명이다.

서준희 BC카드 사장은 "이번 조인식을 계기로 중국 유니온페이카드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강화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방문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삼성생명, 벤처기업에 200억 투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펀드에 출자

삼성생명이 2년만에 다시 벤처투자에 나선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운용자산 수익률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우수한 벤처기업을 발굴해 수익률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삼성벤처투자가 결성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SVIC 30호 펀드에 2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SVIC 30호 펀드의 운용은 삼성벤처투자가 담당하게 된다. 삼성벤처투자는 투자대상을 발굴해 실사를 거친 뒤 자금집행을 수행하게 된다.

삼성생명이 투자한 SVIC 30호 펀드의 운용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삼성생명이 가장 먼저 200억원을 출자했고 현재 삼성벤처투자가 다른 기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현 기자 nfs0118@

광안 더샵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모집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로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이며 전매 제한 없음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04.17일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2007.9.1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됨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감증증)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기준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세대주기간, 주택소유여부, 가점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 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청하시기 바람 ◆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해지자 또는 거래은행에 순위 청약신청금을 미리 예치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됨.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임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2.2.27)에 따라 주택의 공급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향후 투기과열 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무주택 우선순위 포함)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2010년 5월 3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 및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제한이 완화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85㎡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을75%에서 40%로 조정함 –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 제한이 완화되어 유주택자에게도 청약순위 기점제 자격을 부여함 ◆ 고령자와 장애인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4.17)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으나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과 – 13603호 (2015.04.17)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87-2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지상29~30층 27개동 총 26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반분양 99세대 [특별공급 : 84세대 (일반특별공급 : 44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 44세대포함)] ■ **구역면적** : 6,376.40㎡ 실사용면적 : 6,270.60㎡[아파트, 근린생활시설전체부지]

■ **공급대상**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주택형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포함)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배정 세대수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 계			일반	신혼부부			
민영주택	2015000330-01	70.97	70.97	23.41	94.38	39.18	133.56	18.77	1	1	10	1	13
	2015000330-02	84.98B	84.98	27.22	112.20	46.93	159.13	22.32	1	1	11	1	14
	2015000330-03	84.97D	84.97	27.54	112.51	46.92	159.43	22.38	2	2	18	1	23
	2015000330-04	101.97	101.97	32.04	134.01	56.31	190.32	26.65	–	–	47	2	49
합 계									4	4	86	5	99

※ 상기 주택형은 서로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이 상이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공급 세대수	동 (라인)	층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소계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3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15.09.07	16.01.06	16.05.06	16.09.06	17.01.06	17.05.08	
2015000330-01	70.97	13	102동 1호 (2~11층, 28~30층)	2층	1	116,414	168,586	–	285,0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85,500
				3~6층	4	117,599	170,301	–	287,900	28,790	28,790	28,790	28,790	28,790	28,790	28,790	86,370
				7~11층	5	120,008	173,792	–	293,800	29,380	29,380	29,380	29,380	29,380	29,380	29,380	88,140
				28~30층	3	124,828	180,772	–	305,600	30,560	30,560	30,560	30,560	30,560	30,560	30,560	91,680
2015000330-02	84.98B	14	102동 4호 (1~10층, 27~30층)	1층	1	138,635	200,765	–	339,400	33,940	33,940	33,940	33,940	33,940	33,940	33,940	101,820
				2층	1	140,064	202,836	–	342,900	34,290	34,290	34,290	34,290	34,290	34,290	34,290	102,870
				3~6층	4	141,494	204,906	–	346,400	34,640	34,640	34,640	34,640	34,640	34,640	34,640	103,920
				7~10층	4	144,394	209,106	–	353,500	35,350	35,350	35,350	35,350	35,350	35,350	35,350	106,050
				27~30층	4	150,154	217,446	–	367,600	36,760	36,760	36,760	36,760	36,760	36,760	36,760	110,280
2015000330-03	84.97D	23	101동 1호 (2~21층, 28~30층)	2층	1	134,673	195,027	–	329,700	32,970	32,970	32,970	32,970	32,970	32,970	32,970	98,910
				3~6층	4	140,187	203,013	–	343,200	34,320	34,320	34,320	34,320	34,320	34,320	34,320	102,960
				7~14층	8	143,046	207,154	–	350,200	35,020	35,020	35,020	35,020	35,020	35,020	35,020	105,060
				15~21층	7	145,905	211,295	–	357,200	35,720	35,720	35,720	35,720	35,720	35,720	35,720	107,160
				28~30층	3	148,806	215,494	–	364,300	36,430	36,430	36,430	36,430	36,430	36,430	36,430	109,290
2015000330-04	101.97	49	102동 2호 (1~30층), 3호 (1~16층, 28~30층)	1층	2	145,934	211,333	21,133	378,400	37,840	37,840	37,840	37,840	37,840	37,840	37,840	113,520
				2층	2	148,633	215,242	21,525	385,400	38,540	38,540	38,540	38,540	38,540	38,540	38,540	115,620
				3~6층	8	151,603	219,542	21,955	393,100	39,310	39,310	39,310	39,310	39,310	39,310	39,310	117,930
				7~10층	8	155,344	224,960	22,496	402,800	40,280	40,280	40,280	40,280	40,280	40,280	40,280	120,840
				11~14층	8	159,278	230,656	23,066	413,000	41,300	41,300	41,300	41,300	41,300	41,300	41,300	123,900
				15~22층	10	162,325	235,068	23,507	420,900	42,090	42,090	42,090	42,090	42,090	42,090	42,090	126,270
				23~30층	11	165,140	239,145	23,915	428,200	42,820	42,820	42,820	42,820	42,820	42,820	42,820	128,460

※ 평형 혼합방법 : 공급면적 x 0.300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동일 주택형이더라도 동에 따라 층 구분에 따른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며 상기 주택형별 금액은 그 층 최저금액을 표기함. ■ 101동, 102동 전체 동·호는 일부 일괄로 부대복리시설 층으로 10동 1층 1호, 4호, 102동 1층 1호는 공급세대 없음

■ 주택관리번호 및 이재트르즈 (모델번호)는 주택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주택형을 한 개의 모델번호로 청약하게 함으로 꼭 확인하여 청약하셔야 하며, 추후 이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으로 유의하시기 바람.

■ **공통사항**

■ 2008.4.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피트니스센터,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별도옵션 비용은 미포함되어 있으며 청약자청약 분양계약 시 센터에 기능한 사항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별로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전용면적은 인테리어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층수는 간접 동별, 세대 분양기술 산정방식 적용으로 실제 층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형별 세대수는 총 호수를 적용하여 총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총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제외되지 않았으나 실제세무상 필요한 제반 비용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법무사비용 등)은 별도 부담하여야 함 ■ 공급세대 중 일부 세대는

갤럭시S6가 48만원!

이통사 보조금 30만원으로… 지난주보다 13만원 ↓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6'에 대한 보조금을 3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본격적인 손님끌기에 나섰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갤럭시S6 보조금을 기존보다 13만원 가량 올린다고 17일 일제히 공지했다.

보조금 전쟁에 먼저 불을 지른 곳은 KT다. 이 회사는 최고가 요금제인 '순 완전무한 99' 가입시 갤럭시S6 32GB의 보조금을 32만7000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이는 최근 방통위가 조정한 보조금 상한액 33만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일선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보조금의 최대 15%)까지 더하면 갤럭시S6 32GB 가격은 최대 48만1950원까지 떨어진다.

KT는 동일 요금제 기준으로 갤럭시S6 64GB의 보조금도 31만7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갤럭시S6 엣지는 물량부족을 겪고 있는 만큼 보조금이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갤럭시S6 엣지 32GB의 보조금을 17만2000원에서 25만원으로, 64GB의 경우 16만4000원에서 24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갤럭시S6엣지 32GB를 69만1500원, 64GB를 78만원에 각각 구입할 수 있게 됐다.

KT는 '순 완전무한 67' 등 중저가 요금제 구간에서도 보조금을 일제히 올리며 손님끌기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보조금을 최고가 요금제 기준 30만4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갤럭시S6 엣지 보조금은 25만원이다. 이 회사는 KT와 달리 용량에 따른 가격 차등은 두지 않았다. 중저가 요금제인 69요금제의 경우 갤럭시S6와 엣지 각각 17만원과 14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저가 요금제인 32요금제는 갤럭시S6, 엣지 각각 8만4000원, 6만9000원을 지급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지원금 변경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오늘부터 언제라도 지원금 변경은 가능하다"고 말해 대응을 시사했다.

박성제 기자 psj@

화웨이, 일체형 메탈폰 'P8' 출시

갤S6와 사양 유사… 가격 저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가 경쟁사 제품인 '갤럭시S6'와 'G4'와 사양은 비슷하게 맞춘 반면 가격은 저렴하게 책정한 새 스마트폰 'P8'을 공개하며 4월 스마트폰 대전에 뛰어들었다.

화웨이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플래그십 스마트폰 P시리즈의 새로운 모델인 화웨이 P8과 화웨이 P8 맥스(사진)를 공개했다.

P8은 자체 설계한 기린930 옥타코어 프로세서와 5.2인치 풀HD 디스플레이, 3GB 램, 1300만 화소(조리개값 F2.0) 후면 카메라, 800만 화소 전면 카메라, 2680mAh 배터리 등을 탑재했다.

이와 함께 화웨이는 P8과 비슷한 사양의 6.8인치 스마트폰 'P8 맥스'도 함께 공개했다. P8와 P8 맥스는 일체형 메탈폰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애플의 아이폰6처럼 일체형 배터리에 메탈 디자인을 적용했다.

그러나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 내달 유럽에서 첫 선을 보이는 P8의 판매가는 △16GB 모델 499유로(약 57만8000원) △64GB 모델 599유로(약 69만5000원)로 책정했다. P8 맥스 역시 △16GB 모델 550유로(약 63만8000원) △64GB 모델 650유로(약 75만4000원)다.

반면 갤럭시S6 시리즈 출고가는 64GB 기준 갤럭시S6 92만4000원, 갤럭시S6 엣지 105만6000원이다. 지난해 10월 애플이 한국에 내놓은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64GB 모델과 같다.

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벽이 두터운 우리나라에서 화웨이 폰의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중국·유럽· 미국 등에서는 P8이 갤럭시S6와 G4, 아이폰6의 대안 제품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임팔라' 도입 놓고 한국지엠 노사 갈등

알페온 부진 대체 전망 모델 가시화되자 노조 수입 반대 "부평 2공장서 생산·판매"



"'임팔라'의 한국 도입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마크 코모 한국지엠 부사장은 지난 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모터쇼 프레스데이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국지엠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업계가 GM의 대형세단 임팔라의 수입 가능성을 제기할 때 마다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지엠의 부정에도 업계는 임팔라의 수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이 회사의 유일한 대형세단인 '알페온'은 올해 1분기 국내에서 1040대가 판매됐다. 전년 동기 대비 24.6% 판매량이 감소한 수치다.

알페온의 판매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한국지엠은 차세대 대형세단의 개발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임팔라가 알페온을 대체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의 한 완성차업체는 최근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3분기 임팔라의 수입 판매를 대비해 경쟁 차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임팔라의 수입이 가시화되자 한국지엠 노사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이 회사의 노조는 임팔라의 수입 판매를 반대하고 있다. 대신 노조는 임팔라를 부평2공장에서 생산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부평2공장의 연간 생산량을 12만대 이상 확보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지엠의 부평1공장과 2공장의 통합이 추진됐다. 부평1공장에서는 '젠트라', '트랙스' 등 중소형차를 생산한다. '말리부', 알페온과 같은 중대형차는 2공장에서 만들고 있다. 이 중 말리부 후속 모델의 1공장 생산이 추진되면서 공장 통합설이 제기된 것이다.

올해 초 말리부 후속은 기존대로 2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봉합됐다. 그러나 노조는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팔라 도입은 회사 노조에게도, 국내 경쟁사에게도 첨예한 현안인 셈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내수 침체·서늘한 날씨에 발목잡힌 에어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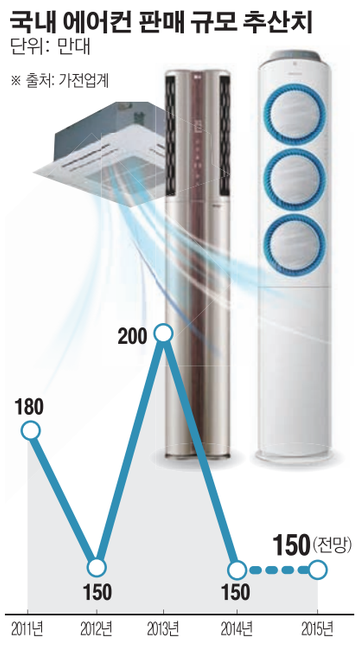
호황 주기인데…예판 시원찮네

2년만에 오는 호재시기 수요 기대
올 150만대 예측… 작년과 비슷
소비심리 위축 판매 감소 전망도
"기상관측 무더위… 호실적 예상"

올해 에어컨 시장에 2년 주기로 돌아오는 '호황'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내수 침체는 물론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초반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가 다양한 할인 및 증정 이벤트를 앞세워 지난달 말까지 2015년형 에어컨 예약판매를 진행한 결과, 올해 국내 에어컨 판매 규모는 지난해 수준인 150만대로 예측되고 있다. 업계 추산 국내 에어컨 판매량은 2011년 180만대, 2012년 150만대, 2013년 200만대다.

올해 에어컨 시장이 주목받은 이유는 호황 주기인데다, 에어컨 교체 주기와 겹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에어컨 판매는 주택 전세계약 갱신 주기인 2년마다 등락을 반복한다. 이에 따라 주기상 올해는 판매량이 증가할 시점이다. 또한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은 에어컨 교체 주기는 통상 5~7년이다.



하지만 업계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에어컨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다 늦은 봄 날씨마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에어컨 판매량은 무더운 날씨가 수일간 계속된 2013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세를 몰아 2014년에도 불황·호황 주기 불문율을 깨고 에어컨 시장이 다시 한 번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됐지만, 다소 서늘한 날씨가 발목을 잡아 판매량은 전년 대비 20%가량 감소한 약 150만대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에어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초반 분위기가 기대에 못미치자 가전업계는 올 여름은 무더위가 늦게까지 이어질 것이란 기상예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가전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여름이 더울 것이란 기상관측이 나온 만큼, 기온이 올라 무더위가 시작되면 지난해 성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며 "에어컨 수요가 절정을 이루는 6~7월까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2013년에 유독 에어컨 수요가 많았다"면서 "아직 판매 초반인 만큼, 날씨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다"면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김지영 기자 gutjy@

"동부대우전자 TV 사면 한 대 더 줘요"



동부대우전자는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TV 구매 시 1대를 더 증정하는 '땡큐 TV'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이마트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하이마트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동부대우전자 TV 구매한 뒤 회사 웹사이트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동부대우전자는 이벤트 참가 고객 중 30명을 추첨해 TV(모델명 L32Q5410KK) 1대씩을 증정한다.
사진제공 동부대우전자

상하이모터쇼 D-3

SUV '中心잡기' 불꽃경쟁





현대차 투싼(위)과 쌍용차 티볼리

현지 SUV 판매량 36% 급증
BMW 'X5 xDrive40e' 첫선
현대차 '투싼' 중국형 모델 공개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 불꽃 경쟁'이 시작된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디자인과 성능을 강화한 다양한 차종을 앞세워 급성장하고 있는 현지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기아차, 쌍용차, 벤츠, BMW 등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은 오는 20일(현지시간) 개막하는 '2015 상하이 모터쇼'에서 SUV를 앞다퉈 선보인다.

중국의 지난해 자동차 판매 대수는 전년보다 6.8% 증가했다. 특히 SUV 판매량은 36%나 급증,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조만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SUV 시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MW는 상하이 모터쇼에서 SUV인 'X5 xDrive40e' 차량을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이 차는 BMW 브랜드로 출시된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으로 4기통 가솔린 엔진을 갖췄으며 최대 출력은 313마력이다. BMW는 또 7명이 탈 수 있는 '뉴 2시리즈 그란 투어러'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

벤츠도 중대형 SUV인 'GLC쿠페'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시트로엥은 250마력의 SUV인 '에어크로스' 콘셉트카를 처음 선보인다.

SUV 뿐마 아니라 세단과 웨건 등 다양한 신차도 등장한다. 폭스바겐은 스포츠 쿠페인 신형 '시로코GTS', 아우디는 웨건 모델인 '프롤로그 올로드'를 최초로 내놓는다. 닛산은 중국의 젊은 세대를 위한 중형 세단 '라니아'로 중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국내 업체들은 신차 대신 대표 SUV 모델로 현지 공략에 나선다. 현대차는 신형 '투싼'의 중국형 콘셉트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다. 파워트레인 등은 국내에 출시된 차량과 같지만 중국인의 기호에 맞춰 외관만 변형했다. 쌍용차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티볼리'를 모터쇼를 통해 공식 론칭한다. 기아차는 대형 세단인 'K9'을 공개하고 중국 대형차 시장을 노린다. 서울모터쇼에서 선보인 신형 K5도 전시해 향후 중형 세단 경쟁에도 대비한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상하이 모터쇼를 계기로 중국 시장점유율 10%를 굳히겠다는 각오다.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중국 시장서 16만1553대를 팔아 3개월 만에 시장점유율 두 자릿수(10.1%)를 회복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총수 부재' CJ그룹 역대 최소폭 임원인사

신임 13명 승진… 이동은 없어

이재현 회장 재판으로 총수 경영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CJ그룹이 16일 역대 최소 폭으로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CJ그룹은 신임 임원(상무대우) 13명을 승진시켰다. 기존 임원 중 승진하거나 이동한 사람은 없다. CJ그룹은 통상 연 말 전후로 20~30명의 임원 승진을 포함한 90여명 규모의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지만, 올해는 이재현 회장의 장기 공백으로 정기인사를 제 때하지 못했다.

CJ그룹은 "그룹 총수부재의 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영업·생산·글로벌 등 성과가 확실한 현장 위주로 최소한의 신임임원 승진 인사만 실시하게 됐다"며 "기존 임원들에 대한 승진 및 이동 인사는 이번에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승진 규모는 작지만 신임임원 13명 가운데 5명이 글로벌 사업 부분에서 배출됐다. CJ푸드빌의 중국법인 사업개발담당 고희석 상무대우, CJ오쇼핑 글로벌사업본부 천천CJ법인장 문영운 상무대우, 해외지역본부 중국본사 대외협력담당 배재민 상무대우 등이 대표적이다.

CJ관계자는 "경영위기 속에서도 2020년 매출 100조원, 해외 비중 70%라는 '그레이트 CJ' 달성을 위해 글로벌 사업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선애 기자 Lsa@

유진그룹 시내면세점 진출

옛 MBC 사옥에 조성… 콘텐츠 승부



하이마트 매각 후 3년여 동안 신규사업 진출을 고민하던 유경선 〈사진〉 유진그룹 회장이 시내면세점 진출로 노선을 정했다. 평소 유통업 재진출에 꾸준히 관심을 뒀던 유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유진기업은 16일 전체면적 1만8000평에 달하는 옛 MBC 사옥에 약 3000평 이상의 시내면세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MBC 본사가 상암동으로 옮겨간 이후 여의도에 있는 옛 MBC 사옥은 현재 공실 상태다.

이에 서울에 추진 중인 시내면세점 중 가장 공항에 근접해 있고 주변지역에 기존 면세점이 없으며, 대형버스 30대가 한 번에 지상에 주차할 수 있는 등 입지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진기업은 무엇보다 방송 스튜디오 시설 및 MBC의 문화콘텐츠를 면세사업과 결합,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어 기존 면세사업자와 차별화된 콘셉트의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최대의 강점으로 들고 있다.

한편 유진그룹은 이번 면세점 진출 이외에도 동양시멘트 인수·합병(M&A)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갈 계획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중견기업 바로알기 특강' 우수인재 유치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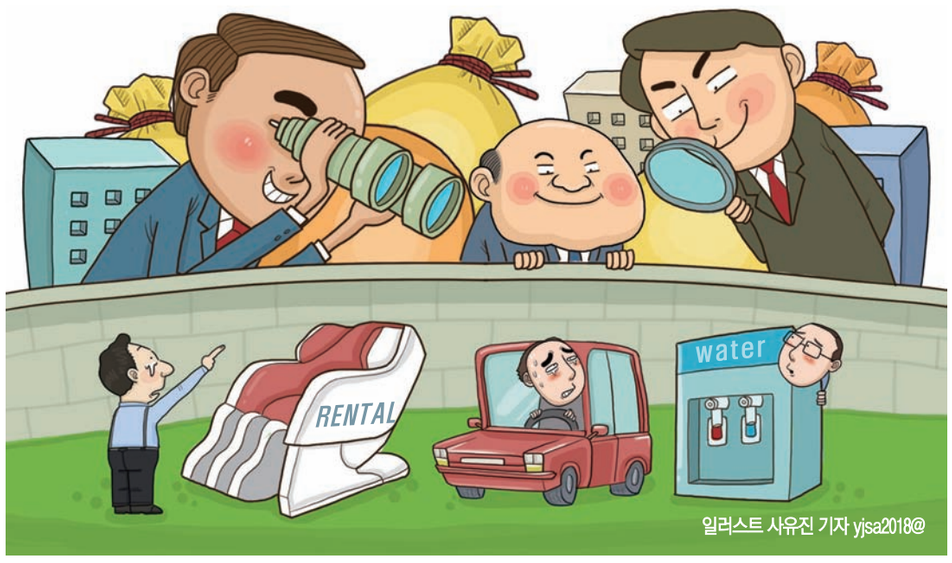
우수한 기술력에도 저조한 인식 때문에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력매칭 사업이 추진된다. 그동안 대기업에 국한되던 대학 채용설명회도 우수 중견기업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중견기업 우수인재 유치·양성사업'이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우선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중견기업 바로알기 특강'이 진행된다. 100개 대학, 80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견기업 바로알기 특강·상담회를 개최해 히든챔피언 기업현황과 취업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우수 중견기업이 대학으로 직접 찾아가는 채용분야별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소개, 채용계획 등을 홍보한다. 올 하반기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중견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채용설명회 참여 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8주에 걸쳐 취업지원반을 운영키로 했다.

인재경영 포럼도 열린다.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인재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CEO와 경영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김정유 기자 thec98@



中쇼 텃밭 렌털시장 눈독 들이는 대기업

내년 시장 규모 16조9000억 전망
정수기 등 생활가전 6조원대 육박
유통 시너지 노린 롯데 KT렌탈 인수
현대백화점도 홈쇼핑 끼고 진출
렌털업계 "쉽게 따라오지 못할 것"

중소·중견기업들의 텃밭이었던 국내 렌털시장이 올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롯데그룹의 KT렌탈 인수에 이어 최근엔 현대백화점그룹이 렌털사업 진출을 선언하는 등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이에 국내 생활가전 중소·중견기업들의 텃밭이었던 렌털시장의 판도에도 향후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소비재 렌털시장 규모는 2011년 12조2000억원에서 내년 기준 16조9000억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렌털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가전 분야는 내년 기준 5조5000억원까지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생활가전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렌털시장은 코웨이, 청호나이스, 동양매직 등 중견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코웨이는 1만여명의 서비스 영업사원 '코디'를 강점으로 굳건한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청호나이스는 얼음정수기, 동양매직은 다양한 생활가전 제품들을 수시로 출시하며 렌털시장 경쟁에 나서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중소기업 바디프랜드도 안마의자 렌털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내세우며 렌털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렌털시장에서 최근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거대 자본을 무기로 한 유통 대기업들이 속속 렌털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최근 현대백화점그룹이 렌털케어사업 진출을 선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14일 계열사 현대홈쇼핑에 600억원을 출자해 현대렌탈케어 법인의 신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표는 김화웅 현대리바트 사장이 겸임토록 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이같이 렌털시장에 뛰어든 것은 기존 유통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뛰어날 것이란 판단에서다. 실제 홈쇼핑을 통해 정수기, 안마의자 등 렌털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는 만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달 롯데그룹이 KT렌탈을 1조200억원에 인수한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차량 렌털사업 인수로 기존 롯데그룹의 호텔, 면세점 등 관광사업을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KT렌탈은 정수기, 사무기기 렌털사업도 진행해왔던 만큼, 향후 이 분야에서의 사업 확장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잇따른 유통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에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렌털업계는 복잡 미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렌털시장의 우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기존에 쌓아왔던 시장에서의 강점으로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란 자신감이 반반이다. 일부에선 생활가전 렌털시장은 대부분 방문판매 방식인 만큼, 대기업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렌털업계 관계자는 "코웨이가 오랜 기간 렌털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방문판매 조직은 쉽게 구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과거 LG전자도 렌털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시장을 압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대기업들의 최근 진출도 크게 압박감을 주진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거 LG전자 사례와는 달리, 홈쇼핑을 끼고 진출한 현대백화점그룹의 경우엔 다양한 연계 방식들이 있어 쉽게 전망하기 힘들다"며 "1위인 코웨이 정도는 경쟁이 가능하겠지만 이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업체들의 경우엔 렌털시장에서 쉽게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이통사 '결합상품' 쓰고 통신비 아껴요

SKT, 할인 25% 높인 'TB끼리 온가족'
KT 'LTE 뭉치면 올레2' 혜택 2배로
LGU+ '한방에 홈' 결합 수 만큼 효과

정부가 '끼워팔기', '묶어팔기'에 따라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며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결합상품 손보기에 나선 가운데,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결합상품을 잡기 위한 소비자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동통신·인터넷·유선전화를 함께 묶을 시 월 가계 통신비는 6만5000원이다. 이는 결합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2만9000원가량 할인된 수치로, 연간 1조3000억원대의 통신비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이 강력히 밀고 있는 결합상품은 할인 혜택을 기존보다 25%가량 늘린 'TB끼리 온가족 무료'이다. 이 상품은 이동전화와 인터넷, 집전화를 함께 쓰면 결합 가족 수에 따라 인터넷, 집전화를 기본 제공 또는 할인해주는 유무선 결합상품이다. 고객 중 가족 2명이 SK텔레콤 모바일 가입자면 초고속 인터넷을 매달 1만2500원 할인해준다. 특히 62요금제 이상 고가 요금제 사용자면 매달 최고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동전화 3회선을 결합하거나, 가족 중 1명만 75요금제 이상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월 3만원의 기가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한다.

KT는 유무선 결합상품 혜택을 강화한 'LTE 뭉치면 올레2'를 선보였다. 기존 상품보다 할인액을 최대 2배까지 늘린 이 상품은 인터넷과 가족 LTE 이동전화 결합 시 LTE 요금제에 따라 구간별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LTE 6만7000원 이상 요금제 사용자의 경우 매월 8800원 결합할인과 1만7600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올레 패밀리박스'도 출시, 이동전화 2회선 이상 가입하면 매월 1인당 100MB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가족간에는 데이터와 포인트를 나눠쓸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와 인터넷, 와이파이를 함께 쓰면 결합 가족 수에 따라 혜택이 커지는 유무선 결합상품인 '한방에홈'을 내놨다. 이는 가족 1명이 62요금제 이상을 사용하면 초고속인터넷 요금에서 매달 8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IPTV를 신규 가입하면 2000원이 추가 할인된다. 이동전화 2회선을 결합하면 요금제 관계없이 1만원을 할인해주며, 이 중 80요금제 이상이 1명만 있으면 초고속 인터넷이 무료다. 기존 유무선 결합할인 요금제인 '한방에요(yo)'의 경우 2인 결합시 각각 62요금제 이상, 80요금제 이상인 경우 1만1000원을 할인받는다.

박성제 기자 psj@

제약사, 해외 공략 처방전은 '현지화 전략'

종근당·동아에스티·대웅제약 등
성장성 큰 印尼 현지 제약사와 제휴
동남아 시장 진출 교두보로 활용
JW홀딩스 필리핀… 유유제약 馬聯



지난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김규돈 종근당 부사장(오른쪽)과 지미 수다르타 오토 회장이 합작회사 설립 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종근당

국내 제약회사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잇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에 법인 또는 합작사 등을 세워 직접 진출하고 있다. 이 중 인도네시아는 향후 성장성이 큰 만큼 여러 제약사들이 주목하고 있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최근 인도네시아 제약사인 오토와 합작회사 'CKD-OTTO'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종근당은 CKD-OTTO를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에 항암제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기술과 운영시스템을 이전, 항암제와 면역억제제 등 전략 품목을 공급·판매할 예정이다. 이 합작법인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10개국 시장을 공략할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앞서 동아에스티도 지난해 인도네시아 중견 제약회사인 컴비파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컴비파에 바이오의약품 제조기술 이전도 진행해 바이오 원료의약품을 수입해 직접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웅제약도 인도네시아 제약사인 피티 인피온과 의약품 현지 생산을 위한 합작회사인 '피티 대웅-인피오' 설립 계약을 체결, 올해 생산을 목표로 공장을 건립 중에 있다.

이처럼 국내 제약사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인구 대국으로서의 가치와 향후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약 2억5000만명의 세계 4위 인구 대국으로, 제약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6조원에 달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 개정으로 오는 2019년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앞두고 있는 등 향후 의약품 시장 연평균 성장률(CAGR) 13%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JW홀딩스는 지난해 필리핀에 첫 해외 법인을 설립했다. 또 유유제약은 말레이시아에 법인을 설립하고 전략적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현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해당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여러 규제를 적용해 제품 허가와 판매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국내 제약사들이 현지화 전략을 통해 효율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인효 기자 kangih@



전북혁신도시 엠카운티 더 모스트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공고

M·COUNTY THE MOST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5-종합민원실-분양신고-1호(2015.04.16)]로 분양신고필증 득함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완주군청 [허가번호: 2015-종합민원실-신축허가-1], 2015.04.10.허가
▣ 시행 및 시공사 : (유)제인건설
▣ 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신탁사 : (주)생보부동산신탁
▣ 공급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63-3 (전북혁신도시)
▣ 대지면적 : 2,872.30㎡
▣ 건축물 연면적 : 20,219.80㎡ (오피스텔 14,796.94㎡ / 근린생활시설 5,422.86㎡)
▣ 주차대수 : 203대 (근린생활시설 공용)
▣ 공급규모 : 14,796.94㎡ (오피스텔 200실 및 부속용도의 공용면적 포함)
▣ 건축물 층별 용도

구 분	용 도
● 지하2층~지하1층	● 주차장, 저수조실 등
● 지상1층~지상2층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지상3층~지상15층	● 업무시설(오피스텔)

▣ 공급면적 및 공급규모 (단위: ㎡)

군	타입	호실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	계약면적	대지면적	입주예정시기
1	A	158	28.3135	17.7538	0.6584	13.5329	60.2586	8.0538	2016년 10월 예정
2	B	35	55.9490	33.6152	1.3010	26.7417	117.6069	15.9148	
3	C	3	79.9806	47.2774	1.8598	38.2279	167.3457	22.7506	
	D	4	77.2080	48.5464	1.7953	36.9027	164.4524	21.9619	

▣ 분양대금 납부일정 (단위: 원 / VAT포함)

군	타입	실수	구분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공급금액	합계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10%	1차(15%)	2차(15%)	3차(15%)	4차(15%)	30%
									계약시	2015-07-20	2015-10-20	2016-01-20	2016-04-20	입주시
1	A	158	최저가	26,910,000	62,790,000	6,279,000	89,700,000	95,979,000	9,597,900	14,396,850	14,396,850	14,396,850	14,396,850	28,793,700
			최고가	31,920,000	74,480,000	7,448,000	106,400,000	113,848,000	11,384,800	17,077,200	17,077,200	17,077,200	17,077,200	34,154,400
2	B	35	최저가	52,680,000	122,920,000	12,292,000	175,600,000	187,892,000	18,789,200	28,183,800	28,183,800	28,183,800	28,183,800	56,367,600
			최고가	60,030,000	140,070,000	14,007,000	200,100,000	214,107,000	21,410,700	32,116,050	32,116,050	32,116,050	32,116,050	64,232,100
3	C	3	최저가	76,980,000	179,620,000	17,962,000	256,600,000	274,562,000	27,456,200	41,184,300	41,184,300	41,184,300	41,184,300	82,368,600
			최고가	78,540,000	183,260,000	18,326,000	261,800,000	280,126,000	28,012,600	42,018,900	42,018,900	42,018,900	42,018,900	84,037,800
	D	4	최저가	85,260,000	198,940,000	19,894,000	284,200,000	304,094,000	30,409,400	45,614,100	45,614,100	45,614,100	45,614,100	91,228,200
			최고가	89,700,000	209,300,000	20,930,000	299,000,000	319,930,000	31,993,000	47,989,500	47,989,500	47,989,500	47,989,500	95,979,000

▣ 공통사항
● 상기 분양금액은 분양신고 후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각 실별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상기 분양금액은 최고가, 최저가로 표기되어 있으며, 각 실별 분양금액은 별도의 안내책자 또는 전북혁신도시 엠카운티 더 모스트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각 형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구.등록세포함)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전체 층의 복도부분, ELEV홀, 계단실 등)은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전체 공용으로 하며, 각 호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 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 공급대상 200실은 1개동 3군 4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세부사항은 전북혁신도시 엠카운티 더 모스트 당사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단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은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입주자가 잔금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금회 공급되는 오피스텔 전체 200실 분으로 자주식 주차 181대(장애인포함)가 계획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용도로 22대가 예정되어 총 203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청약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오피스텔)
● 분양공고일(2015년 4월 17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동포) 및 외국인포함] 및 법인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은 '군'에 따라 접수하고, 호실은 무작위로 공개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 계약 세대 발생 시 선착순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 있습니다.
● 분양공급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공급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1인당 신청가능 건수 : 군별 1실씩 가능하며, 동일인이 1개의 군에 2개실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 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구분	청약기간(2일)	청약장소	당첨자발표일 / 장소	계약기간(2일)	청약금 환불기간
공통	2015년 04월 21일(화) ~2015년 04월 22일(수) (10:00~16:00)	모델하우스	2015년 04월 24일(금) (15:00) / 모델하우스	2015년 04월 27일(월) ~2015년 04월 28일(화) (10:00~16:00)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7영업일 이후

▣ 청약 신청금 납부 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금융기관	청약신청금 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납부방법
오피스텔	50만원	전북은행	1013-01-0815170	(유)제인건설	지정계좌로 이체

※ 모델하우스 내 현장 수납이 불가하므로, 상기 지정계좌로 이체하시기 바라며, 입금 후 반드시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 시 (배우자 포함)	1. 청약신청서(모델하우스 비치) 2. 본인도장(또는 서명 : 배우자일 경우 청약자의 도장) 3. 본인 확인증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초본(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등 4. 청약신청금(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5.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자 본인 명의)
법인	1. 청약신청서(모델하우스 비치) 2. 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3. 사업자 등록증 4. 청약신청금(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5.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자 법인 명의) 6. 법인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또는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면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도장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금 환불은 청약 신청 시 환불계좌로 등록한 본인(법인)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확인은 모델하우스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방법
● 환불기간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7영업일 이후(단, 토 ·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환불방법
– 청약신청금 환불은 낙첨자와 당첨자 모두 청약 시 제출한 청약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처리됩니다.
– 낙첨자의 청약신청금 환불은 금품분실 및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약 시 제출한 청약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처리합니다.
(환불계좌 오류 등 송금불능 사유 발생 시 환불일자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낙첨자와 당첨자는 일괄 환불되고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 바랍니다.
– 환불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경과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일시 및 당첨자 발표 : 2015년 04월 24일(금) 15:00시
● 발표장소 : 당사 모델하우스 내
● 추첨 : 당사 모델하우스 내에서 공개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군별로 호실을 무작위로 공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실 발생 시 당사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2015년 04월 27일(월)~28일(화) 10:00~16:00시
● 계약체결장소 : 당사 모델하우스 내(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 계약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 시 (배우자 포함)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 • 배우자 대리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통)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법인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신분증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사항	※ 본인 또는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모델하우스 양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오피스텔 입금계좌	전북은행	1013-01-0645277	㈜생보부동산신탁

● 지정된 납부일(중도금은 공급계약서 지정일 또는 잔금은 별도 지정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입금자 표기 예시 : 502호 홍길동 ⇒ 502홍길동
● 납부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일은 익일 은행영업일로 합니다.
● 중도금의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당첨된 호실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모델하우스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자(수분양자)는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제반 유의사항을 숙지하셔야 하며, 이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2항 규정을 통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청약 신청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확인은 당사 모델하우스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주변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오피스텔의 배치구조 및 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을 준수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중도금 대출안내
● 오피스텔 중도금은 무이자대출로써 전체 분양대금의 60%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는 시행사에서 부담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후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 및 원금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분양사업장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 변경, 국제금융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 대출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될 경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 예정일 : 2016년 10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지조성사업의 지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형별면적(㎡)X0.3025]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실별 계약 면적과 대지지분이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 시 공급 가격에 의한 정산처리 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세대(실) 내 · 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공급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초본 첨부)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당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오피스텔 입주민과 근린생활시설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며, 오피스텔 입주차량과 근린생활시설 이용차량의 원활한 동선 분리를 위하여, 지하주차장의 설계변경 또는 차량 차단기 설치로 인한 구획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인이 발생한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분법" 제6조의 3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 "건분법" 제6조의 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설계 및 기타 유의사항
● 각종 홍보,인쇄물(카타로그 등)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및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세대(실)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도 및 평면도, 모형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 시 설치 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도로 인접 및 주변 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 세대(실), 주민공동시설, 카타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 단지 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사업계획(변경) 승인도서에 준합니다.
● 일부 세대(실)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실)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 시설 면적 조정으로 처리 될 수 있으며, 이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내용은 호실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실) 내부 가구(붙박이장, 주방가구) 설치부위의 비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에는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축물로서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건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보행동선 및 입면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분양사업자가 관련 설계 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해 가구 및 일부 경량벽체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또는 건식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 및 공용 점검구는 설비공사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량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냉방은 천정 카세트형 시스템에어컨방식으로 이에 따른 일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화용 스프링클러의 수량 및 위치는 관계법령에 의거 오피스텔 견본주택에 설치된 위치와 다르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상부 일부실은 옥상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규정 이내)
● 당 상품은 대형창호가 적용되어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유리 파손 시 상당한 교체비용이 소요되며, 이에 대해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를 상대로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생활환경 여건에 따라 창호에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관리사무소, MDF실 등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PS 및 TPS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옥상층의 태양광 발전설비의 구조 및 형태는 오피스텔 사용에 의한 필요용량 및 미관,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치위치 및 수량, 구조형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의하여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실별 외창호는 기능성 및 시공성(구조계산, 단열시뮬레이션, 가시도, 사용성), 전주 · 완주시 기준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창 프레임의 구조형상, 규격 및 위치, 색상, 개폐창호의 위치 및 방향, 방충망의 유형 및 위치, 유리의 사양 및 색상, 프레임과 유리창의 체결방법, 하드웨어, 난간의 설치위치 및 고정방법 등)
● 오피스텔 세대(실)간 경계벽은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천장내부에 상부세대(실) 배관 및 덕트가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실이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 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오피스텔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냉각탑 등의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실)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일부가 돌출 및 셋백으로 인하여 일조 및 통풍에 불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실) 내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홈서버 위치는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외부 공개공지, 차량 진출입 등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건축, 기계, 전기 등)은 옥상 녹화와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오수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오피스텔의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본 건물의 명칭, 동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 기관의 심의/자문 결과에 따라 입주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오피스텔의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관련 법령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받으며, 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의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계법규(건축법,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건축주가 인허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갑"은 "을"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갑"은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 이후 입주자(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귀, 품절,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 시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소음측정결과에 의하여 사용검사(승인)전까지 방음벽이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위치, 재질, 디자인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주차관제시스템)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물로서 용도별 주차장 출입구 및 주차구획은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 이점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점)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 세대(실)은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부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배치 특성상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조경 및 조경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납부 주체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은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광고물 설치는 전북 전주 · 완주혁신도시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를 확인하시고, 허가 시 제출한 간판표시 계획서에 따라 완주군청의 승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에 지하주차장 진 · 출입램프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분양관리신탁
● 본 오피스텔의 시행 · 시공사 및 분양사업자인 (유)제인건설과 수탁자인 ㈜생보부동산신탁이 "분양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생보부동산신탁에서 분양대금 관리를 합니다.
● ㈜생보부동산신탁은 본 사업의 시행사 겸 분양사업자인 (유)제인건설로부터 위임받은 자금관리업무(통장관리 포함)등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따라 역할과 업무 수행 범위가 한정되며, 분양계약과 관련한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시행사 겸 분양사업자인 (유)제인건설이 부담하며, 건축물 하자 보수 의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사가 부담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표시사항
● 등록업자 : (유)제인건설 / 부동산개발업등록번호 : 전북140002
● 소유권에 관한사항 : 대지소유권 100%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끝나지 않은 '그렉시트'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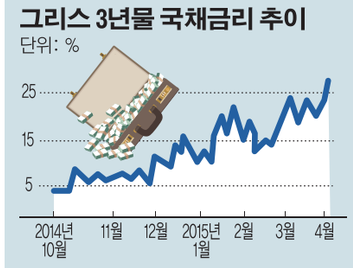
그리스·국제채권단 24일 구제금융 분할금 지원 협상
개혁안 회의적… 합의 불발시 디폴트 선언 가능성 ↑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을 둘러싼 협상 과정

- 2010년 5월 – 1차 구제금융 지원 총 1100억 유로
- 2012년 3월 – 2차 구제금융 지원 총 1300억 유로
- 2015년 1월 – 알렉시스 치프라스 정권 출범
- 2월 – EU 등 채권단이 2차 지원 6월말까지 연장을 결정
  – 지원 실행은 그리스의 재정 개혁이 조건
- 4월말 구제금융 시행 시행을 둘러싼 협상 기한
  - 합의할 경우: 3차 구제금융 지원검토 착수
  - 결렬될 경우: ①그리스 디폴트 가능성 ②유로존 이탈 가능성

그리스 3년물 국채금리 추이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공포가 다시 엄습하고 있다. 그리스 구제금융 분할금 지원을 놓고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국제채권단은 오는 24일(현지시간) 유로그룹 회의에서 그리스와 구제금융 분할금 지원을 놓고 막판 의견 조율에 돌입한다.

이날 회의 결과로 그리스가 맞게 될 운명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구제금융 시행에 합의할 경우 그리스는 1차(2010년, 1100억 유로), 2차(2012년, 1300억 유로)에 이어 3차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반대로 합의가 불발될 경우 그리스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거나, 유로존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를 전망한 듯,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1단계 강등했다. 채권 신용위험을 거래하는 신용부도 스왑(CDS) 시장에서 그리스의 CDS는 90% 확률로 디폴트를 포함시키고 있다.

우선 시장에서는 당장 다음주에 열리는 회의에서는 안도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 국제채권단에 제출한 개혁안이 좋은 평가를 못 받은 만큼, 그리스 지원에 대한 채권단의 자세가 회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최근 "다음 주(24일)에 해결책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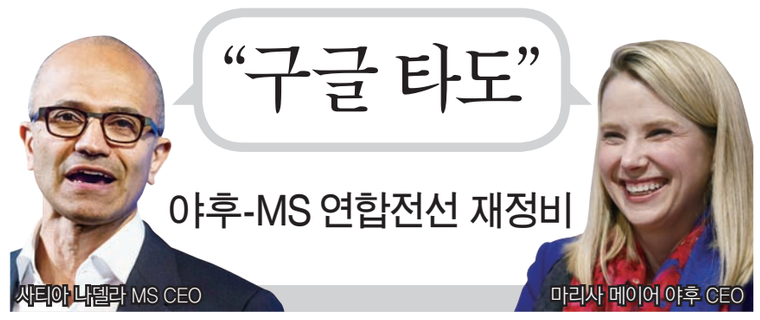
당초 국제채권단은 그리스의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약 8조4000억원) 지원 기간을 6월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리스가 구조 개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자 EU는 반발했고, "구체적인 개혁안을 보여주는 경우에만 4월 중 지원 동결을 해제하겠다"고 엄포했다.

그리스 채권시장은 경제 불안감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리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6일(현지시간) 12%를 웃돌며 지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발행된 그리스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28%대까지 치솟아 시장의 불안감을 그대로 반영했다.

구제금융 지원 확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는 현재 공무원 급여 및 연금 지급을 위해 17억 유로를 당장 확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5·6월에 IMF 부채 25억 유로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오는 24일 회의결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달 말에 마지막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과거에도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합의가 정례회의가 아닌 컨퍼런스콜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채권단과의 타협을 확신하고 나섰다. 이날 바루파키스 장관은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구제금융 분할금 협상 타결을 위해 국제 채권단과 타협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5년 만에 검색제휴 협정 갱신
야후·MS 美검색점유율 33%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야후가 구글 견제를 위한 연합전선을 가다듬었다. 양사는 16일(현지시간) 6년 전 합의한 검색제휴 협정을 갱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09년 10년 만기의 제휴 협정을 맺으면서 5년째 되는 해에 성과를 평가한 뒤 계약조건을 변경하기로 했다. 원 계약은 MS가 야후에 검색결과를 제공하고 양사가 광고매출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MS는 야후 사이트에서 발생한 검색광고 매출의 88%를 야후에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야후 전체 매출에서 검색은 3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갱신된 계약은 검색 관련 더 많은 결정권을 갖는 등 야후에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됐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예를 들어 새 계약에서 야후는 데스크톱 검색광고에 MS 이외 자사 또는 타사의 기술을 쓸 수 있게 됐다. 이미 야후는 모바일 검색에서 그런 유연성을 갖고 있지만 이를 데스크톱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이전까지 야후가 맡아왔던 사이트 내 '빙(Bing)' 검색서비스 관련 광고영업도 MS로 이관됐다. 야후가 MS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도 이전보다 검색에서 다양한 전략을 펼치면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JP모건체이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야후 융통성이 커졌다는 것에 고무됐다"며 "이제 회사는 자체 검색은 물론 MS 이외 다른 파트너와도 제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리사 메이어 야후 최고경영자(CEO)가 전임자인 캐롤 바츠가 MS와 맺었던 계약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매듭지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도 야후에 양보하는 대신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구글과의 경쟁에서 처지지 않게 됐다. 양사는 검색 관련 고객에 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각 엔지니어와 영업 팀을 통합하기로 했다.

시장조사업체 컴스코어에 따르면 양사가 검색 제휴를 맺기 전 미국 데스크톱 검색시장에서 점유율은 약 28%였으나 지난 2월에는 32.6%를 기록했다. 여전히 구글은 64%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월가 혼란은 끝났다… 美 대형은행 '어닝 서프라이즈'

골드만삭스·씨티그룹 등
주당 순익 시장 전망 상회

미국 대형은행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월가에서 혼란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싹트고 있다.

골드만삭스와 씨티그룹 등 16일(현지시간) 실적을 발표한 대형 은행 2곳의 지난 분기 성적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좋았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는 월가가 지난 5년여 간 빠졌던 침체에서 벗어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지난 1분기에 14.7%로 18개 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약 28억 달러로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 투자은행 부문 매출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았다. 트레이딩 부문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보너스를 줄이는 등 비용절감 노력에 순익이 급증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고전했던 은행 중 한 곳인 씨티그룹도 지난 분기 순익이 약 48억 달러로 전년보다 20% 이상 늘고 7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씨티그룹은 지난 2014년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스트레스테스트에 떨어져 휘청거렸으나 올해는 합격해 마이클 코뱃 최고경영자(CEO)가 퇴임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은행은 비용 절감에 총력을 기울여 미국 이외 소매은행 부진 등을 극복했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미국 대형은행 5곳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골드만삭스)의 주당 순익이 뱅크오브아메리카(BoA)를 제외하고 모두 시장 전망을 웃돌았다.

금융위기 이후 자본 등에 대한 당국의 규제강화와 법정비용 증가에 대형은행들이 허덕여왔으나 1분기 실적이 예상밖의 호조를 보이면서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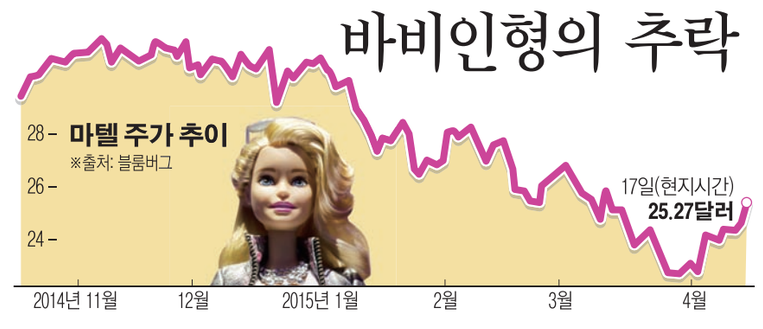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CEO는 "시장이 더욱 정상화됨에 따라 고객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되는 성장 전망에 고무됐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주가는 이날 0.5% 하락했으나 여전히 지난 2008년 이후 최고치에 근접해 있다. 은행 주가는 지난 1년간 29% 뛰었다. JP모건체이스 주가는 전날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미국 대형은행 1분기 실적 (단위: 달러)
※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은행	매출	순이익	주당 순익	주당 순익 (월가 전망)
JP모건체이스	248억2000만	59억	1.45	1.4
웰스파고	213억	58억	1.04	0.98
뱅크오브아메리카	214억2000만	33억6000만	0.27	0.29
씨티그룹	197억4000만	47억7000만	1.51	1.39
골드만삭스	106억2000만	28억4000만	5.94	4.26



마텔, 작년 매출 16% 감소… 주가도 올들어 20% 빠져
실적부진 책임 스톡턴 前CEO 복귀 '도덕적 해이' 논란

여자 어린이들의 필수 아이템이었던 바비인형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해당 제품의 제조회사인 마텔의 실적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16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마텔의 대표적 히트상품인 바비인형과 피셔프라이스 완구의 매출이 지난해 각각 16%,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어린이들에게 필수 아이템이었던 바비인형은 비현실적인 몸매로 미국 여자 어린이들이 신물을 느끼며 마텔의 실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발표된 지난해 마텔의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마텔의 제품 중 유일하게 매출 실적이 증가한 브랜드는 전년 대비 겨우 3% 증가한 '핫휠(Hot Wheel)'이었다.

다만, 지난해 마텔의 실적이 전년 대비 손실을 기록했지만, 회사가 예측한 매출 전망치는 넘어서 손실 폭이 크진 않았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바비인형의 판매가 급락함에도 안정을 보이고 있다는 전망에 이날 시간외거래에서 마텔의 주가는 8% 가량 급등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리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올들어 마텔의 주가는 20%가량 빠졌고 한때 최고치에서는 거의 40%가 주저앉았다.

한편 마텔은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브라이언 스톡턴 최고경영자(CEO)를 다시 복귀시켰다. 회사는 스톡턴 CEO를 고문격에 해당하는 C-레벨 임원으로 임명했다. 스톡턴 CEO는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음에도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고 이번 복귀와 관련, 지난해보다 30% 증액된 연봉 150만 달러(약 16억3305만원)와 1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마켓워치는 "마텔의 이런 인사방침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국 기업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마텔이 정한 '합당한 이유'가 적용되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경영난 때문에…
본사 빌딩 파는 샤프

2014 회계연도 적자 1.8조원 예상
내달 출자전환 구조개혁안 발표

경영난에 허덕이는 일본 전자업체 샤프가 본사 빌딩까지 매각한다.

샤프는 주력인 LCD사업 생산설비 상각처리 등으로 지난 3월 마감한 2014 회계연도 순손실이 2000억 엔(약 1조82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상각 처리해야 하는 손실이 늘면서 샤프의 순손실 전망치는 종전의 300억 엔에서 크게 늘었다.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중소형 LCD사업도 고전하고 있어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회사는 5월 중순 새 중기경영 계획을 발표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미즈호은행 등 주거래 은행 2곳으로부터 출자전환을 통해 2000억 엔의 자본 지원을 받는 대신 감원 등 비용 절감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오사카 시내에 있는 본사 빌딩도 연내에 매각할 계획이다.

신문은 구조조정 비용에 샤프는 올 회계연도에도 1500억 엔의 적자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잇단 정치 스캔들에 칠레 학생들 뿔났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16일(현지시간) 수천명의 학생들이 괴상한 행동을 보이며 최근 발생한 정치 스캔들에 대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175개국 가운데 21위를 기록해 '청정 이미지'를 얻은 칠레는 최근 잇단 정치 스캔들로 이미지에 상처를 입고 있다. 특히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의 아들이 부동산 불법거래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산티아고/AP연합뉴스

파워블로거서 헤지펀드 자문까지… '종횡무진' 버냉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헤지펀드 시타델에 수석 고문 합류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의장이 종횡무진 행보하고 있다.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 홈페이지에 자신의 블로그를 개설한 버냉키 전 의장이 헤지펀드 '시타델'의 선임 자문을 맡기로 했다고 외신이 16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시타델의 투자위원회에서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이슈와 관련한 분석을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버냉키 전 의장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월가와 정치권 사이의 인사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시타델을 선택한 이유는) 연준의 규제를 받지 않아 어떤 종류의 로비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버냉키 전 의장의 보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그는 "연간 자문료를 받겠지만, 헤지펀드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적을 기준으로 한 보너스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버냉키에 앞서 연준 의장을 지냈던 앨런 그리스펀도 퇴임 후 도이체방크, 핌코, 헤지펀드 폴슨앤코에서 자문을 맡은 바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교황의 아이패드, 3300만원에 낙찰

우루과이 경매서 시가 46배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용하던 아이패드가 우루과이의 한 경매에서 3만500달러(약 3341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우루과이의 경매회사 후안 카스텔스는 교황의 아이패드가 전화 경매를 통해 3만500달러에 낙찰됐다고 밝혔다고 15일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낙찰된 아이패드의 뒷면에는 교황의 이름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겨져 있고 교황청의 인증서가 첨부돼있다. 이는 교황이 우루과이 신부 곤살로 아에밀리우스에게 "좋은 일에 쓰라"며 선물한 것이다.

이 신부는 우루과이의 한 학교가 교육 프로젝트를 위해 후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교황에게 선물 받은 아이패드를 기부해 이번 경매가 성사됐다.

카스텔스가 아이패드 낙찰자의 이름과 국적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한 경매 관계자는 낙찰자가 아르헨티나인이라고 전했다. 그는 "낙찰자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자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경매에서 팔린 아이패드와 같은 모델의 시중 가격은 660달러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임철순의 **즐거운 세상**

골퍼들이여, 재치를 키우시오

여성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스타들 중에서 재치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 "팬 여러분께 감사하구요, 부모님께 감사하구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구요" 이렇게 이러구요 저러구요를 늘어놓다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로 끝난다.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쟤네들은 평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사나?' 하게 된다.

골퍼 이야기를 해볼까. 미국의 크리스티 커가 2005년 LPGA 미켈롭 울트라 오픈에서 우승한 직후 한 말은 "목말라요. 맥주가 필요해요"였다. 왜 그랬을까. 대회를 개최한 미켈롭 울트라가 맥주회사이기 때문이었다. 갤러리들의 박수가 쏟아지고, 맥주회사 임직원들은 신이 났다.



그런데 우리 여성골퍼들(일부 기자들이 흔히 '태극낭자'라고 쓰고 있다)은 이런 재치와 말솜씨가 부족하다. 경기라고 하면 좋을 텐데 악착같이 시합이라고 하는 것부터 거슬린다. 영어로 말하는 건 물론 더 못한다.

노르웨이 골퍼 수잔 페테르센은 2013년 5월 킹스밀 오픈 당시 퍼팅 비결을 묻는 질문에 "close eyes then stroke it", 눈을 감고 (감각에 의지해) 퍼팅한다고 대답했는데, 갤러리들이 웃고 난리가 났다. stroke는 자위를 한다는 은어라고 한다. 같은 서양 사람이고 LPGA에서 오래 활동해 영어가 능숙한데도 몰랐나 보다.

우리 골퍼 중 답변이 재치 있었던 경우는 '꼬맹이' '울트라 땅콩'으로 불리던 장정(2014년 은퇴)이다. 그는 IBK기업은행의 후원을 받던 2006년 6월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다른 나라 골퍼들이 모자에 쓰인 IBK가 뭐냐고 묻자 "IBK? I'm a Birdie Killer"라고 대답했다.

이런 말은 순간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평소 연구하고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비거리를 늘릴지, 마지막 날 어떤 옷을 입고 라운딩할지 그런 것만 챙길 게 아니라 우승하면 뭐라고 할까, 방송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면 어떤 제스처를 할까, 이런 걸 생각해 두어야 한다.

4월 6일 종료된 LPGA투어 ANA 인스퍼레이션에서는 미래에셋 소속 김세영(고려대)이 거의 우승할 뻔했다. 대회 장소는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Rancho Mirage)의 미션힐스 골프클럽이었다. 모자의 로고 'Mirae Asset'을 보면서 김세영이 우승할 경우 'Mirae'의 a와 e 사이에 g를 써넣어 란초 미라지의 Mirage로 만들어 흔들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미국 팬들이 박수쳤을 거고 미래에셋도 로고가 부각돼 좋아했을 것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브리티니 린시컴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그도 한때 미래에셋 후원을 받던 골퍼다. 결혼을 앞둔 린시컴은 우승 후 '챔피언 연못'에 캐디는 물론 약혼자, 부모와 함께 뛰어들었다. 그걸 보면서 미래에셋 소속이었다면 Mirae를 한 번은 Mirage로, 또 한 번은 Marriage(결혼)로 만들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다(이런 생각까지 해줘야 되니 나는 정말 너무 바쁜 것 같다).

남아공 골퍼 어니 엘스(Ernie Els)는 팬이 많다. 덩치가 큰데 스윙이 부드러워 '빅 이시'(big easy)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의 팬들이 어느 대회에선가 'Ernie who else?'라는 펼침막을 들고 응원했다. 이게 무슨 말? "어니 엘스 말고 누가 우승하겠어?" 그거 아닌가? 이런 재치가 있어야 한다.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貨殖具案 화식구안



하태형
전 현대경제연구원장

소비가 미덕인가, 절약이 미덕인가

소비가 미덕인가, 아니면 절약 또는 저축이 미덕인가? 경제학 원론 시간에 마주치는 명제 중 하나이다. 개인 차원에서의 우리는 모두 절약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그렇게 알고 살아왔다. 적어도 케인스라는 대경제학자가 나타나서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이라는 명제를 처음으로 언급할 때까지는.

즉, '절약의 역설'이란 비록 절약이 미덕이라 할지라도,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소비를 감소시켜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논리인데, 이처럼 개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린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구성의 모순(Fallacy of Composition)'이라고도 불리는 명제이다.

케인스는 따라서 대공황을 일으킨 원인으로 '절약의 역설'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미덕'임을 강조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오늘날에도 '소비가 미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인 현재도 여전히 수출로 먹고사는 수출의존형 경제이기 때문이다. 또 수출의존형 경제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는 절약해 수출한 결과 다른 나라의 소비에 의존하는 경제모델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식이 이럴진대, 과거 우리의 선조는 '절약'이라는 명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지 명약관화하다. 즉 전통적인 농경사회인 데다 유교사회였던 조선시대의 경우, '근검'과 '절약'이 당연히 덕목으로 강조되었음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어느 시대든 이단아가 존재하듯, 조선시대 실학자로 유명한 박제가(朴齊家)에게서 우리는 놀라운 경제사상을 발견한다. 그가 저술한 실학서(實學書) '북학의'(北學議) 내편(內篇) 시정편(市井篇)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술이 나온다(안대회 역주 '북학의'에서 전재).

"우리는 중국의 주택, 수레와 말, 색채와 비단이 화려한 것을 보고서는 대뜸 '사치가 너무 심하다!'라고 말해 버린다. 그러나 중국이 사치로 망한다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함 탓에 쇠퇴할 것이다. 왜 그러한가?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일컫지, 자기에게 물건이 없어 쓰지 못하는 것을 검소함이라 일컫지는 않는다… 재물은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차지만, 길어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린다. 마찬가지로 비단옷을 입지 않으니 우리나라에서는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고, 그 결과로 여성의 기술이 피폐해졌다. 조잡한 그릇을 트집 잡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기술을 숭상하지 않기에, 나라에는 공장(工匠)과 도공(陶工), 풀무장이가 할 일이 사라졌고, 그 결과 기술이 사라졌다."

위의 글을 케인스 식으로 읽자면 '유효 수요의 부족이 투자 위축을 부르고, 투자 수요의 위축이 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는 또한 소비를 일으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유통'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고 있다면 그 나머지는 모조리 쓸데없는 물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쓸모없는 물건을 활용해 쓸모 있는 물건을 유통시키고 거래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쓸모 있다는 물건은 대부분 한 곳에 묶여서 유통되지 않거나 그것만이 홀로 쓰여서 고갈되기 쉽다. 따라서 옛날의 성왕(聖王)께서는 보석과 화폐 따위의 물건을 만들어 (유통을 도운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유통기능이 없어) 금이나 은을 가지고도 점포에 들어가서는 떡이나 엿을 사 먹지 못한다… 즉 나라 안에 보물이 있어도 강토 안에서는 유통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로 흘러간다. 남들은 나날이 부유해지건만 우리는 날마다 가난해지는 이유이다."

당시 '북학의'의 서문을 쓴 서명응(徐命膺)은 박제가를 두고 "기이한 선비[奇士]"라고 일컬었다.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 '재물은 우물(井)과 같아 계속 쓰지 않으면 말라버린다'라는 주장과 시장(市場)의 유통 기능을 강조한 그는 특이한 천재였던 것 같다.

하루 한생각 **4월 17일**

居安思危(거안사위) 편안할 때 위기에 대비하라

중국 춘추시대에 초(楚)-정(鄭) 연합군이 송(宋)의 성읍 4개를 점령했다. 송이 구원을 요청하자 동맹국 진(晉)의 도공(悼公)은 다른 나라들과 손잡고 출병, 땅을 되찾아 주었다. 정은 항복 표시로 전차를 비롯한 병기와 3명의 악사, 16명의 미인을 보냈다. 도공은 사례품의 반을 중신 위강(魏絳)에게 주었다.

위강은 이때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하고 위험을 생각하면 대비하게 돼 화를 면할 수 있다[居安思危 思則有備 有備無患]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위강이 말한 거안사위(居安思危)는 '춘추좌씨전'에 나온다. 평소 이렇게 했다면 세월호 사고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목은 이색(1328~1396)의 시에도 이 말이 나온다. '伏想郊宮 吟成一首'(삼가 교외의 행궁을 생각하며 한 수 지어 읊다)라는 제목이다. "농한기에 사냥으로 무예를 닦게 함은/성상께서 사위를 생각하심이니/지금은 혜성이 나와 땅을 환히 비춤에/멧돼지도 살던 숲을 멀리 떠나는 때임에랴/하지만 뭇사람이 삼구의 법도를 기뻐해도/이신하는 오언시를 지어 올리나니/반드시 풀고 당김을 함께 하시어/지금 다시 빛나는 공업을 세우소서"[講武當農隙 思危在聖心 長星明照地 剛鬣遠辭林 衆悅三驅法 臣將五字吟 弛張須竝用 樹立更光今] 임금의 농한기 사냥을 뭐라 하지는 않겠으나 사냥만 좋아하지 말고 문과 무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라는 충고다.

2행의 思危(사위)가 거안사위의 준말이다. 5행의 三驅法(삼구법)은 한쪽 면은 열어 두고 삼면으로만 사냥감을 쫓는다는 말로, 임금의 사냥을 가리킨다. 7행의 弛張(이장)은 '예기' 잡기(雜記)편 하의 '한 번 당겼다가 한 번 풀어 주는 것이 문왕과 무왕의 도'[一張一弛 文武之道也]를 인용한 것. 거안사위는 거안여위(居安慮危)라고도 쓴다. 거총사위(居寵思危)는 잘나갈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는 뜻이다.

임철순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온라인 와글와글

유명 프랜차이즈 피자에 쇳조각…철사 피자?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시킨 피자를 먹던 초등학생의 혀에 철사가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장 측의 "직원 옷에 붙은 쇠 솔 조각이 피자에 들어간 것 같다"는 해명에 위생 상태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철수세미 조각인가? 열 살 꼬마가 얼마나 놀랐겠어. 피자 트라우마 생겼겠다", "생선 가시도 식도 타고 잘못 넘어가면 쭉 찢으면서 위장까지 가는데 철사면 상상도 하기 싫다", "새로 출시된 '철사피자'라고 해 보시지. 어느 브랜드, 지점인지 찾아봐야겠다", "그릴 닦는 철수세미가 피자 굽는데 들어갔나 보네", "언젠가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지. 피자 가격은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것처럼 받고 정작 만드는 건 최저임금 받는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피자 속 철분 함량까지 신경 써 주셨네" 등 지적이 많았다.

송형근 기자 x12xsado@

오늘의 BAE 배국남 .com
www.baekn.com

SBS '이혼변호사는 연애중' 조여정

배국남닷컴은 15일 SBS 새 주말드라마 '이혼변호사는 연애중'(극본 김아정 박유미, 연출 박용순)으로 3년 만에 안방 극장에 복귀한 배우 조여정을 만났다. '이혼변호사는 연애 중'은 죽도록 미워하던 변호사를 부하직원으로, 무시하던 사무장을 직장 상사로 맞게 되면서 벌어지는 유쾌한 해프닝과 아프면서도 달달한 로맨스를 담은 드라마다. 조여정은 복귀 소감으로 "고척희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며 "한 번도 안 해 본 캐릭터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처키'



인형처럼 누군가에게 끔찍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굴욕적 상황에서도 꿋꿋이 기질을 발휘하는 고척희가 (시나리오를) 읽을 때부터 사랑스러웠다. 매우 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극중 조여정이 열연할 고척희는 이혼전문 변호사로,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막무가내 불도저 캐릭터다. 일에 있어선 철두철미하지만 완벽함 속에 의외의 허당기가 있어 반전 매력이 돋보이는 인물이다. 조여정은 "여배우로서 로맨틱 코미디는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기쁨이다. 특히 로맨틱 코미디는 촬영장이 즐겁다. 재밌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sun@



기고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자의 역할



노 재 선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기상 호조와 재배면적 증가,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부진 등으로 인해 배추, 무, 양파 등 대부분의 채소 가격이 급락했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불안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3년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대표, 정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 급등락이 예상될 경우 위원회의 합의와 수급조절 매뉴얼에 따라 생산자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추후 시장격리, 수매비축 등 정부 개입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다.

이런 관계기관·단체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주요 채소류 공급과잉과 소비부진 등 수급불안 상황에서도 가격 급락세를 완화시켜 평년 가격을 조기에 회복하는 등 수급안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주도의 수급대책만으로 근본적인 수급불안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개방경제체제(Open Economy) 하에서 경제운용과 선진국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국내 채소농업의 영세성과 기상변동 등에 따른 구조적 수급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산지 중심으로 품목별 산지조직화를 통해 생산을 규모화하고, 자율적이고 사전적인 생산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실제 유럽 등 농업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 주도로 생산을 조정하는 자율적인 수급조절 시스템이 잘 운용되고 있다. 물론 현재 고령화·영세화된 국내 농업 여건에서 단기간에 유럽 등 농업 선진국과 같이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자율적 수급조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조직화 기반을 갖춘 일부 지역 및 품목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시도해 봐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자율적 수급조절 움직임들이 일부 지역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작년 겨울부터 공급과잉에 따른 무, 당근, 양추 등 월동채소 가격 하락이 예상되자 제주도에서는 생산자단체와 함께 생산 전 작목전환 유도, 적정면적 재배 등을 추진했고, 출하기 전 생산자 자율감축, 소비촉진 홍보 확대 등 사전적·자율적 수급대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품목별 생산자로 이루어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저급품 시장출하를 제한하고, 자체 감시단을 운영하여 실행 여부를 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하락했던 월동채소 가격이 평년 수준을 조기에 회복하는 등 가격지지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2015년 4월 초 기준으로 가락시장 상품기준 도매가격은 2014년 말 대책 추진 전과 대비해 무는 24%, 당근은 19%, 양배추는 41%까지 상승한 것이다. 물론 설 명절 기간 수요 증가도 일부 작용했지만 생산자, 지자체, 중앙정부의 협업을 통한 수급안정 대책 추진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강원도에서도 작년부터 주산지 농협,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고랭지배추 수급조절협의회'를 구성하고 수급 안정을 위한 자체 기금을 마련하는 등 자율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배면적 신고제 운영, 출하 시기 조정, 연합판매사업 추진 등을 통해 가격 등락이 심한 고랭지배추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통해 해당 품목의 수급안정은 생산자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내의 사례로 볼 때 생산자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가격 등락이 심한 농산물의 근본적인 수급 및 가격안정을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ICT를 활용한 농업관측 고도화, 주산지 공동경영체 육성, 계약재배 확대 등 선제적인 노력과 함께 의무자조금제 도입, 유통명령제 확대, 수입보장보험 등을 통한 생산자들의 수급안정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조직화된 생산자 단체의 적극적인 활약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한국형 수급안정 모델의 성공적인 출발과 정착을 기대해본다.

객석

전 광 출 대한변리사회 법제이사

변리사 시험이 필요없다고?



며칠 전 변호사협회가 '변리사시험을 즉시 폐지하라'는 성명을 냈다.

로스쿨 출범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어 변리사제도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내용이다. 앞으로는 변리사 대신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과 고도의 법률지식을 동시에 갖춘 변호사를 통해 지식재산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제가 틀렸다.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가 로스쿨에서 '많이'는커녕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 지식재산 분야는 과목이 어렵고 양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아질수록 지식재산권법은 선택 과목이 되지 못한다. 필수과목만 4개이다. 과목마다 조문만 200~300개다. 대상도 과학기술 등을 응용한 무형물 특유의 것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법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정작 다른 데 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기 때문이다. 아무 제한이 없다. 변리사 등록신청서만 내면 등록이 된다.

현실이 이런데도 변리사 시험이 시대적 소명을 다한 제도일까. 지식재산권 선진국이라는 미국은 왜 변호사에게 특허대리인 시험에 합격해야 특허청 대리를 허용할까.

소비자 입장은 어떨까.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미국 속담이 있다. 갈수록 변호사들은 늘어난다. 배고픈 변호사들이 변리사 명함을 들고 활보하면 어떻게 변호사와 변리사를 구별할 수 있을까. 변리사회가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와 변리사 명칭 사용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는 4월 21일은 '과학의 날'이다.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1967년 과학기술처가 발족된 것을 기념한 것이다. 어느덧 50년. 과학기술처는 없다. 과학진흥도 달력 위에서 빛이 바랜 것 같다. 이공계 출신 정부의 특허청장 자리는 한 달 넘게 빈 채로 후임만 기다리고 있다. 변리사 정책을 담당하는 그 빈자리 위로 변리사시험 폐지 주장만 요란하다.

기자수첩

유 지 만 산업부/redpill@

'아궁이 막고 불 때라'는 환경 규제



"업체만 압박하려는 의도 아닌가 싶네요." 최근 만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정부가 추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환경보호라는 미명 아래 기업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얘기다.

새해 들어서면서 시작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현재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다.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자료에 따르면 개장 70여일이 되어가지만 절반이 넘는 54일 정도 거래가 없었다. 그나마 거래량도 1380톤, 거래대금 1155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거래 실종은 예견된 현상이었다. 배출권 할당 대상 23개 업종 중 17대 업종의 할당 신청량이 20억2100만톤이었지만 정부가 발표한 전체 23개 업종의 배출권 할당량은 15억9800만톤에 불과했다. 생산활동에만 쓰기에도 할당량이 모자라니 거래할 수조차 없다.

상황이 이러니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들의 불만은 쌓일 수밖에 없다. 생산활동을 할수록 배출권 구매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부담감은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전경련이 업종별 협회 3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절반이 넘는 17개 업종이 우려되는 국내 변수로 환경 규제를 꼽았다. 이 중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묻는 말에 '달성불가'로 답한 비율이 58%에 달했다. 반면, 달성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6.5%에 불과했다.

탄소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는 매우 타당하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처럼 무조건 틀어막는 규제로는 기업의 발전이나 환경 보호 측면에서 아무 효과도 거둘 수 없다. 굴뚝을 막으면 겉에서만 연기가 보이지 않을 뿐, 속은 썩어들어가게 된다. 오히려 좋은 성능의 환기구를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기업과 환경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차상엽의 시선

온라인뉴스부 차장

한국 프로야구도 스토리가 필요해~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각 구단 선수들은 예외없이 등번호 42번을 달고 경기에 임했다.

고(故) 재키 로빈슨(1919~1972년)을 기리기 위해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매년 4월 15일 42번의 등번호를 달고 경기를 치른다.

재키 로빈슨은 메이저리그 최초로 인종의 장벽을 허문 선수다. 1945년 브루클린 다저스(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전신)에 입단한 로빈슨은 백인이 아닌 선수로는 최초로 1947년 4월 15일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재키 로빈슨 데이'는 그가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날이다. 이를 기리기 위해 모든 선수들은 그의 데뷔전 당시 등번호를 달고 경기에 나선다.

살해 협박까지 받을 정도로 극심했던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유색인종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다는 것만으로 재키 로빈슨이 위대한 것은 아니다.

신인상과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고 팀의 월드시리즈 우승에도 큰 기여를 했을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다. 비교적 늦은 28세에 데뷔했음에도 10시즌간 통산 1318안타 137홈런 등으로 큰 족적을 남긴 그는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됐다.

이쯤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국내 프로야구다.

지난 1982년 첫 발을 내디뎌 4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스토리가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각 팀 별로 영구결번을 지정해 레전드에 걸맞은 예우를 하고 있고 이들의 숫자가 총 12명에 달한다.

하지만 프로야구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보기는 무리다. 수많은 레전드가 탄생했지만 그에 걸맞지 않게 잊혀진 선수도 적지 않다.

올해 국내 프로야구는 kt위즈의 가세로 최초의 10개 구단 체제를 갖췄다. 34번째 시즌 만에 하루 최대 5경기를 즐길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체 경기수도 늘어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팬들의 몰입도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야구가 양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처럼 국내 프로야구는 3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양적인 성장을 이뤘고 이제 또 한 번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양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그 역사에 걸맞은 스토리를 입히는 작업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다.

그런 면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해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부산 기장군에 약 5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메이저리그를 이제 갓 30년을 넘긴 국내 프로야구와 비교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

하지만 프로야구가 100년 이상 최고의 스포츠로 계속 자리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팽창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스토리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syc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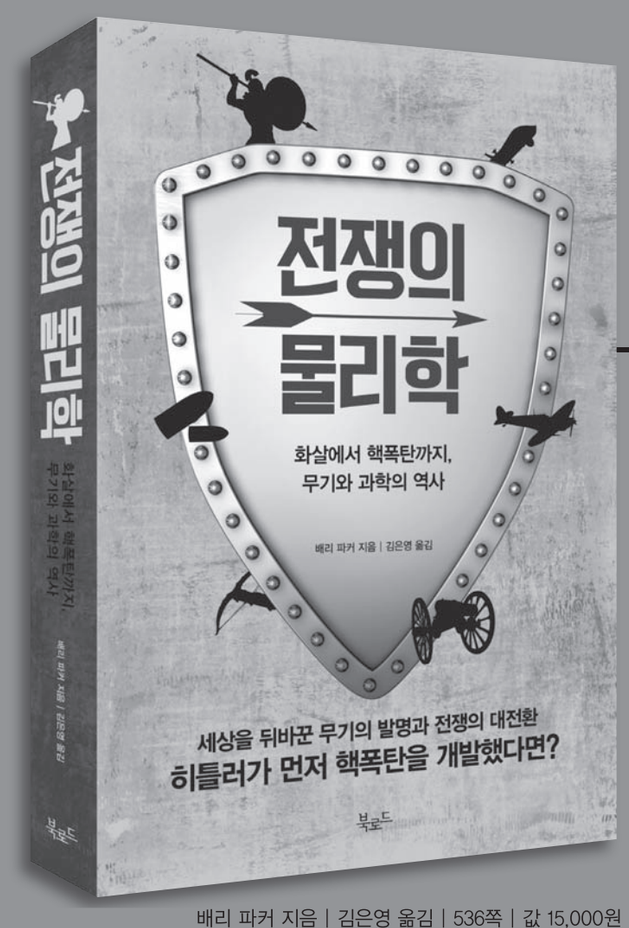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강 혁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사진팀 (02)799-2634
정치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부동산시장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사회팀 (02)799-2656 국제팀 (02)799-265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세상을 뒤바꾼 무기의 발명과 전쟁의 대전환
히틀러가 먼저 핵폭탄을 개발했다면?

세상을 뒤바꾼 신무기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을까?
전쟁과 **무기**, **과학**과 **역사**에 관심 있는 모든 독자들을 위한 필독서!

이 책은 전쟁의 역사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조명한다. _벤저민 긴스버그(존스 홉킨스 대학 정치학과 교수, 《폭력의 가치》저자)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전쟁과 물리학의 다양한 원리들! _《워싱턴 타임스》
생기 넘치는 역사책. 저자 배리 파커의 능력이 복합적으로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_《미드웨스트 북 리뷰》
기초물리학 이론이 전쟁 무기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책 _《동아일보》
물리학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본 무기의 역사, 전쟁사 _《세계일보》

배리 파커 지음 | 김은영 옮김 | 536쪽 | 값 15,000원

정몽규, 포니정재단에 123억 '통큰 기부'

〈현대산업개발 회장〉



포니정재단에 123억원을 기부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사진제공 현대산업개발

개인 소유 현대산업개발 20만주 출연 기초학술 지원

아버지 故 정세영 명예회장 10주기… 재단 재원 확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포니정재단에 123억원 상당의 개인주식을 출연했다. 이날 기부된 주식은 정 회장 개인이 소유한 현대산업개발 주식 20만주로 주가가 16일 종가기준 6만1600원임을 감안하면 123억2000만원에 이른다.

포니정재단은 정 회장의 아버지인 고 정세영 명예회장의 업적과 공로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05년 11월 설립된 재단이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개척자이자 선구자인 고 정세영 명예회장의 애칭인 '포니정'에서 이름을 따왔다. 33억원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포니정재단의 재정 규모는 현재 260억원 정도다. 이번 주식 기부로 재정 규모가 총 383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지난 2008년 고 정세영 명예회장의 3주기를 앞두고 '포니정 홀'을 개관한 것에 이은 정 회장의 두번째 행보로 오는 5월 타계 10주기를 맞아 재단 확장과 향후 포니정 재단이 장학사업과 학술지원사업을 영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 충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기부를 선택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정몽규 회장의 이번 주식기부로 포니정 재단이 더욱 활발한 장학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포니정재단은 포니정 혁신상 수여, 학술지원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장학금 증정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006년 이후로 현재까지 국내 장학생 280여명과 베트남 장학생 440여명을 지원했다.

특히 매년 베트남 현지 장학생 60여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지난 2012년부터 현지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을 선발해 국내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코스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또한 기초학문의 발전을 중요시 했던 고 정세영 회장의 뜻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문학·사학·철학 등 기초학문 분야에서 매년 1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다.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준 개인·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포니정 혁신상'에 반기문 UN사무총장을 시작으로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 가나안농군운동 세계본부, 차인표 신애라 부부,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석지영 하버드 로스쿨 종신교수,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등이 수상했다.

정경진 기자 jungkj@

삼성전자 "세계 기능청소년에게 꿈과 희망 줄것"

'국제기능올림픽' 2007년 이후 5회 연속 후원

8월 브라질 대회 유일한 최상위 타이틀 스폰서



15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기능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왼쪽부터) 사이먼 바틀리 국제기능올림픽위원회 회장(왼쪽), 송지오 삼성기능올림픽 사무국장이 기능올림픽 후원 조인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를 5회 연속 후원한다. 삼성전자는 15일(현지시간) '제43회 상파울루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후원 조인식을 열고, 지난 대회에 이어 유일하게 최상위 타이틀 스폰서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우수 기능인력 양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 일본 시즈오카 대회부터 5회 연속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2013년 독일 라이프치히 대회에 이어 유일한 '최상위 타이틀 후원사(OEP)'로 참여한다.

삼성전자는 대회에 필요한 물품 중 일부를 삼성 제품으로 독점 제공하고, '삼성 과빌리온' 경기장에 홍보관을 마련해 '갤럭시 S6' 등 첨단 제품과 교육 솔루션, 삼성페이, 녹스 활용 솔루션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사이먼 바틀리 국제기능올림픽위원회 회장은 "국내외 기능 대회를 후원해온 삼성전자가 이번 브라질 대회에서도 소속 선수단의 참여를 비롯해 의미있는 활동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지오 삼성기능올림픽 사무국장은 "중남미 지역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브라질 대회에 삼성이 주요 후원사로서 전 세계 73개 WSI 회원국의 수많은 기능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의 우수 기능인력들이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팀에 참여해왔으며, 1981년부터 2013년 대회까지 53명이 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브라질 상파울루 대회는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되고 전 세계 59개국 1268명의 선수들이 각국을 대표해 50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한국은 42개 직종에 47명 선수가 출전하며, 삼성은 전자·전기·중공업·SDI 소속 14명의 선수가 12개 직종에서 경합을 펼친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인사

◆국토교통부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이광원

◆하나은행 〈전보〉 ◇부장 △채널1영업지원부 겸 채널2영업지원부 장일호 △기관영업부 정석화 ◇지점장 △성수동 구희동 △창신동 김광식 △답십리역 서유석 △대청역 안기훈 △효자촌 오인자 △시흥남이용현 △신당역 전종섭 △사당동 한병철 △수유2동 황순양 △안성 개설준비위원장 오현종 ◇지점장 겸 RM(기업금융전담역) △장안동 강귀섭 △화성병점 권순목 △강남기업센터 겸 강남역 김익현 △판교역 문창익 △마산기업센터 배상용 △송도GCF 양승진 △남서울 유중근 △도곡동 최천범 ◇RM △판교역 이현철 △동수원 황동수 ◇Gold PB △서현역 김태자 △역삼역 김현수 〈승진〉 ◇Gold PB △영업1부PB센터 송미정 △압구정PB센터 송승영

◆외환은행 〈승진〉 ◇지점장 △강릉 이광순 △광양 김세훈 △대구공단 정하윤 △목동1단지 김미영 △미아동 박성숙 △부평역 고창효 △사직동 금호석 △송파동 윤문노 △연신내 이정준 ◇SRM △계동 김창중 △남대문 손명원 △서소문 김명선 △신사동 반재호 △여의도 이동근 ◇SAM △강남금융센터 김현주 △강남외환센터 이동진 △강서 권성호 △광주 박정규 △구미 이상일 △군산 김성흠 △남동공단 고종광 △논현남 조용성 △논현역 김순호 △동수원 김선진 △둔촌역 김응환 △마두역 양근섭 △마산 김종규 △마포 최성국 △부평 김삼태 △서대문 최유영 △시화공단 박태연 △신갈 고중렬 △신촌 송일준 △여의도광장 유병창 △울산 손동윤 △이수역 이석태 △이천 이해원 △전경련 엄태균 △주안공단 홍성하 △천안 지정현 △천호역 정대희 △충무로 이재성 △태평로 민명기 △평택 박용만 △홍대역 김영준 ◇수석PB △영업부 WM센터 심기천 ◇출장소장 △가좌동 안순영 ◇본점팀장 △검사부 수석검사역 강석민 △검사부 수석검사역 노영준 △검사부 수석검사역 류면우 △경영기획부 강종필 △노사협력부 차재진 △론센터 송기성 △부동산금융부 이문재 △신용감리부 팀장 겸 수석여신감리역 나채복 △여신기획부 수석심사역 김진수 △종합리스크관리부 수석상담역 이기숙 △총무부 조석연 △투자금융부 송옥근 △CIB심사부 수석심사역 임영석 △CIB심사부 수석심사역 정길영 △e-금융사업부 변창진 △IT금융개발부 김재원 △IT금융개발부 백영흠 △IT금융개발부 이선우 〈전보〉 ◇지점장 △구로공원 박원열 △구월동 정열태 △남영동 정병기 △내자동 박세걸 △당산역 구미란 △당진 전기돈 △도곡역 김미애 △도당동 임광빈 △마두역 어윤봉 △목포 고병운 △미음공단 이명훈 △부산 김헌주 △부천중앙 변경아 △부평 박종렬 △북울산 강석구 △삼성역 오태균 △서울아산병원 임재기 △서현역 구달회 △성동 박창우 △성산동 오정선 △성서 박정원 △소공동 이문선 △수원 박영 △수지 송흥규 △순천 진광섭 △신갈 한지호 △신천역 김삼문 △신평 김수태 △안암동 박진태 △안양 박창호 △야탑역 이덕주 △약수역 임현규 △양재동 류병도 △오류동 이동직 △오창 최용섭 △올림픽노갑수 △용인 류동훈 △이수역 고태화 △이촌동 강태신 △작전동 양영완 △잠실트리지움 김학돈 △장안동 박경아 △주엽역 김사무엘 △죽전 이찬행 △중곡동 정지복 △진주 하정식 △창동 이수복 △창원 박희갑 △천안공단 신언명 △충무로 최민규 △탄현역 박경성 △평창동 송은주 △평촌 곽성민 △평택 엄철암 △포항남 배종필 △포항 임경일△하남공단 이경호 △호계동 권동혁 ◇지점장 겸 SRM △계동 김지헌 △양재중앙 박정재 △영업부 한사권 ◇SAM △반월공단 윤종수 △방배동 김정래 △범계역 정재훈 △삼성역 김춘열 △여의도 황병례 △인천국제공항 강신원 △창원 공성호 △퇴계로 이범수 △화정역 이희락 ◇출장소장 △호평 박종서 ◇본점부/실장 △검사부 김인기 △고객정보보호부 조현호 △리테일사업부 천병규 △여신그룹 부장 겸 수석심사역 정우영 △여신정리부 윤정수 △외환사업부 김치옥 △인재개발부 김연익 △PB사업부 김기용 ◇본점팀장 △검사부 수석검사역 강태의 △금융소비자보호부 서종만 △리테일사업부 김남헌 △여신심사부 팀장 겸 수석심사역 신양수 △CIB심사부 팀장 겸 수석심사역 성이구 △CIB심사부 팀장 겸 수석심사역 장우진 △IT금융개발부 박동욱 △IT금융개발부 심성식 △IT기획부 이경엽 △IT기획부 이일호 △IT보안부 한경수 △IT시스템운영부 김근호 △IT시스템운영부 이찬인 △IT정보개발부 김진우 △IT정보개발부 이병우

◆CJ그룹 ◇상무대우 승진 〈CJ제일제당〉 △생물자원사업부문 인니사료사업부장 이태기 △생산총괄 소재제분공장장 김경호 〈CJ프레시웨이〉 △영업2본부 기업식재SU장 홍순일 〈CJ푸드빌〉 △중국법인 사업개발담당 고희석 〈CJ대한통운〉 △CL1본부 영업1담당 권호생 △CL2본부 운영1담당 차화선 〈CJ오쇼핑〉 △TV사업본부 뷰티사업부장 김경연 △글로벌사업본부 천천CJ법인장 문영운 〈CJ E&M〉 △방송콘텐츠부문 매체사업본부장 김종선 △미디어솔루션본부 전략기획담당 최수경 △미국 사업총괄 이상훈 〈CJ중국본사〉 △대외협력담당 배재민 〈CJ㈜〉 △재무팀 재무운영담당 신종환

부음

▲박상국(삼환기업 대표이사 사장)씨 장인상 = 16일, 부산 원자력병원, 발인 18일 오전 10시, 051-720-5421

▲김현호(동인교육재단 이사장)씨 별세, 김정규(계명대 교수)·민규(포항예고 교감)씨 부친상 = 16일, 포항시민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9시, 054-253-4444

▲장경수(가천대 명예교수)·경욱(전 국군기무사령관)·명수(LG화학 과장)씨 모친상 = 16일, 서산중앙병원, 발인 18일 오전 10시, 041-669-0002

▲나승서(추계예술대 교수)씨 모친상, 김충식(더우드 대표)씨 장모상 = 1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8일 오전 6시, 02-3410-3151

▲황세연(전 SK C&C 경영지원실장)씨 별세, 전혜영씨 남편상, 황태연씨 형제상 = 1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8일 오전 5시, 02-3410-3151

▲임동근(현대태교아카데미 원장)씨 별세, 임형섭(대한항공 차장)·항섭(두란노 팀장)씨 부친상 = 16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8일 오전 8시, 02-2227-7541

권오준 포스코 회장, 세계철강협회 정기이사회 참석

"철강산업 지속성장 방안 논의합시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세계 철강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철강산업 지속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포스코는 권 회장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철강협회 정기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기이사회에는 세계철강협회 회장직을 맡은 볼프강 에더 푀스트알피네 회장을 비롯해 락시미 미탈 아르셀로미탈 회장, 알렉세이 모르다쇼프 세베르스탈 회장, 신도 다카오 코세이 신일철주금 사장 등 50여개 철강회사 8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철강산업의 단기 수요 전망, 철강산업의 이미지 개선방안, 안전 및 보건 관련 이슈, 세계 철강산업의 지속가능 성장 방안 등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협회는 올해에도 오는 28일을 '세계 철강 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해 철강업계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 그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1967년 설립된 세계철강협회는 철강산업의 이해 및 이익증진 활동을 추진하는 국제기구다. 170개 철강회사와 기관, 연구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철강산업의 지속성장·환경·시장개발 등 세계철강협회의 주요 사업 방향을 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15명의 위원이 3년간 활동한다. 권오준 회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으며, 이사회를 거쳐 집행위원으로 정식 선임된 바 있다. 세계철강협회 연례총회는 오는 10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범근 기자 nova@

"제조업의 뿌리, 봉제·구두업계 애로사항 듣겠습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6일 망우동 봉제공장과 성수동 구두공장을 방문해 동반성장 간담회를 가졌다. 안 위원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최근 봉제·패션업계의 갑질 논란, 패션제조업의 낙후된 작업환경,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안 위원장은 "봉제업, 수제화업 등은 산업화 초기부터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제조업의 뿌리'"라고 격려했다. 사진제공 동반성장위원회

네이버 '해피빈' 기부금 1년 만에 '10억'



네이버의 기부 플랫폼 해피빈의 모금액이 16일 1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모바일 해피빈 서비스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26만명 이상이며, 누적 모금액은 10억5000만원을 넘겼다. 1회에 최고 1100만원을 기부한 경우도 있었다. 연간 총 모금 횟수는 약 40만회에 달한다.

특히 모바일 해피빈에서는 직접 기부액을 결제하는 '충전콩' 기부자가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모바일에서는 저녁 10시 이후부터 새벽 1시 사이에 모금이 가장 많이 일어났고, 3040 여성들이 전체 기부자들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해피빈 관계자는 "하루를 마감하는 심야 시간대에 좀 더 마음을 열고 차분하게 기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3040 여성 이용자들은 기부뿐 아니라 공감 댓글로도 활발하게 응원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해피빈에 참여하는 단체들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사랑나눔의사회, 빅이슈코리아, 글로벌비전 등 5900여개 단체들이 해피빈을 통해 활발한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인혁 해피빈 대표는 "해피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며 "모바일을 통해서는 긴급 의료구호나 생활 지원 등에 더욱 빨리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

삼익악기·삼익문화재단, 고려인 동포 악기 지원



삼익악기 관계자가 16일 삼익문화재단 측과 함께 광주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 자녀들을 위해 악기를 기증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삼익악기

삼익악기는 삼익문화재단과 함께 국내 고려인 동포 자녀들을 위한 악기 지원·장학사업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삼익악기는 이날 전라도 광주시에 위치한 고려인 마을과 대안학교 새날학교에 2000만원 상당의 악기를 기증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광고 고려인 마을엔 약 3000명의 고려인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이주 근로자들이 정착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삼익문화재단 이승재 사무국장은 "이번 국내 고려인공동체와의 소통과 지원을 시작으로 삼익악기를 통해 사회의 구석진 부분을 조금이라도 채우는 데 재단의 역할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삼익악기에서 문체부 인가를 통해 설립한 삼익문화재단은 국내 음대·예고의 재능있는 학생 양성을 위한 재능기부장학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유 기자 thec98@



미생

냄새를 보는 소녀

은밀하게 위대하게

은교

한컷에서 한편으로 원작 활용 한세기

영상과 공연시장이 확대되고 콘텐츠 제작환경과 마케팅 전략이 급변하면서 원작을 활용한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영화 초창기인 1920년대 무성영화인 윤백남 감독의 '운영전' 이경무 감독의 '심청전' '장한몽' 이규설 감독의 '농중조' 등 대부분은 일본 연극이나 고전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다. 그로부터 90여년이 흘렀다. 최근 관객을 만난 이종훈 감독의 '고양이 장례식'은 동명 웹툰이 원작이고, 요즘 상영되고 있는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영화 '화장'은 소설가 김훈의 동명소설이 원작이다. KBS가 1962년 개국 기념 드라마 '나도 인간이 되련다'(이기하 PD)를 방송했다. KBS 첫 드라마 '나도 인간이 되련다'는 유치진 희곡이 원작이었다. 그로부터 53년이 흐른 2015년의 안방극장. SBS '하이드 지킬, 나' '냄새를 보는 소녀' '하녀들'은 각각 웹툰과 소설을 드라마화한 작품이고 8월 방송 예정인 '저녁 드실래요' 등 제작을 준비 중에 있는 드라마 상당수가 웹툰 등 원작을 활용한 것들이다.

1920년대 소설 '운영전' 등 본격 영화화
소설에 이어 만화·웹툰 등 활용 늘어
최근엔 영화가 연극·뮤지컬로 재탄생

콘텐츠 수요 느는데 소재는 점점 줄어
원작 유명세로 흥행 발판 마련 의도

각기 다른 분야서 윈윈 긍정적 목소리
스토리 의존 말고 재창조 해야 성공

원작을 활용하는 것은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뿐만 아니다. '대장금', '프리실라', '오페라 유령' 등 뮤지컬과 연극을 비롯한 공연물 역시 원작을 활용한 경우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원작을 영상화하거나 공연화한 것은 한국 대중문화 역사와 궤를 함께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시대에 따라 원작으로 활용되는 작품의 양태는 크게 변했다. 전통적으로 영상물과 공연물의 원작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이 바로 소설이다. 문학적 상상력과 탄탄한 내러티브, 독창적인 스토리와 캐릭터로 무장한 소설은 사극에서부터 현대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와 영화 작품의 원작으로 활용됐다.

이범선의 '오발탄', 김승옥의 '무진기행', 박경리의 '토지'에서부터 김훈의 '칼의 노래', '화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소설들이 드라마와 영화로 재탄생했고 뮤지컬과 연극의 원작으로 활용됐다. 특히 소설가 고(故) 최인호의 소설은 영상물의 원작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해신', '상도', '별들의 고향', '겨울 나그네', '불새' 등 최인호 작가의 수많은 작품이 영화, 드라마, 연극의 원작으로 활용됐다.

소설에 이어 1980~2000년대에는 기발한 상상력과 영상화하기 좋은 구성으로 짜여진 만화와 10~20대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인터넷 소설 등이 속속 드라마, 영화, 연극으로 만들어졌다.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구단', 허영만의 '미스터Q' '아스팔트 사나이' 등 적지 않은 만화들이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져 흥행에 성공을 거뒀다. 또한 귀여니의 '그놈은 멋있었다' '늑대의 유혹', 김유리의 '옥탑방 고양이' 인터넷 소설들도 속속 영상물로, 그리고 공연물로 만들어져 관객과 시청자와 만났다.

특히 이 시기 원작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작가는 만화작가 허영만이다. 특히 허영만은 '비트', '미스터Q', '아스팔트 사나이', '식객', '타짜', '각시탈' 등 수많은 작품이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져 대중의 호평을 받았다.

최근 들어서는 기상천외하고 독창적인 스토리나 인물을 내세운 웹툰이 영상물과 공연물의 원작으로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다. 드라마 '미생' '닥터 프로스트' '하이드 지킬, 나' '치즈 인 더 트랩' '냄새를 보는 소녀', 영화 '패션왕'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끼' '전설의 주먹' '26년' '이웃사람', 웹드라마 '연애세포' '후유증',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 '삼봉 이발소', 뮤지컬 '바보' '순정만화''새끼손가락' 등의 원작이 바로 웹툰이다.

영상물이나 공연물의 원작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웹툰 작가는 강풀과 윤태호다. 강풀의 '26년' '그대를 사랑합니다' '순정만화' 등과 윤태호 작가의 '미생' '이끼' 등이 영상과 공연을 통해 관객과 시청자와 만났다.

이밖에 '꽃보다 남자', '데스노트'처럼 외국 드라마나 영화, 만화 등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도 크게 늘었다. 또한 '미녀는 괴로워'처럼 영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과 연극을 원작으로 한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왕의 남자', '살인의 추억'처럼 영화와 드라마가 뮤지컬 원작으로 활용되고 연극이 영화와 드라마의 원작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급증했다.

왜 원작을 영상화하거나 공연화하는 콘텐츠가 급증한 것일까. 최근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 영화사, 공연사의 증가와 국내 방송영상공연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많은 콘텐츠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기존 작가의 한계와 매너리즘으로 인해 발생되는 드라마, 영화, 공연의 소재와 스토리 빈곤을 타개하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원작을 활용한 영상화 및 공연화 작업이 왕성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원작의 대중성과 유명성, 인기를 이용해 흥행을 하려는 의도도 원작의 영상화와 공연화 작업을 부추기고 있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원작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영상과 공연의 스펙트럼을 넓히려는 것도 원작의 영상물과 공연물의 주요한 원인이다. 여기에 한 개의 작품을 여러 부분에서 활용하는 원소스멀티유스(One Source Multi Use) 전략이 최근 대중문화 산업에서 보편화하면서 원작을 활용한 문화 상품화 작업이 급증했다.

대중문화계는 원작을 활용한 영상화나 공연화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해신', '불새' 등 자신의 수많은 소설이 영화와 드라마, 연극 등으로 만들어졌던 소설가 최인호씨는 생전에 인터뷰에서 "문학과 영상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권장할 만하다. 두 분야가 독립적인 예술 분야이지만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지닌다면 순수문화와 대중문화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원작의 영상화나 공연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미생'의 윤태호 작가 역시 "'미생'을 드라마로 만든 것은 또 다른 창작 작업이며 각기 다른 분야에서 윈윈하는 것이다. 웹툰 작가들이 웹툰의 영상화 작업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소설에서부터 웹툰에 이르기까지 원작의 영상을 활용한 드라마나 영화 공연 등 콘텐츠 제작이 줄을 잇지만 성공한 작품보다 실패한 작품이 더 많다. 왜 그런 것일까.

원작의 활용은 영상과 공연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영상과 무대의 특성을 살려 작품화하는 것이 아니라 원작의 작품성과 스토리에만 전적으로 기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작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드라마나 영화, 뮤지컬, 연극으로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제2의 창작을 거쳐 영상물과 공연물로 재탄생해야 한다.

'허준', '상도', '올인' 등 원작을 활용한 드라마를 많이 집필한 드라마 작가 최완규는 "원작 활용은 드라마 소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원작과 드라마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원작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드라마는 하나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재창작을 해야 한다. 물론 원작의 주제 의식은 살려야겠지만 그 동안 원작이 있는 드라마를 집필할 때 원작의 활용도를 계량화한다면 20~30%에 불과하다. 70~80%는 순전히 드라마적 창작에 의존한다"고 설명했다. 드라마 '미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김원석 PD는 "드라마라는 영상물의 특성에 원작의 스토리와 캐릭터를 잘 녹여내는 것이 원작을 활용한 영상물 성공의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원작의 대중성과 인기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방송사나 영화사, 공연사의 의도만 있고 원작을 뛰어넘는 제2의 창작이라는 엄청난 노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원작의 영상화나 공연화는 성공할 수 없다.

배국남 기자 knbae@

영상으로 다시 태어난 텍스트… 실감나게 화려하게



화장 | 허삼관 | 냄새를 보는 소녀 | 슈퍼대디 열 | 팬텀 | 데스노트

김훈·임권택… '화장'서 만난 거장들
박찬욱 신작 '아가씨' 영국소설 원작

영화

지난 9일 개봉한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영화 '화장'은 2004년 제28회 이상 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김훈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젊은 여자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생과 사를 하나로 표현한 이 영화의 예술성은 원작 소설에 기인한다. 극이 표방한 오정식(안성기) 상무의 내적 갈등은 이미 원작 소설에서 잘 표현돼 있다. 원작의 의도도 잘 살리고 대중성을 보완해 보다 파급력 높은 작품이 탄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강우석 감독의 영화 '이끼'는 윤태호 작가의 인기 웹툰 '이끼'를 영화화해 흥행에 성공했다. 정재영, 박해일이 주연을 맡은 이 작품은 누적 관객 수 335만명을 돌파하며 그해 박스오피스 순위 TOP7에 이름을 올렸다.

요즘 영화의 주요한 원작은 웹툰과 소설이다. 김수현 주연의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와 주원이 출연한 영화 '패션왕', 이순재의 감동 스토리 '그대를 사랑합니다', 유지태 주연의 '순정만화'는 모두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돼 큰 반향을 일으켰다. '화장'을 비롯해 김희애의 '우아한 거짓말', 김혜자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하정우의 '허삼관', 박해일의 '은교', 김명민의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등은 모두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앞으로 관객과 만날 원작을 활용한 영화도 있다. 지난 1월 본격 제작에 돌입한 박찬욱 감독의 신작 '아가씨'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다. 배우 하정우와 김민희가 주연을 맡은 이 작품은 영국 작가 사라 워터스의 소설 '핑거스미스'를 원작으로 한 것인데 소매치기 집단에서 자란 소녀가 소매치기 우두머리와 귀족 상속녀를 결혼시키기 위해 상속녀에게 접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아가씨'는 1930년대 한국과 일본을 배경으로 각색됐다. 또한 원빈의 차기작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화 '신과 함께'는 웹툰 원작을 활용한 것이다. 주호민 작가의 인기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 주인공이 죽은 뒤 저승에서 49일간 재판을 받는 과정을 담았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원작의 영화화가 가진 역사는 상당하다. 텍스트 미디어에서 영상 미디어로 변모하는 과정은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진다. 반면 텍스트 미디어가 가진 상상력의 저해로 인한 실망감도 간간이 표출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최두선 기자 sun@

'미생''슈퍼대디 열' 웹툰을 모태로
'떴다 패밀리' 김범 작가 소설 극화

드라마

웹툰, 만화, 소설, 웹소설 등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쏟아지고 있다. 이제는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극본 공모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윤태호 작가의 웹툰 '미생'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그 인기는 고스란히 웹툰의 드라마 원작화 바람으로 불었다. 현재 방영 중인 SBS 수목드라마 '냄새를 보는 소녀'도 아기자기한 소재와 감각적인 그림으로 인기를 모은 만취 작가의 동명 웹툰을 안방극장으로 옮긴 것이다. 암 선고를 받고 옛 남자친구를 찾아 가족이 돼 달라고 강요하는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tvN 금토드라마 '슈퍼대디 열'도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최근 종영한 tvN '호구의 사랑'도 유현숙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하며, SBS '하이드 지킬, 나'도 이충호 작가의 웹툰 '지킬 박사는 하이드씨'를 드라마화한 것이다.

웹툰 이전에는 소설과 만화책이 드라마의 원전으로 각광받았다. 7월 방송 예정인 '밤을 걷는 선비'는 '조선시대 흡혈귀'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이용한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소설도 드라마의 원작으로 간간이 이용되고 있다. 최근 종영한 SBS 주말드라마 '떴다 패밀리'는 2012년 출간된 김범 작가의 소설 '할매가 돌아왔다'를 원작으로 하며, MBC 월화드라마 '빛나거나 미치거나'도 '1%의 어떤 것', '인연 만들기'를 쓴 현고운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판정단'도 박하익 작가의 소설 '선암여고 탐정단: 방과 후의 미스터리'를 각색한 작품이다.

웹소설도 떠오르고 있는 장르다. 지난해 방영된 MBC 드라마 '미스터 백'은 이조영 작가의 웹소설 '올드맨'이 원작이며, 네이버 웹소설에 연재된 신지은 작가의 작품 '뱀파이어 꽃'도 웹드라마로 제작됐다. 이처럼 웹툰, 만화, 소설, 웹소설 등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급증한 것에 대해 한상덕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미 작품화된 것들은 대중에게 검증받은 콘텐츠다. 드라마 제작 환경이 열악하고 시간 싸움이다 보니 이미 검증된 작품을 원작화하게 되는 것"이라며 "특히 만화나 웹툰은 스틸 영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영상화하기가 쉽다"고 설명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대장금''미녀는 괴로워''원스'…
드라마·영화도 다시 뮤지컬로

공연

뮤지컬 '대장금', '도로시밴드', '미녀는 괴로워', '데스노트', '팬텀'….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원작이 있는 뮤지컬이라는 점이다. 최근 들어 공연산업의 주역으로 떠오른 뮤지컬 시장이 확장되면서 원작을 활용한 뮤지컬 작품도 크게 늘고 있다.

최근 들어 뮤지컬의 원작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용되는 것은 영화다. '무비컬'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영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높은 인기 속에 막을 내린 '원스', '싱잉인더레인','프리실라', '킹키부츠', '공동경비구역 JSA', '미녀는 괴로워'처럼 관객들에게 익숙한 영화를 뮤지컬로 만든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영화와 함께 드라마 한류가 거세게 일면서 드라마를 뮤지컬로 만드는 경우도 많아졌다. '선덕여왕', '미남이시네요','대장금' 등이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원작으로 많이 활용된 소설 역시 뮤지컬에서도 원작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내에서 공연돼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오페라 유령'과 공연을 앞둔 '팬텀'은 프랑스 작가 가스통 르루의 소설 '오페라의 유령'을 원작으로 한 것이다. 로버트 요한슨 연출은 "뮤지컬 '팬텀'은 소설 '오페라의 유령'의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쓰였으나, 오페라의 유령인 에릭의 이야기에 더욱 집중돼 있다"며 "그의 삶의 숨겨진 비밀, 그리고 오페라의 유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의 희로애락이 드라마 속에 짙게 녹아 그의 인생을 이해하게 해주고 연민을 유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화와 웹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뮤지컬에서도 웹툰과 만화를 뮤지컬로 만드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동명 웹툰을 뮤지컬로 올린 '도로시밴드', 만화를 원작으로 한 '데스노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원작으로 활용한 뮤지컬이 크게 늘고 있는 것에 대해 배국남 대중문화 평론가는 "뮤지컬이 급증하면서 대중에게 검증된 스토리와 캐릭터의 원작을 활용해 작품의 완성도와 인지도를 높이려는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원작의 유명성과 인기를 뮤지컬 마케팅으로 활용하려는 제작사들이 많아진 것도 원작 활용 뮤지컬의 증가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판 커진 판권’ 10년새 두배

영상·공연화 원작료 얼마

‘타짜’부터 ‘7년의 밤’까지 인기만화·소설 원작 대세
검증된 흥행력… ‘1억+α’
“제작비 한정돼 있는데…” 비싼 금액 출혈경쟁 우려

와인스타인 형제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호빗: 스마우그의 폐허’를 배급한 워너브라더스를 상대로 7500만 달러(약 791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J.R.R 톨킨의 ‘호빗’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호빗: 뜻밖의 여정’(2012), ‘호빗: 다섯 군대의 전투’(2014) 등 시리즈물과 함께 소송의 대상이 됐다. 흥행 수익을 보장하라는 요구였다.

소설 ‘호빗’과 ‘반지의 제왕’의 권리는 와인스타인 설립의 미라맥스 소유다. 워너브라더스는 이 책을 원작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와인스타인은 흥행수입의 5%를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1998년 저작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넘겼다.

워너브러더스코리아 이인임 과장은 “원작은 성공한 작품에 한해 진행되는 만큼 거액의 원작료가 책정된다. 현재 잘나가는 작가의 영화 원작료는 1억원 수준이다. 불과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상승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 책으로 출판된 ‘그놈은 멋있었다’는 베스트셀러가 돼 2004년 ‘늑대의 유혹’으로 개봉됐다. 당시 이 영화의 원작료는 5000만원이었다.

30만권이 팔린 정유정 작가의 베스트셀러 ‘7년의 밤’은 지난해 7월 크랭크인 했다. ‘광해, 왕이 된 남자’를 연출한 추창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변호인’을 제작한 위더스필름이 공동 제작으로 참여했다. ‘7년의 밤’은 15개의 영화 제작사가 판권 경쟁을 벌일 정도로 치열했다. 영화의 원작소설들은 원작료로 5000만원을 받지만, ‘7년의 밤’은 원작료가 1억원에 책정됐고, 러닝개런티는 5%에 합의됐다.

김상호 영화평론가는 “시나리오는 영화 제작의 근간이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 좋은 시나리오의 원작에 거액의 투자가 뒷받침된다”고 말했다.

드라마 역시 원작을 많이 활용한다. ‘일지매’ ‘바람의 나라’ ‘타짜’ ‘식객’ ‘최강칠우’ 등 인기 만화와 소설을 드라마화했다. 김진 화백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바람의 나라’는 6000만원에,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최강칠우’는 1억 2000만원에 책정됐다. 최인호 작가의 ‘상도’의 드라마 원작 판권료는 5000만원이었다.

공연계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뮤지컬의 경우 창작 뮤지컬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작들이 모두 거액의 원작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동안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등 걸작 소설이 뮤지컬화됐고, JYJ 김준수가 주연하는 뮤지컬 ‘데스노트’는 만화가 원작으로 이미 영화, 드라마로 제작됐다. 공연의 경우 드라마, 영화와 달리 원작료가 회당 지급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치솟는 원작료가 제작비에 영향을 미쳐 외주 제작사들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코엔미디어 김세진 PD는 “치솟는 억대 원작료에 외주 제작사들은 휘청하고 있다. 일부 원작료가 억대까지 치솟아 기획단계에서 구입을 포기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비싼 원작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및 제작사 사이에선 검증된 원작을 잡기 위한 출혈 경쟁이 한창이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연기자협회 박유승 사무총장은 “원작의 흥행성은 확실하지만 내용을 그대로 영상화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주로 모티브만 따는 경우인데 그에 대한 비용으로 억대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제작비의 효율적 흐름을 방해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두선 기자 sun@



인기작가 누가 있나

‘미생’ 윤태호, 허영만 문하생 출신이래요

강풀 ‘순정만화’ ‘이웃사람’ 등 웹툰 골수팬 많아 영화엔 독

웹툰과 만화, 소설 등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유독 제작자의 시선을 끄는 작가의 콘텐츠들이 있다. 웹툰이 유행하기 전에는 만화가 다양한 작품의 원작이 되었다.

당시 만화가 허영만의 작품은 드라마와 영화계에서 가장 눈독 들이는 원전이었다. 그의 작품들은 정확한 고증을 거쳐 탄탄한 스토리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그는 실제로도 늘 취재수첩을 들고 다니며 메모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허영만의 작품은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됐다. IMF 이후 본격적인 악녀가 등장하기 시작한 드라마 ‘미스터 Q’, 영화와 드라마로 모두 만들어진 ‘식객’과 ‘타짜’, 정우성과 고소영을 스타로 만든 영화 ‘비트’, 한국형 슈퍼히어로를 표방한 드라마 ‘각시탈’ 모두 그의 작품이다.

허영만 작가의 문하생 출신인 윤태호 작가도 지난해 웹툰 ‘미생’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로 대박을 터뜨렸다. 윤태호 작가의 웹툰은 실감나는 묘사가 특징이다. ‘미생’을 제외하더라도 그의 이력은 만만찮다. 웹툰 ‘이끼’는 강우석 감독의 연출로 동명의 영화로 개봉되면서 340만명의 관객을 끌어모았고 웹툰 ‘내부자들’을 원작으로 한 동명의 영화는 배우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등이 출연해 현재 개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웹툰 ‘파인’도 100억원 규모의 영화로 제작될 예정이다.

웹툰 작가 강풀도 수많은 작품들이 원작으로 사용됐다. 짜임새와 스토리가 탄탄한 그의 작품은 2006년 ‘아파트’를 시작으로 ‘바보’ ‘순정만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웃사람’ 등 다수의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졌다. 그의 웹툰은 늘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았고 흥행불패의 신화를 이어왔다. 웹툰 자체만으로 이미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그의 작품의 큰 특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흥행상 독이 되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왼쪽부터 허영만·윤태호·강풀 작가.

‘미생’ 제작 PD 이재문



드라마로 ‘맞춤형 재창조’ 만화 다시보기 열풍 불러

“‘미생’의 성공이요? 고민했던 시간에 비례했죠.” 윤태호 작가의 만화를 바탕으로 한 tvN 드라마 ‘미생’은 평균 시청률 8.4%, 최고 시청률 10.3%를 기록했다. 기존 독자들의 높은 지지를 얻은 원작에 대한 부담을 안았으나, 결국 흥행과 더불어 작품 호평까지 얻어낸 드라마 ‘미생’이다. 이를 이끈 CJ E&M 이재문 제작 PD를 최근 인터뷰했다.

“정윤정 작가를 중심으로 약 1년 이상 각색 과정을 거쳤습니다. 원작을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분석을 끝냈고요. 그 다음 만화가 가진 장점들에 대해 원작자처럼 전부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종합상사나 바둑에 대해 밀접한 취재를 했지요.”

드라마 방송 이후, 원작 만화는 누적 판매부수 200만권을 훌쩍 넘겼다.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의 만족도가 원작으로 이어져 선순환 효과를 자아냈다. 그만큼 드라마 ‘미생’은 원작 만화와 구별되는 콘텐츠로서 가치를 입증 받은 것이다.

“장그래는 원래 갖고 있지 않았던 처연함이 생겼고요. 한석율은 훨씬 입체적인 역할로 튀어나왔지요. 모든 배역들이 생기가 생겼어요.. 이는 균형감을 유지하려는 태도 덕택이었습니다. 원작의 성공에 취하거나, 그 무게에 눌리지 않으면서도, 연속극이란 포맷에 맞게끔 고민했습니다.”

장그래의 처연함 톡톡튀는 한석율 원작선 볼수없어

연출의 김원석 PD가 기획과 집필 단계부터 깊숙이 개입해, 정윤정 작가와 시너지를 도모했다.

이 PD는 “이 과정에서 ‘미생’이 드라마 자체로서 매력적으로 도드라질 수 있도록 계속 초점 맞추었다”고 강조했다.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만화를 드라마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안팎으로 우려도 컸다. “(기획 당시) ‘내레이션 때문에 (드라마가) 안 될 것’이란 말도 들은 적 있죠. 내레이션이 원작엔 무척 많이 들어 있는데, 이를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내레이션을 버린다면 ‘미생’이 아니고, 모두 살리자니 드라마로 보기 힘들었지요.” 결국 제작진은 내레이션의 핵심을 살리는가 하면, 정서를 캐릭터에 투영시키는 것으로 작품의 맛을 살렸다.

이처럼 ‘미생’의 호평 이후, 업계에서 만화를 드라마로 각색하는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원작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는 이제 보편화가 됐고, 어쩔 수 없는 대세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시대적 흐름이라 할지라도, 제작진으로서 진솔하게 확신을 가져야 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원작이 이 시대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오늘날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자기 검열해봐야 합니다. 해당 작품이 ‘지금도 유효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많이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웹툰이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 범람한다고 해도 말이지요.”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당신의 비타민C는
중국산?
영국산?

자연에서 수확한 옥수수로 만든
영국산 원료만 쓰는
고려은단 비타민C1000



고객센터 080-277-0006 www.koreaeundan.com

123 SESAME STREET®

Dennis the Menace



(주)데니스 www.dennisgolf.co.kr | www.dennismall.co.kr | 02-3481-2250

학교에서 누군가에 무슨일이 생기면… **“주걱 들고 뛰어갑니다”**



MBC 드라마 ‘여자를 울려’ 김 정 은

‘로코퀸’에서 ‘아줌마’로 변신… 3년만에 컴백

극중 아이 잃고 식당운영… 학교폭력 숨은 지킴이로

‘앵그리 맘’과 비슷?… 푸근·담대함으로 차별화

감독·작가가 드림팀… 액션·모성애 연기 부담 극복

‘로코퀸(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퀸)’ 김정은이 3년 만에 모성애 깊은 엄마로 돌아왔다.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열린 MBC 새 주말드라마 ‘여자를 울려’ 제작발표회에는 KBS 2TV 월화드라마 ‘울랄라 부부’ 이후 3년 만에 안방 극장에 복귀하는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정은은 극중 전직 강력반 여형사 정덕인 역을 맡았다. 정덕인은 하나뿐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죽은 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들이 다니던 학교 앞에서 간이식당을 하면서 평소에는 인심 좋은 밥집 아줌마로, 위기의 순간에는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는 아줌마 홍길동으로 활동하는 인물이다. 김정은에게 ‘여자를 울려’의 출연은 도전이다. 아이를 잃은 모성애 절절한 엄마의 역할도, 전 강력반 여형사 연기를 위한 액션신도 그에게는 모두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액션과 요리는 많이들 힘들 거라고 말씀해 주신다. 사실 아이를 잃은 엄마의 연기를 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다”며 “어찌 낳아 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 깊은 마음을 알 수 있겠냐. 앞으로 해나가면서 제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실제 아이는 없지만 제 나이 또래의 여자들이 겪는 경험 중 아이를 낳는 게 최고의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기에 부러워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연기로나마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게 의미 있고 좋은 일인 것 같다”며 “행복하지만 어렵게 연기하고 있다”고 소감을 덧붙였다.

김정은은 극중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위해 나서는 ‘아줌마 홍길동’으로 분한다. 이 모습은 현재 방송 중인 MBC 수목드라마 ‘앵그리 맘’의 김희선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러한 지적에 김정은은 “‘앵그리맘’을 초반에 봤다. 저희 드라마와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 왕따, 학교폭력 등의 주제가 지금 이시기에 공교롭게 같이 회자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어서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얘기를 보여 드리면서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앵그리맘’ 속 김희선 캐릭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하는 학생조차도 감싸안는 포근함과 담대함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출을 맡은 김근홍 감독은 “‘앵그리맘’의 김희선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딸을 둔 직접적 피해자이지만 ‘여자를 울려’의 김정은은 당사자인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기 때문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3년 만의 안방극장 복귀이기에 드라마 시청률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존재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작품에 대한 자신감으로 그 부담감을 극복했다. 김정은은 “오랜만에 작품을 해서 그런지 버릇이 생겼다. 자꾸 의심하는 버릇이다. 제가 찍어놓고 ‘괜찮냐. 괜찮은가요?’라고 물어본다”며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의심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괜찮다. 시청자들이 TV 틀어놓기만 해 주시면 아마 눈을 떼지 못하실 거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여자를 울려’는 ‘이산’ ‘구암허준’의 연출을 맡은 김근홍 감독과 ‘호박꽃순정’ ‘금나와라 뚝딱’을 집필한 하청옥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아들을 잃은 한 여자가 자신의 삶을 꿋꿋이 살아가는 과정과 그를 둘러싼 재벌가 집안을 배경으로 인물들의 사랑과 갈등, 용서를 그린 드라마다. 18일 첫 방송된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미안하다! 대세라서!



일러스트 사유진 기자 yjsa2018@

유병재표 ‘B급 감성’ 초인의 힘 발휘
‘초인시대’ 첫회 2% 육박… 대세 입증

유병재(27)의 방송계의 선전이 예사롭지 않다. 예능 집필을 통해 웃음을 선사했던 방송작가 유병재가 최근 방송 전면에 나서 입담을 과시하더니, 직접 연기까지 하고 있다. 바로 tvN 드라마 ‘초인시대’를 통해서다. 앞서 MBC ‘라디오스타’ ‘무한도전’, tvN ‘현장토크쇼 택시’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다른 캐릭터를 선보여온 그다.

2011년 싱글앨범 ‘니 여자친구’를 통해 연예계에 발을 내디딘 유병재는 페이크 다큐멘터리를 표방한 엠넷 ‘유세윤의 아트 비디오’에 출연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B급 코미디로 눈도장을 찍은 유병재는 tvN ‘SNL 코리아’ 시리즈에서 작가로 활동했다. 이 중 ‘극한직업’ 코너에서 연기에 나선 그는 시청자와 네티즌의 폭발적 호응을 이끌어냈다. 스타를 보조하느라 갖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매니저로 분한 유병재의 모습이 웃음을 안긴 것이다. 실제 작가 출신으로 신선한 얼굴이라는 점과 보잘것없고 변변치 못한 태도를 지닌 특유의 캐릭터 연기가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하게 했다.

‘SNL 코리아’를 통해 호흡을 맞추며 그의 가능성을 알아본 CJ E&M 안상휘 CP는 ‘초인시대’의 기회를 적극 열어줬다. 그가 집필과 연기를 도맡은 ‘초인시대’ 첫 회는 평균 시청률 1.9%(닐슨코리아 제공, 유료플랫폼 기준)를 기록해 향후 활약을 예고했다. 안상휘 CP는 “‘SNL 코리아’ 시리즈 당시 그의 글을 보면 드라마적 감정 흐름이 탁월했다. 이에 권유를 해서 당시 팀 그대로 ‘초인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유병재가 주로 그리는 B급 코미디는 TV 속 기성의 것과 다르다. 일명 ‘웃픈’(웃기고 슬픈) 코미디로서 페이소스를 지닌다. 대학생활의 공감대나 삼포세대를 대변하는 그의 글과 연기는 일회성 웃음에 그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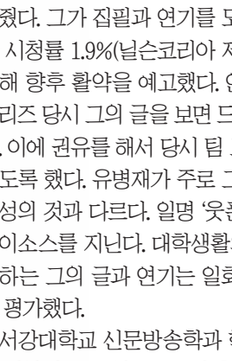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생으로 휴학 중인 유병재는 대학생 또는 청춘으로서 온전히 자신이 직접 겪거나 느낀 감정을 밑바탕으로 코믹함을 살려낸다. 그에 웃음이 마냥 우습지 않고, 짠하고도 날카롭게 박히는 이유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세계영화 한차림… 전주국제영화제 30일 개막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5)가 오는 30일 개막해 5월 9일까지 10일 동안 ‘영화의 거리’ 및 전주종합경기장, CGV전주 효자 등에서 치러진다. 개막작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감독 아리엘 클레이만의 ‘소년 파르티잔’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위플래쉬’와 함께 선댄스영화제가 주관하는 장편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완성돼 올해 선댄스영화제에서 최고 화제작으로 각광을 받았다. 이상용 프로그래머는 “아리엘 클레이만은 선댄스영화제에서 다수의 단편작품으로 사랑받은 감독으로, ‘선댄스 키드’라고도 불린다. 그의 첫 장편 데뷔작을 선보이게 되어 기대된다”며 개막작 선정 소감을 밝혔다.

프로그래밍의 특징과 관련해서는 상영 편수의 증가와 역대 최대 좌석 확보가 눈에 띈다.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은 전 세계 47개국 200편으로 작년에 비해 19편이 증가했다. 200편 이상의 상영작 수는 11회 영화제 이후 처음이다. 상영관 수는 개막식 및 시상식, 대규모 야외 상영이 이뤄지는 전주종합경기장과 올해부터 상영관으로 편입된 CGV전주 효자를 비롯해 총 6개 극장 17개관이다. 작년 단편에서 장편으로 전환한 이후 올해에는 개칭을 통해 ‘전주’라는 브랜드를 강조했다. 새롭고 창의적인 작가와 영화를 발굴, 조명하는 프로그램에도 주력, ‘스페셜 포커스’ 섹션에 아르헨티나 감독인 마르틴 레트만 회고전, 2000년대 후반 이후 세계영화계의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리스 뉴웨이브’ 영화들에 대한 특별전 등을 기획했다.



김승수 조직위원장은 “작지만 단단하게 자란 전주국제영화제가 시민들과 함께 재도약하는 영화제로 거듭날 것”이라며 올해 영화제의 포부를 밝혔다. 고석만 집행위원장은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대중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통해 취향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영화제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800만 관중’ 목표, 시작은 좋았는데… 벌써 시들?



프로야구 역대 관중 현황

시즌	관중 수(괄호안은 경기당 평균)	구단 수
2014년	6,509,915(11,302)	9
2013년	6,441,945(11,184)	9
2012년	7,156,157(13,451)	8
2011년	6,810,028(12,801)	8
2010년	5,928,626(11,144)	8
2009년	5,925,285(11,138)	8
2008년	5,256,332(10,429)	8

구단별 관중 현황표

(61경기 기준. 괄호 안은 경기당 평균 관중수)

순위	팀명	경기수	홈경기	관중수(4/12일)	전년도 동기 관중수	전년도 관중수	홈구장	수용인원
1위	삼성	13	8	57,265 (7,158)	61,435(7,679)	505,045(7,891)	대구	10,000
2위	SK	12	4	25,847 (6,461)	80,140(20,035)	829,822(12,966)	문학	26,000
3위	NC	11	6	40,740 (6,790)	40,127(6,688)	467,033(7,297)	마산	11,000
4위	롯데	12	7	98,323 (14,046)	88,546(12,649)	830,820(12,982)	사직	27,500
5위	KIA	12	5	58,866 (11,773)	75,302(15,060)	663,430(10,366)	광주	27,000
6위	두산	12	5	61,786 (12,357)	120,462(24,092)	1,128,298(17,630)	잠실	26,000
7위	LG	13	8	147,130 (18,391)	125,204(15,060)	1,167,400(18,241)	잠실	26,000
8위	한화	12	5	27,009 (5,401)	48,043(9,609)	475,126(7,424)	대전	13,000
9위	넥센	12	8	43,592 (5,449)	55,568(6,946)	442,941(6,921)	목동	10,500
10위	KT	13	5	53,315 (10,663)	0	0	수원	25,000
총계				613,873 (10,063)	694,827(11,391)	6,509,915(11,302)		

프로야구 구단별 관중 현황

김성근 감독 복귀·신생 KT 보자
개막전 4개 구장 ‘매진 행렬’ 반짝
팬들 “TV·인터넷 중계…” 감소세
10일 목동 관람객 1768명 ‘최소’
넥센 홈경기 작년보다 1만명 ‘뚝’

800만 관중 시대를 향한 프로야구 각 구단의 관중 모시기 경쟁이 뜨겁다.

한국프로야구연맹(KBO)은 2015시즌 관중 목표를 800만으로 잡았다. 지난해 650만 관중을 돌파한 KBO리그는 KT의 1군 리그 합류로 지난해(128경기)보다 16경기가 늘어난 총 144경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800만 관중 돌파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도 없다. 유료화로 진행된 일부 시범경기(대전·창원·목동·잠실 LG 주말경기)도 매진을 기록할 만큼 야구팬의 뜨거운 열기를 가늠케 했다.

그러나 올 시즌 KBO리그는 총 61경기가 진행된 14일 오전 기준 61만3873명이 경기장을 찾아 지난 시즌(69만4827명)보다 8만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LG와 롯데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단이 지난해보다 저조한 흥행 성적표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열린 개막전에선 4개 구장이 매진을 기록했다. 목동, 사직, 대구, 광주 구장에 만원 관중이 들어차 총 9만3746명이 개막전을 직접 지켜봤다. 역대 개막전 최다 관중 3위 기록이다.

김성근(73) 감독의 복귀로 관심이 쏠린 한화 이글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대전경기는 시작 1시간 30분 전 1만2500석이 모두 팔려 시즌 첫 매진을 기록했다. 사직구장에서 펼쳐진 롯데 자이언츠와 신생 KT 위즈의 경기도 2만7500명이 몰렸다. 삼성라이온즈는 대구구장에 1만명을 가득 채워 16년 연속 홈 개막전 매진 기록을 이어갔다. KIA챔피언스필드에도 2만2000명의 구름 관중이 몰렸다. 매진행진에 합류하지 못했지만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가 열린 잠실구장도 2만1746명이 경기장을 찾았다.

그러나 개막전을 가득 채웠던 관중은 점차 줄어들었다. 10일 열린 넥센과 KT의 목동 경기에선 1768명만이 경기를 관람해 이번 시즌 최소 관중을 기록했다. KBO가 야심차게 진행한 선데이 나이트 베이스볼(특정 경기만 일요일 야간경기 지정) 첫 경기가 열린 5일 SK전도 3081명에 그쳤다. 넥센은 올해 치러진 8번의 홈경기에서도 4만3592명에 그쳐 지난 시즌(5만5568명)보다 1만명 가까운 감소세를 보였다.

한화는 평균 관중 5401명으로 대전 한화이글스파크 수용인원 1만30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 5차례의 홈경기 총 관중도 2만7009명으로 지난해(4만8043명)보다 2만명 이상 적다. KIA는 평균 1만1773명(5경기)으로 지난해(1만5060명)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SK는 평균 6461명(4경기)으로 역시 지난해(2만0035명)보다 크게 줄었다.

이번 시즌 두산 홈경기를 찾은 관중은 평균 1만2357명(5경기)으로 전체 3위에 해당되지만 전년도 홈 5경기 평균(2만4092명)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LG(8경기·평균 1만8391명)와 롯데(7경기·평균 1만4046명)는 흥행을 이어갔다. 특히 LG는 11일 두산과의 잠실 라이벌전에서 2만6000석 매진을 기록, 올 시즌 KBO리그 최대 흥행카드로 떠올랐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삼성(8경기 7158명·지난해 7679명)과 NC(6경기 6790명·지난해 6688명)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고, 개막 후 11연패를 당한 KT는 평균 1만663명(5경기)의 응원을 받아 선방했다. 전체 구단 경기당 평균 관중 수 1만63명보다 많은 팬이 경기장을 찾았다.

KBO는 구장을 찾는 사람이 줄어든 원인에 대해 “구장을 직접 찾기보다 TV, 인터넷 중계 등 다양한 경로로 관람하는 팬이 많아졌다. 실제로 네이버 스포츠의 동시 접속자 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양준혁 야구해설위원 인터뷰

“1000만 돌파 과제는 첫째, 선수 기량 발휘 둘째, 팬마케팅 필요”

프로야구 1000만 관중시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난해 프로야구 관중 수는 650만명이었다. 10구단 시대에 1000만 관중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각 구단이 100만명의 관중을 동원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당 평균 관중 수인 1만1302명보다 많은 1만4000여명이 야구장을 찾아야 달성 가능한 수치다.

양준혁(46) 야구해설위원은 “관중 수 1000만 달성을 위해서는 KT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의 활약이 뒷받침돼야 한다. 팬들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도 필요하다”고 입을 열었다. 야구장을 찾는 관중은 응원하는 팀의 활약을 기대한다. 그는 “삼성, NC, SK 말고는 지금 제 기량을 발휘하는 구단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 시즌 KBO리그는 상위권 세 팀(삼성·SK·NC)을 제외한 나머지 구단은 아직까지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김성근 감독(73)이 새롭게 사령탑을 맡아 야구팬의 관심이 집중된 한화 이글스는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고, 신생팀 KT 위즈는 개막 후 11연패 수렁에 빠져 고된 신고식을 치렀기 때문이다.

양 위원은 또 “KT가 최소한 100패는 면해야 어느 정도 야구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런데 44승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KT는 11일 경기에서 첫 승을 시작으로 2연승을 거둬 탈꼴찌 기대감을 높였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유네스키 마야 | 에릭 테임즈 | 앤디 마르테 | 크리스 옥스프링 | 브래드 스나이더 | 나이저 모건

마야, 노히트 노런… 테임즈, 사이클링 히트

시즌 초반 외국인 선수 성적표

한화 모건은 타격부진 2군행 ‘굴욕’

시즌 초반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들의 엇갈린 성적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유네스키 마야(34·두산 베어스)와 에릭 테임즈(29·NC 다이노스)는 한국프로야구(KBO)리그 호성적의 주역이다. 마야는 9일 넥센전에서 노히트 노런을 달성했다. KBO리그 통산 12번째다. 마야는 이번 시즌(이하 14일 오전) 22이닝 동안 23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6점밖에 내주지 않았다.

테임즈는 9일 KBO리그 통산 17번째 사이클링 히트 주인공이 됐다. 이번 시즌 테임즈는 7홈런을 포함해 16안타 19타점, 타율 0.421로 막강한 화력을 뽐냈다. 특히 테임즈는 중심 타선이지만 발빠른 야구(2도루)를 선보여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크리스 옥스프링(38)은 KT 위즈의 시즌 첫 승을 이끌었다. 앞선 두 차례의 선발 등판에서 기대 이하의 투구를 보였던 옥스프링은 11일 넥센전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내야수 앤디 마르테(32·KT 위즈)도 11연패의 늪에서 팀을 구해내며 맹활약했다. 마르테는 52타수 17안타(3홈런) 10타점으로 KT의 타선에서 분전하고 있다. 조범현(55) 감독은 마르테가 해결사로서 KT 타선의 화력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반면 LG에서 넥센으로 이적한 브래드 스나이더(33)의 부진은 심각한 수준이다. 33타수 홈런 없이 6안타(타율 0.182)에 그치고 있다. 9경기에 출전해 네 차례나 무안타를 기록했고, 총 36타석에서 12번이나 삼진을 당해 ‘삼진머신’이란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생겼다. 염경엽(47) 감독은 특단의 조치로 스나이더에게 3일간의 휴식을 줬다. 염 감독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타격감이 살기 힘들다. 한 선수를 망치는 일이다. 모두 털고 경기에 나서길 바라는 의미에서 준 휴가”라고 설명했다.

개막전에서 4안타를 폭발시키며 기대를 모았던 나이저 모건(35·한화 이글스)은 주춤하고 있다. 모건은 독특한 T 세리머니와 화려한 플레이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최근 부진한 성적으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되기도 했다. 이번 시즌 모건은 33타수 9안타(타율 0.273) 5타점을 기록 중이다. 김성근(73) 한화 감독은 “타격이 부진하다. 공을 너무 못 친다”며 모건의 2군행 이유를 밝혔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두툼해진 '웹소설'

작년 시장규모 200억…올해 400억 예상
네이버 정식연재 작품 한해 조회수 36억
'조아라' 스타작가 월수익 1500만원 이상
신인 발굴 매진…상금 건 공모전도 열어
웹툰·드라마 등 2차 저작물로 재탄생도
MBC드라마 '미스터백'은 '올드맨' 원작

1990년대 중반 PC통신으로 인해 등장한 웹소설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부터 자투리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스낵 컬처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2013년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웹소설에 뛰어들면서 시장은 크게 확대됐고, 지난해 다음카카오페이지까지 가세하면서 웹소설 시장은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KT경제연구소는 올해 웹소설 시장 규모를 지난해 200억원에서 2배 성장한 400억원 규모로 예상했다. 웹소설 연재 사이트 조아라의 2015년 1분기 매출액은 25억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5%(2014년 1분기 13억1000만원 매출) 성장했다. 또 다른 웹소설 연재 사이트 문피아도 3월 월매출액 8억원대를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700%(2014년 3월 1억 3000만원)에 가까울 정도로 놀라운 매출 성장을 보였다. 웹소설의 성장을 이끈 네이버 역시 2013년 1월 15일 출시된 이후 2년 동안 109명의 정식 연재 작가와 약 11만명의 아마추어 창작자가 네이버 웹소설에 작품을 게재했다.

네이버 웹소설 정식 연재 작품은 지난해 총 36억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웹소설은 다양한 장르를 짧은 시간 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아라가 발표한 장르분포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회수 기준 패러디가 29%로 1위를 차지했고, 퓨전(26%)과 판타지(17%)가 2, 3위로 뒤를 이었다. 에브리북의 경우 19금 로맨스가 강세를 띠었으며 인기 작가의 로맨스물이 그 뒤를 이었다.

이용 형태를 보면 조아라와 에브리북 모두 모바일 사용자가 압도적이었다. 조아라와 에브리북 모두 모바일 이용자가 80% 이상의 비율을 차지했으며 오후 6시~새벽 2시가 이용자 시간대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퇴근 후 이동시간부터 취침 전까지 웹소설을 즐겨 읽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듯 시장이 커지고 열기가 뜨거워지자 업체들은 작가 발굴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5000만원 상금을 걸고 웹소설 공모전 '러브and히어로'를 13일부터 진행 중이며, 에브리북은 '나는 작가' 코너를 통해 1년 동안 1000만원의 상금을 걸고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아라도 노블레스 카테고리에 77일 동안 작품을 연재하면 매달 베스트 지수에 따라 정산받게 해 주는 '노블레스 신규 작품 77 페스티벌'을 통해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누구나 작품을 올릴 수 있으며 이후 심사를 통해 챌린지리그, 베스트 리그, 오늘의 웹소설 등 상위 리그로 승격된다. 오늘의 웹소설에 작품을 올리게 되면 고정 수입이 발생된다. 네이버에서는 작년 한해 동안 약 2억8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작가도 생겼으며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작가도 7명이나 됐다. 조아라에서 활동 중인 스타작가의 경우도 월 수익 1500만원 이상을 올리고 있으며 작년 기준 최고 수익 작가는 월 1700만원을 기록했다. 웹소설이 웹툰 못지않게 2차 저작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지난해 방송된 MBC 드라마 '미스터 백'은 다음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된 이조영 작가의 웹소설 '올드맨'이 원작이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도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웹드라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네이버는 자사에서 연재된 웹소설 '뱀파이어의 꽃'으로 지난해 웹드라마를 만들었다. 에브리북은 웹소설 '나를 사랑한 아이돌'을 웹툰으로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조아라에서 연재된 웹소설 '다운(Down)'이 비주얼노벨로 출시됐다. 비주얼노벨이란 그래픽과 사운드가 이야기와 결합된 보고 듣는 입체 소설이다.

조아라 하승종 콘텐츠사업팀장은 "종이책 분야는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웹소설 시장은 스낵컬처의 대중화로 인해 오히려 성장하고 있고 드라마나 영화의 원천 소스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2차 저작물과 관련해 많은 업체들이 웹소설 시장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며 "웹소설 시장에서 2차 저작물은 이제 시작 단계이며 드라마나 영화는 물론 웹툰, 비주얼노벨 등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책의 수도' 인천으로 오세요"

유네스코, 세계 15번째로 지정
북콘서트, 작가·시민의 대화 등
23일 개막… 다양한 행사 마련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세계 책의 수도 관련 중앙기자 간담회'에서 책의 수도 인천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청

인천시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네스코가 인천을 2015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한 배경과 23일 열리는 개막식을 비롯해 한 해 동안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유 시장은 "책의 수도 사업으로 독서 문화가 정착하려면 독자와 출판사, 저작권자와 도서관의 참여와 관계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독자와 시민 없이는 독서 문화를 제대로 넓힐 수 없다. 작가와 대화시간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늘려 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세계 책의 수도 비전을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BOOKS FOR ALL)'으로 정하고, 슬로건은 '읽어요, 그럼 보여요'로 3대 목표는 '책 읽는 도시, 창작 출판이 편한 도시, 인문적 가치를 창조하는 도시'로 정했다.

인천시는 개막 주간에 맞춰 22일에는 김중미 작가가 송도컨벤시아에서 북 콘서트를 열고, 23일에는 이문열 작가와 시민의 대화가 마련된다. 24일에는 문화심리학자 김정운씨가 아라뱃길에서 시민들과 유람선을 타고 책에 대해 이야기한다. 10월 21~23일에는 전국도서관대회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며, 11월 12~15일에는 제1회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이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유 시장은 "팔만대장경이 강화에서 제작됐고, 외규장각·정족산 사고 등 우리나라 기록문화가 탄생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인천을 유네스코가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인천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책으로 하나 되고, 책을 통해 더 큰 세상을 구현하자"고 말했다.

책의 수도는 유네스코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월23일)을 기념하고 독서와 저작권 진흥을 위해 선정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2013년 7월 19일 유네스코가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함에 따라 세계에서 15번째, 아시아에선 3번째,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됐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차줌마·허세프…나도 따라해볼까"

먹방·쿡방 예능 대세… 요리도서 판매량 작년보다 16% 늘어

과거 맛집 정보를 소개하던 음식 프로그램에서 '먹방'으로, 그리고 요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쿡방'으로까지 요리 예능이 진화됐다. 3월 종영한 tvN '삼시세끼-어촌편'이나 현재 방송 중인 JTBC '냉장고를 부탁해'등 요리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요리 관련 도서도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반디앤루니스는 최근 종영된 tvN '삼시세끼-어촌편' 방영기간(1월23일~3월13일) 동안 요리 관련 도서 판매가 전년 대비 16.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요리전문가 겸 외식경영전문가인 백종원이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소개한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 52'는 백종원이 출연했던 '마이 리틀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2월22~28일) 이후 판매량이 45.3% 상승했다. 이 외에도 '문성실이 가장 아끼는 한 그릇', '아내의 식탁' 등도 요리 관련 서적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랭킹됐다.



반디앤루니스 가정생활요리 분야 어현주 MD는 "최근 한 번을 먹더라도 제대로 된 한 끼를 차려 먹는 집밥 요리가 하나의 트렌드화돼 가는 추세"라면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가정식 레시피를 소개한 책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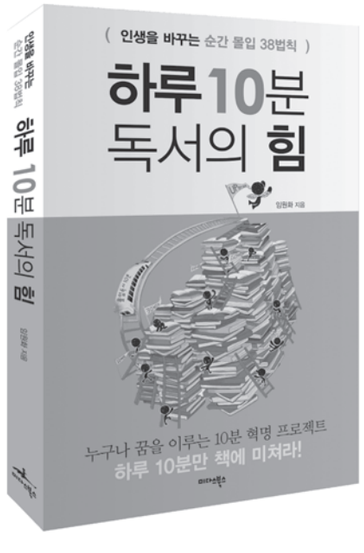
또한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발표한 3월 셋째 주 요리 베스트셀러 순위를 살펴보면 '반찬이 필요 없는 밥 요리'가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병 속에 담긴 사계절'이 올랐다.

김수연 예스24 가정살림 분야 MD는 "요리 예능의 뜨거운 인기에 힘입차승원이 만들었던 오렌지 마말레이드 잼이나 빵은 잼이나 빵을 만들어 보는 '병 속에 담긴 사계절' '제프리 허멀먼의 브레드' 등의 도서 인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하루 10분만 책에 미쳐라!

평범한 당신을 성공의 프로로 만드는 10분의 마법



당신의 멈춰 있는 삶을 잠금 해제하라!

당신은 하루 24시간 중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10분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는가? 하루 10분은 1년에 약 7.6일에 해당한다. 이 시간이 바로 당신의 현재와 미래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키워드다. 안철수, 이건희, 빌 게이츠, 하워드 슐츠, 워런 버핏, 스티븐 스필버그 등 이 시대의 뛰어난 리더들은 이 위대한 10분의 힘을 알고 실천한 인물들이다.

인생 역전의 비밀, 이제 순간 몰입 38법칙에서 찾아라!

(인생을 바꾸는 순간 몰입 38법칙)

하루10분 독서의 힘

임원화 지음 | 336쪽 | 13,800원

생산적인 자기경영으로 성공의 지름길을 안내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필독서!



midasbooks@hanmail.net www.midasbooks.net 미다스북스

Market news

'곳간에서 인심난다'… 증시 날자 민원도 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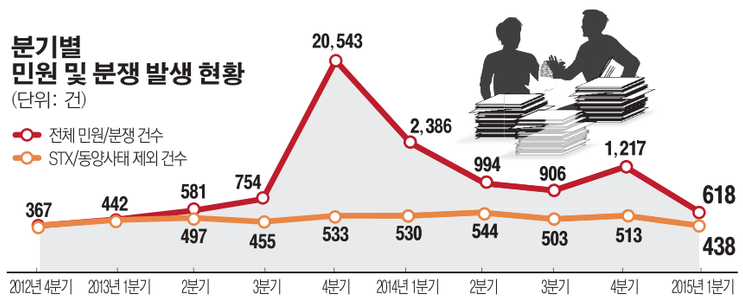
한국거래소, 올 1분기 증권·선물업계 분석
민원·분쟁 총 618건… 전분기보다 49.2% ↓

주식시장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증권·선물업계의 민원과 분쟁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6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1~3월) 증권·선물 업계의 민원·분쟁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9개사에서 총 618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해 전분기(1217건) 대비 49.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STX팬오션, 동양그룹 계열사 등과 관련된 대량 민원이 줄어든 영향이 컸지만, 이를 제외한 일반 민원·분쟁사건(438건)만으로도 14.6%나 감소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민원·분쟁 유형은 투자 대상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부당권유'였다. 부당권유는 전체 민원·분쟁의 35%(215건)을 차지했다. 부당권유 민원·분쟁 발생 건수는 지난해 4분기 737건에서 올해 1분기 215건으로 71% 줄었다.



이어 간접상품 22%(133건), 전산장애 7%(42건) 유형 순으로 조사됐다. 간접상품과 전산장애 관련 민원·분쟁은 전분기 대비 각각 17.4%, 4.5% 감소했다.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펀드 및 ELS 수익률 개선으로 분쟁 접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황우경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 팀장은 "최근 증시 상승으로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HTS(홈트레이딩시스템)과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분쟁 예방을 위한 증권·선물회사의 자발적인 노력과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

이스트스프링 '다이나믹 재팬 펀드' 수탁고 100억원 돌파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신규 출시한 일본 펀드가 대박 기미를 보이고 있다. 16일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지난달 23일 출시된 이스트스프링 다이나믹 재팬 펀드의 수탁고가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16일 기준, 이스트스프링 다이나믹 재팬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펀드 수탁고가 122억원을 기록하며, 출시 약 3주 만에 120억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다.

업계 일본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지난해 말 2694억원에서 16일 현재 3209억원을 기록하며, 연초 이후 약 515억원이 증가했다.

이스트스프링 다이나믹 재팬 펀드는 시가총액이나 시장의 테마에 추종하지 않고 약 30~50개의 투자 확신이 높은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에 출시된 이스트스프링 다이나믹 재팬 펀드는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Eastspring Investments Japan Dynamic Equity Fund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Fund of funds) 구조로 운용된다. 일본 엔화 표시 자산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해 원화와 엔화 간 환헤지를 통해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한다.

예병용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은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투자지역으로 자금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중국 본토 인덱스 RQFII 펀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RQFII 제도를 활용해 중국 본토 대표지수인 CIS300을 추종하는 '신한 BNPP 중국 본토 인덱스 RQFII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을 출시한다. 이 펀드는 연초 이후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본토의 주식들에 투자하는 펀드로 CSI300 지수의 성과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다.

'금융종합소득세 신고' 대신해 드려요

한화투자증권, 4월 20일~5월 15일 실시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이번 서비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작년 한 해 금융소득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대행해 준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 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작년 11월 '차명거래금지법' 시행과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종전 30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 자녀 1500만원→20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금융자산 분산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대책과 자산관리를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변동환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팀 상무는 "한화투자증권은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가업 승계, 세대간 부 이전 등의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1분기 채권·CD 자금조달 80조



증권종류별 등록발행 현황 (단위: 조원, %)

종류	201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5년 1분기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직전분기 대비 증감률
채권	63.6	70.5	71.8	88.0	75.6	18.9	-14.1
CD	4.1	6.5	2.9	4.7	4.7	14.6	0.0
합계	67.7	77.0	74.7	92.7	80.2	18.5	13.5

지난해보다 18.5% 증가세
파생결합채·SPC채는 감소

올해 1분기 채권 등 등록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가 80조200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1분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등록발행시스템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이 같은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전 분기 대비로는 13.5% 감소했다.

채권의 등록발행 규모는 약 7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 직전 분기(88조원) 대비 14.1% 감소했다. CD의 경우 약 4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으며 직전 분기와는 동일한 수준으로 등록 발행됐다.

종류별 등록발행 비중은 △특수채(35.2%) △일반회사채(16.6%) △금융회사채(16.3%) △파생결합사채(8.5%) △SPC채(6.0%) △CD(5.9%) △국민주택채(5.7%) △지방공사채(3.4%) △지방채(2.6%) 순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금융회사채, 일반회사채, 지방채, 특수채 등은 모두 증가 추이를 보인 반면, 파생결합사채와 SPC채는 감소했다.

금융회사채는 올 1분기 13조1096억원이 등록 발행돼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직전 분기보다는 31.1% 줄어들었다.

일반회사채는 13조2731억원이 등록 발행되며 전년 동기 대비 35.7% 증가했다. 직전 분기 대비 9.0% 늘어났다. 특히 P-CBO의 기초자산은 1분기에 209개 종목 2549억원이 발행됐다. P-CBO는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이다.

지방공사채의 경우 등록발행 규모가 2조74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0% 늘어났다. 직전 분기 대비는 무려 92.9% 증가했다.

특수채는 28조2266억원의 등록발행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 직전 분기 대비 11.0% 감소했다.

반면 SPC채의 경우 4조7760억원의 등록발행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 직전 분기 대비 23.8% 줄어들었다. 파생결합사채는 6조7938억원이 등록 발행되며 전년 동기 대비 6.8%, 직전 분기 대비 44.3% 감소했다. CD의 경우 4조6600억원의 등록발행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 직전 분기와는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코리아나, 앰플 500% 성장 예상

오르시아 앰플 없어서 못팔아… 中 매출 급증 기대
OEM 계열사 비오코스 자동화 기계 추가 도입 계획



코리아나 주가 추이
단위: 원
최고 8610
8000
4000
최저 3220
1월19일
4월13일

코리아나화장품의 오르시아 앰플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다. 이에 따라 관련 매출도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17일 코리아나 관계자는 "중국 시장 내 오르시아 앰플 제품 인기가 높아지면서 비오코스는 작년 기준 500%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비오코스는 코리아나화장품의 ODM·OEM 전문 계열사로 오르시아 앰플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 내 인기로 인해 현재 오르시아 앰플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주요 화장품 도소매 사이트에서는 오르시아 앰플을 주문해도 원하는 물량을 받을 수 없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특히 오르시아 28데이즈 앰플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비오코스 공장에 추가적으로 자동화 기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자동화 기계를 설치해 오르시아 앰플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군을 더 빠르고 많이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리아나화장품 대표브랜드 '라비다' 에센와 고급 한방브랜드 '자인' 역시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라비다 파워셀 에센스는 지난해 말 중국 내 권위있는 패션뷰티 매체 PCLady로 부터 '2014 안티에이징 에센스 최고 인기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제조, 산성앨엔에스, 코스맥스, 코스온 등 화장품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덕분이다.

코리아나 역시 중국 시장 기대감으로 지난 한달 간 2배 가까이 주가가 급등했다. 코리아나는 오르시아 앰플 등 중국 시장 인기 제품을 통해 올해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코리아나화장품은 중국에서 해마다 높은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으로 중국 판매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리아나 중국 천진법인인 코리아나화장품천진유한공사는 지난해 공장 신축에 들어갔다. 올 중순께 완공될 예정이다. 코리아나천진유한공사는 중국 현지에 공장을 운영하면서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및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대원화성, 베트남서 DMF 정제사업 확대 나선다

현지법인 대원케미칼비나
폐기물처리 라이선스 취득 예정

대원화성이 베트남에서 정제사업 확대에 나선다.

대원화성은 17일 베트남 현지법인인 대원케미칼비나(DAEWON CHEMICAL VINA) CO.,LTD.)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르면 이번달 중 환경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라이선스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베트남에서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에 대해서 DMF 정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지역별로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는데 하노이에서 라이선스를 부여받을 경우 전국구 단위의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

대원화성 측은 이번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베트남에서의 정제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제사업은 합성피혁 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산업으로써, 합성피혁 원단 제조 가공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용제(폐DMF)를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용제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대원화성은 지난 1977년 국내에서 최초로 관련 사업을 시작했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 정제사업은 대원화성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오던 사업 부문이었다. 하지만 합성피혁 원단을 제조 가공하는 업체들이 대거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사업 비중이 다소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베트남에서의 DMF 정제사업을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향후 기존 폐DMF 정제처리 뿐만 아니라 타용제 정제처리 사업으로 영업분야를 확대해 매출 및 수익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원화성 관계자는 "올해 제품 포트폴리오 개편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성장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대원비나의 경우 DMF 정제사업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젬백스테크, 스웨덴 '노바헵' 품고 바이오사업 박차

지분 42% 보유 최대주주로
재생의학 분야 독보적 기술

젬백스테크놀러지가 스웨덴 바이오기업 '노바헵(NovaHep)'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바이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젬백스테크놀러지는 16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노바헵의 지분 인수를 위한 조인식을 개최하고 경영권 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젬백스테크놀러지는 노바헵 최대주주 스테판 에릭반유 알덴홀딩스캐피탈 회장으로부터 노바헵 주식 9만392주를 20억원에 인수하며 지분 42% 가량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노바헵은 글로벌 줄기세포 연구기관으로 알려진 스웨덴 카롤린스카 왕립의학연구기관에서 지난 2005년 분할해 설립된 바이오기업이다. 재생의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젬백스테크놀러지 주가 추이
단위: 원
5,590
5,000
2,500
2013년 2014년 2015년 4월 17일

젬백스테크놀러지가 이번 인수에 앞서 주목한 노바헵의 독점 기술은 환자의 골수 또는 말초 혈액에서 채취한 자가세포를 이용해 혈관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노바헵에서 개발된 혈관은 세포 침투 불가능, 혈전증에 대한 내성, 생체 적합성, 내구성, 감염에 대한 내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심혈관 질환, 만성정맥 부전, 간문맥성 고혈압 등과 같은 혈관 질환 치료에 해결책 및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다. 노바헵은 올 하반기에 노르웨이에서 만성정맥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노바헵은 자가세포를 이용해 제조한 정맥을 총 3명의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이식을 한 사례가 있다"며 "이식후 2~3년 동안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했고 확인된 이식 거부 반응은 없었으며 삶의 질 향상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노바헵은 이 기술에 대해 케이에스씨비의 계열사인 한국줄기세포뱅크와 아시아 관권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이를 통해 향후 아시아 지역에 진출할 계획이다.

김상재 젬백스테크놀러지 대표는 "이번 인수는 상업화가 가능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며 "세계적인 상업화에 대한 노력을 다함과 더불어 한국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줄기세포치료제로 선보여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오로라월드, 이탈리아 업체와 애니메이션 함께 만든다

Mondo-TV와 '유후와 친구들'

오로라월드가 이탈리아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체인 Mondo-TV와 '유후와 친구들' 애니메이션 시즌-Ⅳ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프랑스의 깐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 최대 영상 콘텐츠 마켓인 'MIP-TV(밉티비) 2015'에 참여중인 오로라월드는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Mondo-TV와 '유후와 친구들'의 적극적인 활용과 보급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로라월드는 이번 'MIP-TV(밉티비) 2015' 참여를 통해 '유후와 친구들' 캐릭터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현재 전시회 Main Entrance에는 '유후와 친구들' 캐릭터가 배너로 장식됐다.

이 외에도 오로라월드는 Mondo-TV 부스에 '유후와 친구들' 포스터 게시, 전시회 기간 중 '유후와 친구들' 캐릭터 로드 이벤트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중국의 한국 화장품 사랑

◀후 비첩 자생 에센스
◀◀오르시아 28데이즈 앰플

LG생활건강 '후'도 中서 돌풍
맥쿼리증권 "목표가 110만원"

타오바오몰 화장품 판매 1위
내년 서울에 면세점 신설 호재

LG생활건강 주가 추이
단위: 원
830,000
800,000
600,000
2014년 11월 2015년 4월 17일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후'가 중국인들 사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도 잇따라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110만원까지 제시했다.

17일 맥쿼리증권 관계자는 "LG생활건강의 목표가를 110만원으로 제시하며 매수 의견을 냈다"며 "화장품 '후'에 대한 중국인들의 수요가 예상외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산성앨엔에스, 코스맥스, 코스온 등 화장품 관련주들은 중국인들의 수요 증가에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LG생활건강의 '후'도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해 2분기 이후부터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LG생활건강의 '후' 화장품 구매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서도 지속적으로 '후' 화장품을 사용하고 사용한 소비자들의 입소문에 중국내 소비자들까지 구매에 나서고 있다는 것.

실제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몰에서는 LG생활건강의 '후' 화장품 판매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2016년 서울 중심가에 새로운 면세점이 생기는 등 면세점 증가 추세도 LG생활건강의 주가를 좋게 보는 이유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5일 LG생활건강에 대해 화장품 사업의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96만원으로 높였다.

동부증권도 14일 LG생활건강에 대해 올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주가도 기존 6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LIG투자증권 역시 9일 화장품주의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지만 성장세 덕분에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면서 LG생활건강의 목표가를 94만원으로 올렸다.

국내 증권사들 뿐 아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국내증권사 보다 더 LG생활건강의 목표주가를 높게 보고 있다. 맥쿼리투자증권은 110만원을 제시했다.

맥쿼리증권 관계자는 "향후 3년간 중국 관광객 증가가 연평균성장률(CAGR) 30%에 이를 것"이라며 "LG생활건강은 3년간 이런 관광 소매채널에서의 세일즈가 연평균성장률(CAGR) 62%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동아쏘시오, 메지온과 '각자도생'
보유지분 추가 장내 처분하기로

지분율 20% 아래로 하락
지주사 행위제한요건 무너져
동아쏘시오 투자재원 마련
메지온은 독자경영 시작

동아쏘시오홀딩스 주가 추이
단위: 원
168,500
160,000
130,000
2013년 2014년 2015년 4월 17일

동아쏘시오그룹이 계열회사인 메지온과 각자도생의 길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전날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보유 중인 메지온 지분을 추가로 장내에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달 30일부터 보유 중이던 메지온 지분 37만3824주(4.76%)를 장내 매도한 바 있다. 이로써 동아쏘시오홀딩스가 보유한 메지온 지분은 25.29%에서 20.53%로 줄었다.

앞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대규모 지분 처분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로서 행위제한 요건을 가까스로 유지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로 메지온 보유 지분을 처분하면서 지분율이 20% 아래로 내려감에 따라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이 무너지게 됐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정에는 양사 간의 사업 시너지 효과가 적은 데다, 경영상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메지온 보유 지분 처분을 통해 신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을 하게 되고, 메지온은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됨으로써 독자 경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을 글로벌 시장에 공표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홀딩스가 추가로 메지온 지분을 처분함에 따라 박동현 메지온 대표가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이 경우 메지온은 독자 경영 토대를 구축하게 돼 해외 임상 및 판권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메지온은 지난 2002년 동아제약 연구조직이 분사해 동아팜텍으로 설립됐다가 2013년 지금 이름으로 바뀐 것"이라며 "메지온은 사명을 변경할 당시부터 독자 경영을 염두해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메지온 지분을 처분하면서 확보한 자금으로 국내외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올해부터 신성장 모멘텀을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홀딩스가 향후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내서 처분하는 방식이 아닌 기관과의 블록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동현 대표는 현재 메지온 지분 9.50%(77만1124주)를 보유하고 있다. 강인효 기자 kangih@

'컴투스프로야구2015'
구글·애플 스토어 등판

컴투스 주가 추이
단위: 원
182,600
150,000
25,000
2013년 2014년 2015년 4월 17일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가 '컴투스프로야구2015(이하 컴프야2015)'를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동시 출시된다.

17일 컴투스에 따르면 자사가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3D 모바일 야구 게임 '컴프야2015'를 정식 출시했다.

'컴프야2015'는 누적 다운로드 1000만 건을 기록 중인 '컴투스프로야구'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시리즈 최초로 3D 그래픽 기반의 리얼리티와 쉽고 직관적인 플레이 방식이 강점이다.

특히 실제 선수들의 외모뿐 아니라, 서건창, 김광현 등 주요 선수들의 개성 넘치는 타격 및 투구폼을 그대로 표현해 재미를 배가 시켰으며, KBS N Sports의 이기호 캐스터, 이용철 해설위원의 중계 방송과 신생 구단 kt wiz를 포함한 총 10개 구단의 선수들과 구장을 구현해 사실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실제 2015 KBO리그의 성적을 게임에 반영하는 'Live선수' 시스템을 통해 구단 별로 한 주 동안 활약이 좋았던 선수를 선정하고 능력치 상승 효과를 제공해 실제 야구의 재미를 게임 속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유지인트, 대구공장 준공

유지인트가 세계 수준의 생산 인프라를 갖춘 대구 신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지인트는 이에 따라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위치한 첨단시설의 신축공장으로 이전하게 됐다.

새로 건립된 신공장은 총대지 1만5125평, 기존 공장의 약 5배 수준으로 지난해 12월 완공, 올 1월 생산 라인 이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신공장 건립으로 유지인트는 소형 머시닝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 기대하고 있다.

이미 핵심 부품 개발 및 공용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모두 갖춘 유지인트는 이번 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현재 월 400대 수준인 제품 생산량을 연말까지 세계 3위 수준인 700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다.

또한 현재 매출에서 약 15%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다음 달 중 상하이에 판매사무소를 설치,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유럽·동남아시아·인도 등으로 점차 영업망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선영 기자 moon@

HYUNDAI MOTOR NEWS

www.hyundai.com



GO. DYNAMIC.
All New TUCSON 탄생

견고한 바디는 기본
숨막히는 파워
강력한 가속력까지



4월 특별 구매 혜택

- **아반떼 100만원 / 신형 쏘나타 50만원 / 그랜저 50만원 / 싼타페 30만원 유류비 지원**
- **쏘나타 하이브리드 / 그랜저 하이브리드 50만원 유류비 지원**
- **아슬란 100만원 유류비 지원** (현대차 보유고객 限)

금융 프로모션

- **아반떼, 10만원의 기적 프로모션!**
  계약금 10만원으로 1년간 할부부담 ZERO
  1년 무이자 거치 후 36개월 표준금리 할부 상환
- **엑센트 / 아반떼 / i30 / 벨로스터 보험료 반액 지원**
  자동차 보험료 50% 지원 (최대 30만원 限, 75년 이후 출생 고객 限)
- **현대자동차 개인 리스 프로모션**
  아반떼 (월 20만원~) / 쏘나타 (월 40만원~)
  그랜저 (월 50만원~) / 아슬란 (월 70만원~)

고객 참여 이벤트

- **현대자동차 전시장 방문 이벤트**
  홈페이지 응모 후 전시장 방문 고객
  모바일 쿠폰 100% 지급 및 추첨 후 경품 제공
  (제주도 여행권, 외식상품권, 헬로카봇 등)
- **현대차 생애 첫 고객 견적 / 구매상담 신청 이벤트**
  홈페이지 견적 / 구매상담시
  모바일 쿠폰 100% 지급 및 출고시 사은품 증정

※ 본 광고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취소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hyundai.com) 및 현대자동차 지점/대리점에 문의 바랍니다.

HYUNDAI |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